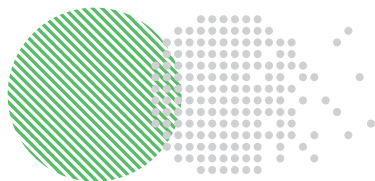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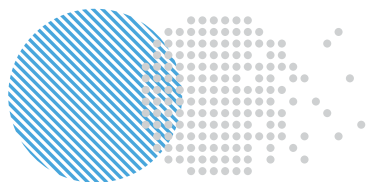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하형석 · 황진구 · 최인재 · 한지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저 자 하형석, 황진구, 최인재,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_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진인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성장과 발달의 변화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급변하는 사회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본 조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로의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경로와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신규패널(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5)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알파세대)의 발달과 적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지속적인 추적조사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달을 탐색하는 새로운 연구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패널조사 데이터는 현재까지 약 4,400여 편의 국내·외 논문에 활용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등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자분들과 학계, 정책당국의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패널데이터가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와 정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구요약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개요

■ KCYPS 목적 및 기대효과

● 조사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선제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
- 아동·청소년기 성장과 발달과정, 관련 정책과 사업이 성인기 이행 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KCYPS 주요 연혁

● 제1기 조사(2003년~2008년, 6년간 추적조사) : KYPS 2003

- (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결정 및 준비, 일탈행위, 자아관 등에 대한 자료 구축
- (대상) 2003년 기준 중2 3,449명, 2004년 기준 초4 2,884명
- (내용) 청소년: 직업선택,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 생활시간, 자아관 등
보호자: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 제2기 조사(2010년~2016년, 7년간 추적조사) : KCYPS 2010

- (목적)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대상)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코호트 각 2,300여명(총 7,071명) / 보호자
* KCYPS 2010 중1 코호트의 경우 본조사 종료(2016년)이후 현재까지 패널 유지 중
 - (내용) 아동·청소년: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 보호자: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2호)로 지정(2010년)

● 제3기 조사(2018년~2027년(예정), 중1 코호트 7년간 추적조사, 초4 코호트 8년간 중) : KCYP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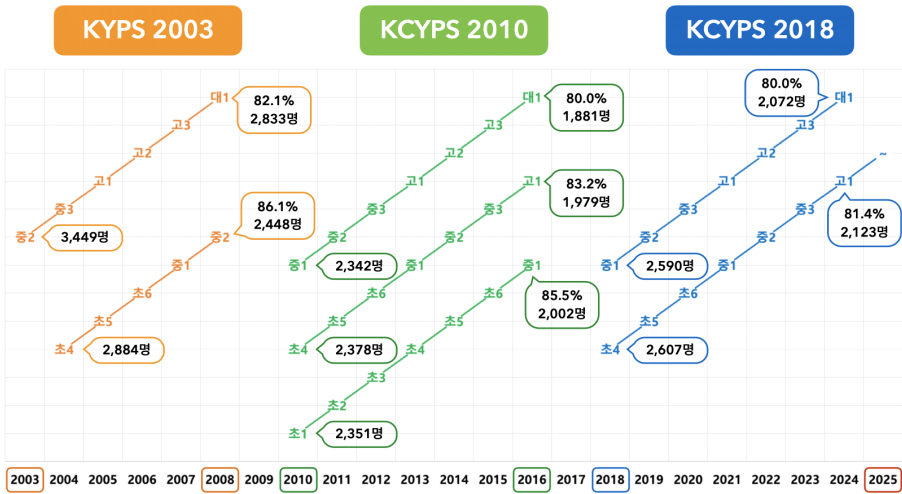
- (목적)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대상) 원패널(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총 5,197명)),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 (내용) 아동·청소년: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 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 스페셜 모듈
보호자: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 신체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

● 제4기 조사 예정(2025년~2034년(예정), 2025년 신규 코호트 구축 후 2028년 추가 코호트 구축 예정) : KCYP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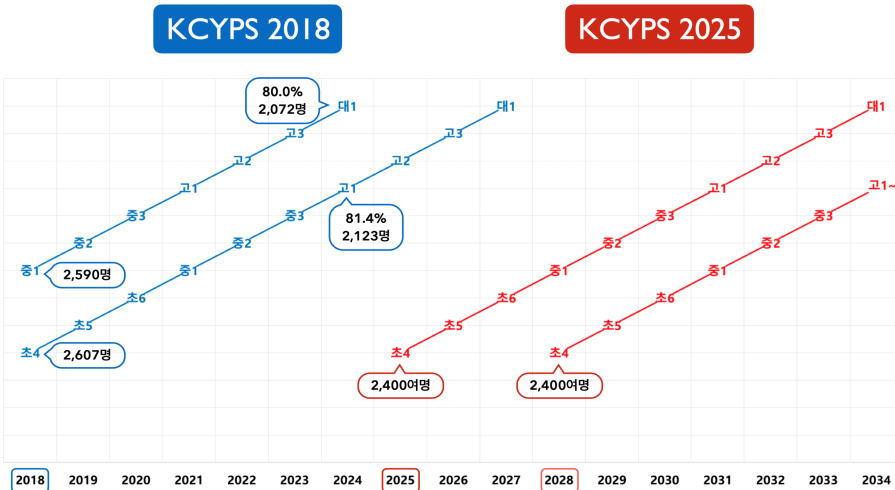
- (목적) α세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대상) 원패널(2025년 기준 초4, 2028년 기준 초4 각 2,400여명(총 4,800여명)), 원패널의 보호자

- (내용) 아동·청소년: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 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

보호자: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 신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



요약 그림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1기 ~ 제3기)



요약 그림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3기 ~ 제4기)

2.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개요

● (원패널)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신규 코호트인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두 개의 신규 초4 코호트로 구성

- KCYPS 2018의 2018년 제1차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590명을 원패널로 구축하였고,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 함
- KCYPS 2018의 2021년 제4차 조사에서는 코호트 각각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교급이 변동되었고, 2024년 제7차 조사에서는 초4 코호트가 고등학교 1학년, 중1 코호트는 성인이 됨
- KCYPS 2018의 2025년 제8차 조사에서는 중1 코호트의 본조사를 종료하고, 초4 코호트에 대해서만 제8차 조사를 실시 함
- KCYPS 2025는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2,400여명을 신규 코호트로 구축하여 제1차년도 조사를 실시 함

요약 표 1.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및 KCYPS 2025) 개요

	KCYPS 2018 초4 코호트 (제8차년도 조사)	KCYPS 2025 초4 코호트 (신규 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조사대상 : 원패널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607명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400여명
조사대상: 원패널 보호자/형제자매	원패널의 보호자 2,607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명	원패널의 보호자 2,400여명
조사방법	TAPI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및 형제자매 :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매년 조사 주제 변경) • 보호자 :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매년 조사 주제 변경) 	

3.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주요사업

1. KCYPs 2018 제8차년도 (2025) 조사 실시	조사 문항 확정	- 기본 모듈 수정·보완 / 스페셜 모듈 개발
	조사 준비	- 패널 유지 및 관리 / 조사원 교육 등
	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 보호자 + 형제자매 : 개별면접조사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종단면/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 종단면/횡단면 가중치 산출
2. KCYPs 2018 제7차년도(2024) 데이터 구축·공개	데이터 구축	- 데이터셋/유저가이드/조사표/코드북 국/영문 작성
	β 데이터 공개	- 5월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용 공개
	최종 데이터 공개	- 12월 :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공개
3.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분석보고서 등	-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 NYPI Bluenote 통계 등 발간
	학술대회 개최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11.21)
	데이터 활용실적 관리	- 데이터 이용 실적 조사 및 분석
	이용자 만족도/의견조사	-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및 관련 의견 조사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2025) 조사 실시	예비조사	-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조사 준비	- 표본설계 / 기본 모듈 개발·검토·확정
	패널 구축	- 학교 → 가구 → 아동·청소년 + 보호자 패널 동의
	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 보호자 : 개별면접조사 - 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5. KCYPs 2010 유지조사	제8차 조사(2024년) 결과 분석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8차 결과 분석 및 제1차-제8차 데이터 구축/공개 (코드북 및 조사표 포함)

요약 그림 3.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 내용 체계도

1) KCYPS 2018 제8차년도(2025) 조사 실시

● 조사 수행 과정 및 일정

요약 표 2.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원패널 유지관리	→	→	→	→	→	→	→	→	→	→	→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3. 조사문항 확정(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	→	→							
4. 실사 업체 선정			→	→								
5. NYPI IRB 심의					→	→						
6. 승인통계 변경승인						→	→					
7. TAPI 구축					→	→	→					
8. 면접원 교육							→					
9. 원패널 사전접촉						→	→					
10. 제8차년도 조사 실사								→	→	→	→	
11. 실사 참관 및 점검								→	→	→		
12. 데이터 처리									→	→	→	→
13.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 내용 구성

-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본 모듈 수정·보완함
- 낮은 합계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제7차년도 스페셜 모듈이었던 결혼·출산관 문항을 기본 모듈에 포함함
- 2025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스페셜 모듈 진로준비도 문항으로 구성함
- 스페셜 모듈은 제5차년도(당시 중1 코호트 고2 시점)와 동일 문항을 사용하여 코호트 간 비교가 가능하며, 초4 코호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점의 결과와 비교해 코호트 내 변화도 분석 가능

●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의 주요 특징 및 의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조사가 실시된 2003년 이후 첫 8차년도 패널조사

- KCYPS 2018은 기존 패널조사(KYPS 2003, KCYPS 2010)와 달리, 특정 코호트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동일 기수의 전체 패널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각 코호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조사를 지속하는 세대별 장기추적체계를 2025년부터 본격 도입
- 조사가 종료된 코호트와 지속 추적 중인 코호트 간의 장기 종단비교(Longitudinal Comparison)가 가능하도록 구성

●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실사 진행 : 8월 - 11월

- (조사환경 영향) 초4 코호트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실사 진행

2) KCYPS 2018 제7차년도(2024년도) 데이터 구축·공개

● 주요 조사 결과

- 실사 결과 제7차년도 조사는 원패널 4,196명(원패널 유지율 80.7%)과 원패널의 보호자 4,196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900명 조사에 성공
- 초4 코호트는 2,123명(원패널 유지율 81.4%) 조사가 완료되었고, 중1 코호트는 2,073명(원패널 유지율 80.0%) 조사가 완료
- 제7차년도 조사의 경우 초4 코호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교급 전환기이고,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시기로 패널유지율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 대상	* 2018년 구축된 원패널 5,197명 및 패널의 보호자, 형제자매 2,000명							
구축 패널	원패널 수	보호자 수	목표 형제자매 수	원패널 수	보호자 수	목표 형제자매 수		
	2,607명	2,607명	1,000명	2,590명	2,590명	1,000명		
제7차년도 조사현황	초4코호트 조사성공률 81.4%	완료 원패널 수	완료 보호자 수	완료 형제자매 수	완료 원패널 수	완료 보호자 수	완료 형제자매 수	중1코호트 조사성공률 80.0%
		2,123명	2,123명	1,028명	2,073명	2,073명	870명	

요약 그림 4.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요약

● 데이터 구축 및 공개

- 2024년 실시된 KCYPs 2018 제7차년도 조사결과 데이터 공개는 2025년 5월에 1차 사전 공개(β 데이터)와 12월 최종 데이터 공개로 구분하여 진행
- 모집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
- 최종 데이터는 코드북과 유저가이드를 포함하여 12월 한국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
-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해외 연구자들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화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데이터 공개와 함께 제공

3) 데이터 활용·분석 및 이용실적 관리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 (목적) 패널조사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활용 연구 성과 발표, 데이터 활용도 증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패널데이터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등
- (기여) 아동·청소년 주제 관련 다양한 학문분야간 융합과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 발전에 기여

- (연혁)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2025년 11월 21일(금))

* 2011년~2017년: 제1회~제7회, 2019년~2024년: 제8회~제13회

-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후원, 매년 16개 내외 청소년 관련 학회* 공동주최 참여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공동주최 학회(15개 학회): 대한법의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 2025년 11월 21일(금) 제14회 학술대회 개최: 4개 세션 12개 주제

- (발표 논문: 39편) 일반세션 총 33편(대학원생 3편 포함), 포스터세션 6편

* (참고사항) 제13회: 일반세션 총 38편, 포스터세션 5편 / 제12회: 일반세션 총 34편, 포스터세션 6편 / 제11회: 일반세션 총 36편, 포스터세션 6편 / 제10회: 일반세션 총 28편, 포스터세션 6편

● 데이터 분석보고서 발간

- (데이터분석) 기초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의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학교폭력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음
-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제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환경→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학교폭력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및 제도 기반의 4대 정책영역과 8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데이터분석보고서 외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7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요약·분석하는 NYPI Bluenote 통계 1편을 2025년 12월에 발간

● 데이터 이용실적 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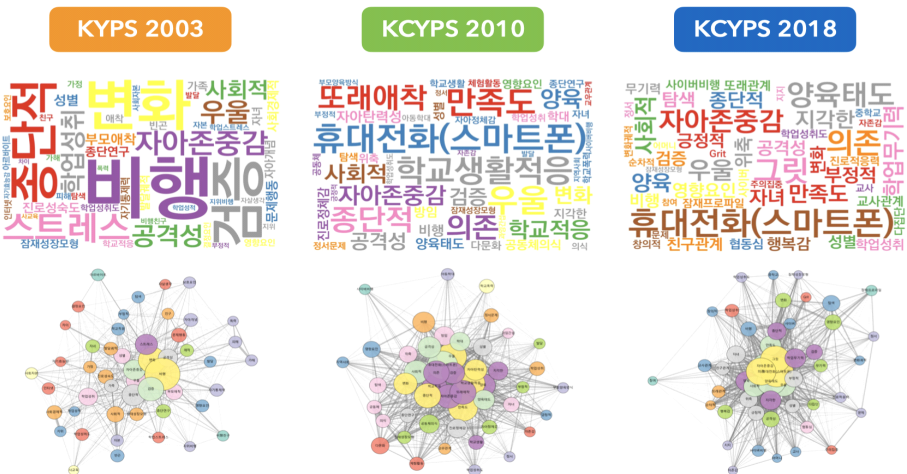
- (일반 활용)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 특성 상 패널사업 목적 달성 파악을 위해 데이터 활용실적을 조사하고 관리
 - *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에 데이터 활용 논문/보고서 목록 제공
- 2025년 9월 기준 학술지 논문을 포함한 총 활용 건수: 총 4,419편

요약 표 3.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이용실적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4,419	100.0	1,141	100.0	2,100	100.0	1,178	100.0
학위 논문	박사	167	3.8	46	4.0	90	4.3	31	2.6
	석사	627	14.2	133	11.7	331	15.8	163	13.8
학술지 논문		2,757	62.4	710	62.2	1,287	61.3	760	64.5
학술대회 발표논문		712	16.1	202	17.7	306	14.6	204	17.3
보고서/단행본		156	3.5	50	4.4	86	4.1	20	1.7

* 2025년 9월 기준 집계치임.

- 패널데이터 이용실적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는 문제행동 중심 → 관계·적응 중심 → 역량·회복 중심으로 변화해 왔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발달 연구의 초점이 확장되어 왔음
- 제1기(KYPS 2003)는 비행,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등이 중심 키워드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심리적 위험요인 분석이 주를 이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비행이 핵심 노드로,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가족 등과 연결되어 비행 예방과 보호 요인 강화 중심의 연구 구조를 형성함
- 제2기(KCYPS 2010)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우울, 학교생활적응, 또래애착 등이 상위권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계적 요인이 연구의 중심으로 확장됨.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우울-공격성-학교적응의 연결이 뚜렷해 미디어 사용이 정서, 행동,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됨
- 제3기(KCYPS 2018)는 휴대전화, 의존, 그릿(Grit), 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이 주요 키워드로, 디지털 의존과 긍정심리학적 요인의 결합이 특징적임. 네트워크에서는 그릿-자아존중감-우울-스마트폰 의존의 구조가 나타나 자기조절력, 회복탄력성과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탐구함



요약 그림 5.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개별 데이터 이용 실적 주요 키워드

- KCYPs 조사의 내용과 방법, 데이터 제공 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 2025년 조사는 제14회 학술대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
-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 설문문항 게시하여 상시 조사 체계도 구축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2025) 조사 실시

● 조사 수행 과정 및 일정

요약 표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2025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2. 실사 업체 선정			→	→								
3. 예비조사				→	→	→						
4. NYPI IRB 심의					→	→						
5. 승인통계 변경승인						→	→					
6. TAPI 구축					→	→	→					
7. 면접원 교육							→					
8. 표본설계 및 패널구축						→	→	→	→	→	→	→
9. 제1차년도 조사 실사								→	→	→	→	→
10. 실사 참관 및 점검								→	→	→		
11. 데이터 처리									→	→	→	→
12.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2025년) 조사 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α 세대, 2010년 이후 출생)의 발달 특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규패널을 구축함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기존 KCYPS 2018과 연계하여 세대 간 발달 비교 및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조사

-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약 2,400여명을 원패널로 구축하고,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를 병행하여 다층적 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함
- 2028년 신규 코호트(202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를 구축하여 2개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중다패널설계로 제4기 패널구축을 완성할 예정
- 패널 구축 및 조사 착수 전 예비조사를 통해 2018년 대비 변화된 조사환경 및 응답 타당성을 점검함
- 조사내용은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로 구성하여 KCYPS 2018과 세대 간 발달 경향의 종단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2025년) 실사 진행 : 8월 - 11월

-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400여명 및 보호자 2,400여명
- 표본설계: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422,020명을 모집단으로 정의
- 시도 및 동·읍면 지역을 층화변수로 한 층화 2단 집락추출법(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 적용(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13개교 선정, 학교 내 무작위 학급 추출)
- 조사방법: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한 뒤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TAPI 방식)로 진행
- 패널관리: 학생·보호자 각각 응답을 목표로 조사하며,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조사 참여 동기 부여 및 피드백 제공

5)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8차)

●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개요

-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 중1코호트 패널을 대상으로 이들과의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지조사를 2017년(당시 20세)부터 매년 12월에 실시

- KCYPS 2010 중1 코호트는 현재(2025년 기준) 만 28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청소년기 전 기간에 걸쳐 패널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초자료가 축적된 집단임
-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부터 이어져 온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종단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패널조사 자료는 복합적인 이행기의 양상을 다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제8차(2024년) 유지조사 결과

- 접촉 성공률 : KCYPS 2010 중1 코호트 2,351명 중 1,309명(55.7%) 접촉
- 유지조사 성공률 : 1,109명 참여(접촉 패널의 84.7%, 전체 원패널 47.2%)
- 패널의 현재 상황: 학생(6.0%), 직장인(74.9%), 무직(19.1%)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25-29세의 2024년 고용률은 72.5%로, 이 연령구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에 대한 Output의 추정치는 실제 모집단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종료

- 2025년 수행 중인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에 본 유지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에서 유지조사는 제8차 유지조사를 끝으로 종료함
-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의 추적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연구보고25-일반06

I. 개요 1

1. KCYPS 개요 3

2. 2025년 사업 개요 6

II.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9

1.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개요 21

2.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23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 및 스페셜 모듈 39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승인통계 변경승인 46

5. 실사 준비 48

6. 실사 진행 및 관리 75

III. 2024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85

1. KCYPS 2018 제7차년도(2024년) 조사 결과 87

2. 패널 유지 및 이탈 유형 96

3. 가중치 산출 104

4. 주요 조사 결과	112
5.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인식구조 분석	139
6. 데이터 공개	158
IV. 데이터 활용·분석 및 이용실적 관리	163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165
2.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176
3. 데이터 이용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183
V.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193
1. 유지조사 개요	195
2. 제8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	198
3. 유지조사 종료	201
참고문헌	203
부록	211
국문초록	360
Abstract	362

표 목차

표 I-1.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 수행 일정	8
표 I-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11
표 I-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추진 일정	11
표 I-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	15
표 II-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및 KCYPS 2025) 개요	23
표 II-2. KCYPS 2025 조사대상 설계 : 초4 코호트 선정 배경	25
표 II-3. 예비조사 시도별 표본할당 및 조사 완료율	30
표 II-4. 예비조사 결과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향	34
표 II-5. 청소년/보호자의 문항 개선 의견	37
표 II-6. 실사 진행 관련 사전 검토사항	39
표 II-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 및 스페셜 모듈 구성 논의 과정	41
표 II-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 및 항목	42
표 II-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호자 조사 영역 및 항목	45
표 II-10.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	47
표 II-11. 시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 현황	50
표 II-12. 시도별 표본할당 결과	52
표 II-13. 시도별 도시규모별 표본할당 결과	53
표 II-14. 서울시와 경기 남부/북부에 포함되는 시군구	54
표 II-15. 2025년 KCYPS 조사원 교육	69
표 III-1. 초4 코호트 조사결과(제7차년도)	90
표 III-2. 중1 코호트 조사결과(제7차년도)	91
표 III-3.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별 결과	92
표 III-4.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간 관계	93
표 III-5. 원패널 유지 및 이탈 결과	97
표 III-6. 코호트별 원패널 유지 및 이탈 결과	98
표 III-7. 원패널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100
표 III-8. 코호트별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초4 코호트	101
표 III-9. 코호트별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중1 코호트	102
표 III-10.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동일 개체 응답 유형	104

표 III-11.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105
표 III-12.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105
표 III-1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106
표 III-14.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107
표 III-15.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107
표 III-16. 제7차년도 종단면 초4 코호트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108
표 III-17.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109
표 III-18.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109
표 III-19.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111
표 III-20.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111
표 III-21.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평일/주말)	113
표 III-22. 학업 열의	115
표 III-23. 학업 무기력	115
표 III-24. 진로적응력	117
표 III-25.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118
표 III-26. 정서문제	120
표 III-27. 협동심	121
표 III-28. 창의적 성격, 그릿(Grit)	122
표 III-29. 현실비행 및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	124
표 III-30. 건강 및 신체	125
표 III-31. 스마트폰 의존도	127
표 III-32.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128
표 III-33. 친구관계	129
표 III-34. 교사관계	130
표 III-35. 양육태도	132
표 III-36. 결혼관	134
표 III-37. 출산관	135
표 III-38. 시간 선호	138
표 III-39. 용서하는 성향	139
표 III-40.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148
표 III-41.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150
표 III-42.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151
표 III-43.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153
표 III-44.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154
표 III-45.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156
표 III-46.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157

표 III-47. KCYPS 2018 제7차년도 데이터셋 명칭	159
표 IV-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실적(2011년-2025년)	166
표 IV-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167
표 IV-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70
표 IV-4. KCYPS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실적(2011년-2025년)	178
표 IV-5. NYPI Bluenote 통계 발간 실적(2011년-2024년)	182
표 IV-6.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이용실적	183
표 IV-7.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연도별 데이터 이용실적	185
표 IV-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 조사 결과 (2022년-2025년)	191
표 V-1. KCYPS 2010 원패널 유지율 및 유지패널 유지율	196
표 V-2.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접촉(연락) 성공률	199
표 V-3.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성공률	200
표 V-4. 현재 상황	200
표 V-5.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	201
부록 표 VI-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문항 출처	215
부록 표 VI-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호자 조사 항목 출처	222
부록 표 VII-1.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330
부록 표 VII-2.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332
부록 표 VII-3.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334
부록 표 VII-4.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336
부록 표 VII-5.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338
부록 표 VII-6.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340
부록 표 VIII-1.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연구 관련 기초 데이터	342
부록 표 VIII-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제공 정보	343
부록 표 VIII-3. 키워드 정리 방법	344
부록 표 VIII-4. 연도별·자료유형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345
부록 표 VIII-5. 제1기(KYPs 2003)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349
부록 표 VIII-6. 제2기(KCYPS 2010)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350
부록 표 VIII-7. 제3기(KCYPS 2018)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351
부록 표 VIII-8.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상세현황 종합	353
부록 표 VIII-9.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대분류별 현황	354

부록 표 Ⅷ-10.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중분류별 현황	355
부록 표 Ⅷ-11. 제1기(KYPs 2003)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356
부록 표 Ⅷ-12. 제2기(KCYPs 2010)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357
부록 표 Ⅷ-13. 제3기(KCYPs 2018)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	358
부록 표 Ⅷ-14. 패널데이터 활용 전체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10위 기수별 변화	359

그림 목차

그림 I-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1기 ~ 제3기)	5
그림 I-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3기 ~ 제4기)	5
그림 I-3.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 내용 체계도	7
그림 I-4. KCYPs 2018 코호트별 유지율 변화	10
그림 I-5. KCYPs 2018 및 KCYPs 2025	14
그림 I-6. KCYPs 2025 패널 구축 흐름도	16
그림 II-1. KCYPs 2025 : 초4 코호트 신규 구축	24
그림 II-2. 예비조사 개요	27
그림 II-3. 예비조사 패널 컨택 및 조사 절차	32
그림 II-4. FGI 개요	35
그림 II-5. 2025년 KCYPs IRB 심의 절차	46
그림 II-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제1기 ~ 제4기)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비교	49
그림 II-7. 실사 수행기관 선정(제1기 ~ 제4기)	60
그림 II-8. 주기적 접촉 및 정보 업데이트	61
그림 II-9. 물질적·비물질적 보상체계	62
그림 II-10. 조사원 인센티브 제도	63
그림 II-11. 거절 유형의 세분화 및 접촉 경로, 대응 방안 마련	63
그림 II-12. 거절자 대응 및 재접촉 관리	64
그림 II-13. 2025년 KCYPs 배너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65
그림 II-14. 2025년 KCYPs 홍보자료	65
그림 II-15. KCYPs 2025(제1차년도) 조사원 선발기준	67
그림 II-16. KCYPs 2018(제8차년도) 조사원 선발기준	67
그림 II-17. 2025년 KCYPs 조사원 교육 내용	68
그림 II-18. 조사원 선발기준	70
그림 II-19. 조사원 선발 및 패널리스트 배분	70
그림 II-20. 조사원 현장 에디팅 교육	71
그림 II-21. 조사원 성과 보상 체계	71
그림 II-22. 2025년 KCYPs TAPI 개발과정	72

그림 II-23. TAPI 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75
그림 II-24. 사전 전화 컨택	76
그림 II-25. 패널 정보 DB 관리시스템	77
그림 II-26. 전화 컨택 설득 과정	78
그림 II-27. 협력교사의 역할	79
그림 II-28. 학교 표집 및 패널 컨택 과정	79
그림 II-29.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	80
그림 II-30. KCYPS 2018 제8차년도 가구 방문 조사 절차	81
그림 II-31.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알람톡 서비스 운영	82
그림 II-32. KCYPS 2025 제1차년도 가구 방문 조사 절차	83
그림 III-1.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요약	88
그림 III-2.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결과	89
그림 III-3. KCYPS 2018 제7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실사 결과	95
그림 IV-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포스터	168
그림 IV-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포스터	174
그림 IV-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공간 전체 구조도	176
그림 IV-4.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등재구분별 현황	186
그림 IV-5.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대분류별 현황	187
그림 IV-6.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중분류별 현황	188
그림 IV-7.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개별 데이터 이용 실적 주요 키워드	190
부록 그림 VIII-1. 연도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346
부록 그림 VIII-2. 연도별·자료유형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346
부록 그림 VIII-3. 연도별·학위구분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활용 학술자료 현황	347
부록 그림 VIII-4. 연도별·학술지구분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활용 학술자료 현황	347
부록 그림 VIII-5. 연도별·자료유형별 연도별·기수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348
부록 그림 VIII-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350

부록 그림 Ⅷ-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351
부록 그림 Ⅷ-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352

○———— 제1장 개 요

- 1. KCYPS 개요
- 2. 2025년 사업 개요

1. KCYPS 개요²⁾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25년 현재 제16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종단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은 다양한 환경 요인 속에서 이루어진다.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과 같은 사회 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는 청소년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 가족 구성,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 개인을 둘러싼 미시적 요인 역시 아동·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발달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횡단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횡단조사는 특정 시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변화의 경향이나 원인-결과 관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개인 및 집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석적 유용성이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는 2003년에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 4기로 나누

1) 이 장은 하형석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pp.1-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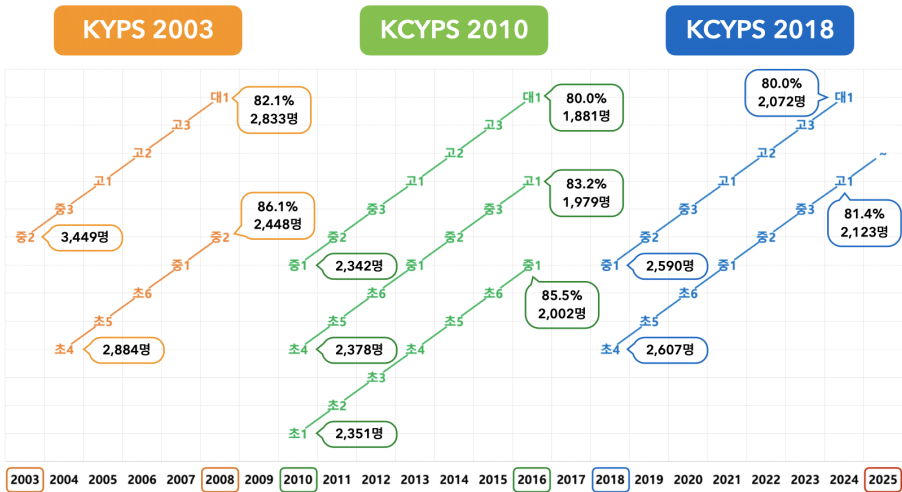
어 진행되고 있다.

제1기 패널조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 2003)'로서,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결정 및 준비, 일탈행위, 자아관 등에 대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3년에 중2 코호트 약 3,500명, 2004년에 초4 코호트 약 2,900명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2008년까지 6년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2기 패널조사에 해당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는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의 기초연구를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KCYPS 2010은 초1, 초4, 중1의 3개 코호트별로 각각 2,300여 명(총 7,071명)의 원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이들이 각각 중1, 고1, 대1의 나이가 되는 시점에 조사를 종료하였다. 조사 종료 이듬해인 2017년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기 패널조사인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의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성장과 발달의 변화 양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요인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제4기 패널조사(KCYPS 2025)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신규 코호트로 먼저 구축된다. 신규패널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α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달한 세대로서, 세대 간 비교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KCYPs 2010 중1 코호트의 경우 **본조사 종료**(2016년, 80.0%)이후 현재까지 **패널 유지**(2024년, 55.7%) 후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에서 본조사 진행

그림 |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1기 ~ 제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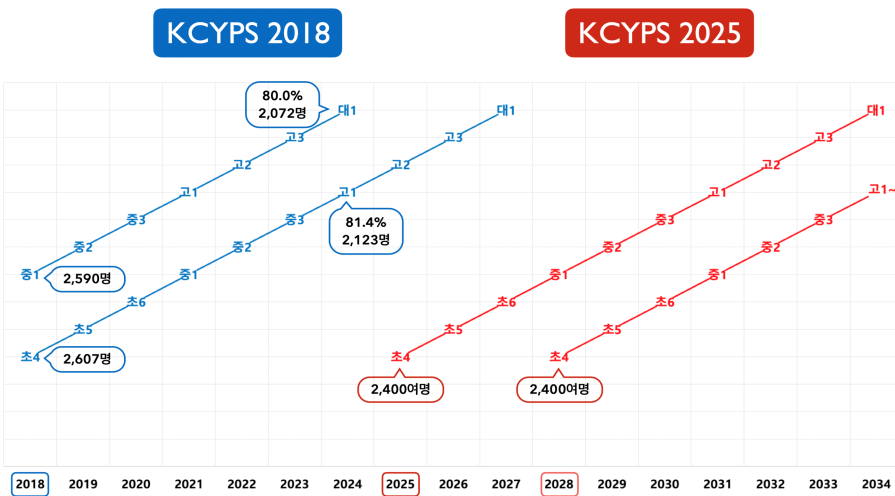


그림 |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혁 (제3기 ~ 제4기)

2. 2025년 사업 개요³⁾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내용은 크게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YPS 2018의 제8차년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에 구축된 초등학교 4학년(2025년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 원패널 총 2,607명을 대상으로 제8차년도 조사를 진행한다. 원패널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도 함께 조사하여,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KCYPS 2018의 제7차년도(2024년) 조사 데이터 구축, 공개 및 분석을 수행한다. 2024년 실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국·영문 코드북 및 유저가이드 작성 등을 거쳐 2025년 5월에는 학술대회용(β) 데이터를, 12월에는 최종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한다. 특히 2024년에 수행된 데이터 영문화 작업을 업데이트하여, 국내 연구자의 분석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 연구자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셋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공개와 함께 연구진은 KCYPS 주요 조사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이터분석보고서와 조사 결과의 대외 확산을 위한 NYPI Bluenote 통계를 발간한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계의 청소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2025년 11월 21일(금) 개최)를 비롯한 연구 확산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실적 조사,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 및 연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2025년에는 새로운 세대(α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5(KCYPS 2025)’를 새롭게 구축한다. 표집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약 2,400여명이며, 학교 - 가구 - 아동·청소년 - 보호자 순으로 패널을 구축한다. KCYPS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의 조사를 통해 KCYPS 2018와 연계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발달 비교와 종단적 연속성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8차 결과 분석을 진행하고, 제1차~제8차 데이터를 구축하여 코드북 및 조사표와 함께 공개한다.

3)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9~15)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1. KCYPS 2018 제8차년도 (2025) 조사 실시	조사 문항 확정	- 기본 모듈 수정·보완 / 스페셜 모듈 개발
	▼	
	조사 준비	- 패널 유지 및 관리 / 조사원 교육 등
	▼	
2. KCYPS 2018 제7차년도(2024) 데이터 구축·공개	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 보호자 + 형제자매 : 개별면접조사
	▼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종단면/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 종단면/횡단면 가중치 산출
3.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구축	- 데이터셋/유저가이드/조사표/코드북 국/영문 작성
	β 데이터 공개	- 5월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용 공개
	최종 데이터 공개	- 12월 :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공개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 차년도 (2025) 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보고서 등	-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 NYPI Bluenote 통계 등 발간
	학술대회 개최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11.21)
	데이터 활용실적 관리	- 데이터 이용 실적 조사 및 분석
	이용자 만족도/의견조사	-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및 관련 의견 조사
5. KCYPS 2010 유지조사	예비조사	-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	
	조사 준비	- 표본설계 / 기본 모듈 개발·검토·확정
	▼	
	패널 구축	- 학교 → 가구 → 아동·청소년 + 보호자 패널 동의
	▼	
	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 보호자 : 개별면접조사 - 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5. KCYPS 2010 유지조사	제8차 조사(2024년) 결과 분석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8차 결과 분석 및 제1차-제8차 데이터 구축/공개 (코드북 및 조사표 포함)

그림 1-3.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 내용 체계도

1)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 실시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패널 유지관리 이외에 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구성, IRB 심의, 승인통계 변경승인, TAPI 구축, 면접원 교육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사 수행절차와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 -1.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원패널 유지관리	→	→	→	→	→	→	→	→	→	→	→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3. 조사문항 확정(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	→	→							
4. 실사 업체 선정			→	→								
5. NYPI IRB 심의					→	→						
6. 승인통계 변경승인						→	→					
7. TAPI 구축					→	→	→					
8. 면접원 교육							→					
9. 원패널 사전접촉 ⁴⁾						→	→					
10. 제8차년도 조사 실시								→	→	→	→	
11. 실사 참관 및 점검								→	→	→		
12. 데이터 처리									→	→	→	→
13.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KCYPs 2018은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두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제8차년도 조사부터는 2025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지속한다.

조사 문항의 경우,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에 맞춰 기본 모듈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낮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제7차년도 조사에서 스페셜 모듈로 구성했던 결혼·출산관 문항을 기본 모듈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스페셜 모듈은 매년 반복 측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4) 조사안내문 및 협조요청(“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 및 관리되므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내용 포함) 공문 발송.

위한 주제 중심의 보완 문항으로 구성된다.

제8차년도 조사에서는 2025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초4 코호트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진로준비도 관련 문항을 스페셜 모듈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제5차년도 조사에서 중1 코호트가 고등학교 2학년일 당시에도 동일하게 구성된 바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코호트 간 종단 비교가 가능하며, 초4 코호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점의 진로준비도 문항과 비교함으로써 코호트 내 변화 양상 또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KCYPS 2018은 KYPS 2003이나 KCYPS 2010과 달리, 특정 코호트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전체 조사를 종료⁵⁾하지 않고, 각 코호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조사를 지속하는 방식을 2025년부터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가 종료된 코호트와 지속 추적 중인 코호트 간의 장기 종단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9차년도 이후의 스페셜 모듈 구성 시에도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제8차년도 조사는 실사 업체 선정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부터 실사를 시작하였다. 실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패널조사의 전반적인 조사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7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패널의 재유입을 유도하였다. 둘째, 제7차년도에 개발된 성인용 조사표를 활용하여, 성인 연령대에 도달한 초4 코호트(2025년 기준 고2)의 형제자매 조사도 병행하였다. 셋째, 조사기간별 진행 관리 및 지역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지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전략을 수립·운영하였다.

2) KCYPS 2018 제7차년도(2024년도) 데이터 구축·공개

KCYPS 2018 제7차년도 조사는 초4 코호트(2,123명, 유지율 81.4%)와 중1 코호트(2,073명, 유지율 80.0%)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원패널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조사까지 포함하여 총 6개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었다. 각 데이터셋은 코호트와 조사대상, 조사

5) KYPS 2003은 2003년 기준 중2 코호트와 2004년 기준 초4 코호트 두 개의 코호트를 운영하였고 중2 코호트가 성인이 된 시점인 2008년까지만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남은 코호트의 최종 추적조사 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었음. KCYPS 2010은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코호트 세 개의 코호트를 운영하였고 중1 코호트가 성인이 된 시점인 2016년까지만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남은 두 코호트의 최종 추적조사 시기는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음.

차수를 기준으로 일관된 명칭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통합 및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셋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SPSS(.sav), SAS(.sas7bdat), STATA(.dta), R(.rda), CSV(ASCII) 등 5가지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2025년 5월에는 β (베타) 데이터 형태로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참가자에게 1차로 제공되었으며, 연구자들의 검토와 오류 검증, 가중치 확정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에 최종 데이터와 코드북, 유저가이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또한, KCYPs 2018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분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사전(Excel Hyperlink) 형태의 코드북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 변수명, 응답값 등을 상호연결하여 복잡한 패널데이터 구조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평균·표준오차·상대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여 데이터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KCYPs 2018 데이터의 국제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문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최초로 영문 코드북 및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개 시에는 수정·보완된 영문화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제7차년도 데이터의 구축·공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3장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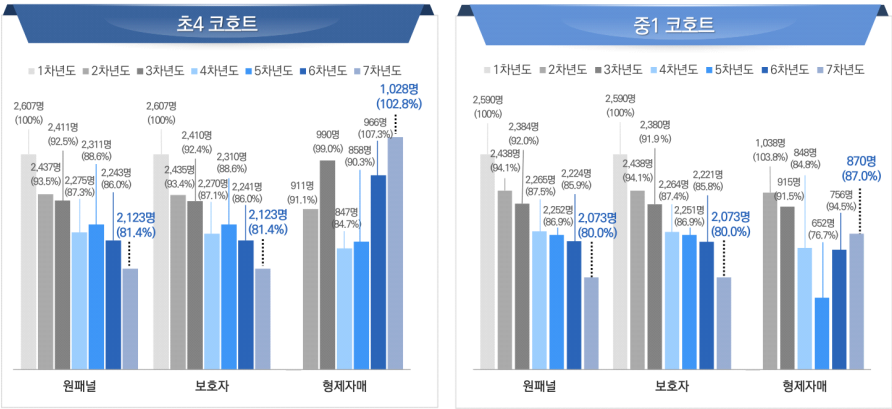


그림 1-4. KCYPs 2018 코호트별 유지율 변화

3) 데이터 분석 및 활용

KCYPS 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크게 학술대회 개최와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데이터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나누어 수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4장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제1회가 2011년에 개최된 이후 2025년에는 제14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학술대회를 통해 KYPS와 KCYP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이 총 480여편이 발표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2025년 11월 21일(금)에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로 개최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학술대회 개요와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40분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최	아동·청소년 관련 총 15개 학회 공동주최
후 원	성평등가족부

표 1-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추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패널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수립											
○공동주최 학회 섭외											
○연구계획서 공모 및 접수											
○연구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											
○데이터활용 보안서약서 안내 및 학술대회용 β 데이터 발송											
○최종 논문 접수											
○최종 논문 심사 및 결과 통보											
○세션 및 토론 구성, 학술대회 개최											

패널조사는 조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매년 동일한 조사 문항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KCYPS 2018은 기본 모듈과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에 따라 스페셜 모듈 문항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종의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인 2024년 데이터 분석보고서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와 패턴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2003년부터 패널조사로 이루어진 청소년패널조사(KYPS) 및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3가지 코호트(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 이전에 고교 시기 취업과 진학 선택 과정을 살펴보았다. 2025년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보고서와 별편인 데이터분석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패널조사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조사결과 데이터의 이용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실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누적 집계 결과⁶⁾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박사·석사),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보고서 및 단행본 등은 총 4,419편으로 파악되었다.

2025년에도 데이터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개별 연구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데이터 활용 연구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청소년 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간의 연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 보고서 제4장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14회 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가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데이터 품질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6) 데이터 활용 논문/보고서 목록은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에 제공됨.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2025) 조사 실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 설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패널데이터의 지속적 구축과 관리가 핵심적 기반이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을 동태적으로 관찰한다는 패널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관리 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KYPS 2003)」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어서 2018년부터는 아동·청소년기의 복합적 발달 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을 수행해 오고 있다. KCYPS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원패널로 구축하고, 원패널의 보호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층적 조사체제로 설계되었다. 조사 시점 기준 2024년에는 초4 코호트가 고등학교 1학년에, 중1 코호트가 성인기(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였다. 2025년에는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의 추적조사를 종료하고,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신규 코호트를 구성하여 새로운 패널(KCYPS 2025)을 구축 한다. 따라서, 2025년에는 KCYPS 2018 초4 코호트의 제8차년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KCYPS 2025의 신규 초4 코호트 패널 구축 및 제1차년도 본조사를 병행한다. 이번에 구축될 신규패널인 α 세대⁷⁾패널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사회·경제·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국제정세 변화 등) 속에서 성장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디지털 온리(Only)' 세대로 불리는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인구변화 대응, 미래혁신 인재 양성 등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7) α (알파)세대는 Z세대 다음세대인 2010년 이후 출생 세대로 2025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

정책 시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대별 정책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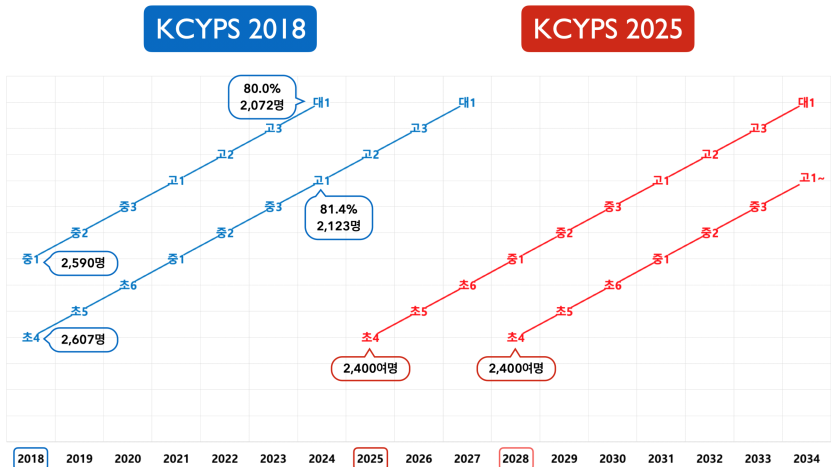


그림 1-5. KCYPs 2018 및 KCYPs 2025

2018년 제3기 패널 구축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교육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양식 전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온라인 학습 환경의 확대, 스마트기기 활용의 일상화, 비대면 소통방식의 확산 등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KCYPs 2025 신규 초4 코호트 패널 구축에 앞서 2018년 대비 변화된 조사환경과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규패널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 구축 및 본조사 착수 전 시행된 예비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조사단위별 현장 특성 파악, 문항의 응답 타당성과 적합성(인지적·정서적 발달 수준에 맞는 문항 구성 여부 확인 및 개선), 조사내용의 난이도 검증, 항목별 무응답률 분석, 조사 성공률 및 패널참여 의향 파악, 기타 비표본오차 요인 점검 등이 포함된다. 또한, FGI를 통해 실제 응답자가 조사표를 경험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실사 절차와 조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본조사 설계에 반영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변화

된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지를 이전 조사결과와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

표 1 -4.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2. 실사 업체 선정			→	→								
3. 예비조사				→	→	→						
4. NYPI IRB 심의					→	→						
5. 승인통계 변경승인						→	→					
6. TAPI 구축					→	→	→					
7. 면접원 교육							→					
8. 표본석계 및 패널구축						→	→	→	→	→	→	→
9. 제1차년도 조사 실사								→	→	→	→	→
10. 실사 참관 및 점검								→	→	→		
11. 데이터 처리									→	→	→	→
12.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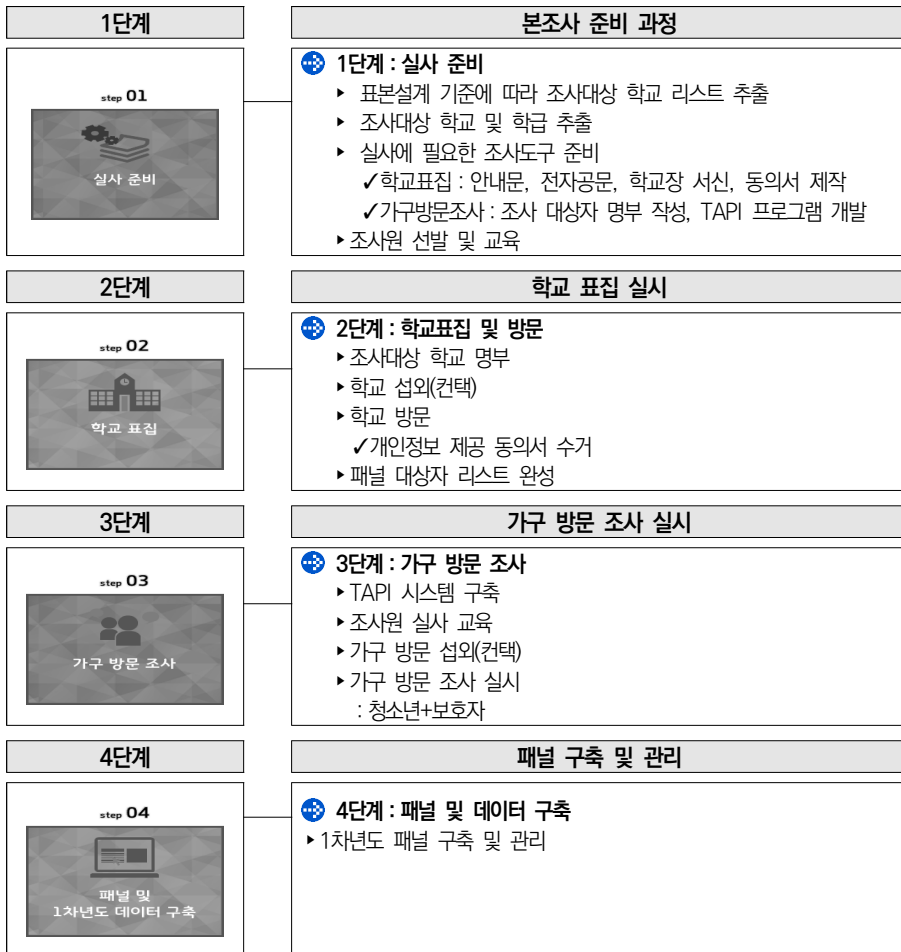


그림 1-6. KCYPS 2025 패널 구축 흐름도

5) KCYPS 2010 중1코호트 유지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에서는 KCYPS 2010에 대해 2016년 본조사가 종료된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과의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지조사를 2017년(당시 만 20세)부터 매년 진행해왔으며, 2024년 제8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유지조사는 온라인 응답을 중심으로 문자, 이메일, 유·무선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패널의 연락체계

유지와 사회경제적 변동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패널로서의 연속성과 대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2025년에는 KCYPS 2010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 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되며, 학업, 직업, 가족, 경제, 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청소년기의 경험이 청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2024년 제8차 조사를 끝으로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종료하였으며, 이후 청년 연구에서의 본조사를 통해 성인기 이행 과정의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5장에 수록되어 있다.

○———— 제2장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1.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개요
- 2.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 및 스페셜 모듈
-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승인통계 변경승인
- 5. 실사 준비
- 6. 실사 진행 및 관리

1.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개요⁹⁾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변화의 양상과 발달 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025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8년에 구축된 KCYPS 2018 초4 코호트와 2025년에 신규로 구축하는 KCYPS 2025 초4 코호트의 두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원패널(2025년 고등학교 2학년),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와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로 구성되어, 신·구 초등학교 4학년 두 코호트 체계를 중심으로 세대 간·세대 내 종단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 원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제1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590명을 모집하여 원패널을 구축하였다. 이후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제4차 조사 시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1학년 코호트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여 학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2024년 제7차 조사에서는 초4 코호트가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였고, 중1 코호트는 성인기에 도달함에 따라 본조사가 종료되었다. 한편,

8) 이 장은 하형석 선임연구위원, 한지형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음.

9)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4-6)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2025년 신규로 구축된 패널(KCYPS 2025)은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약 2,400명의 학생이다.

2025년도 본조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KCYPS 2018 초4 코호트(2,607명)와 신규 구축된 KCYPS 2025 초4 코호트(약 2,400명)를 원패널로 포함하여 수행된다.

(2) 원패널의 보호자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에 대한 탐구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에 KCYPS 2018 제3기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부터 아동·청소년(원패널)과 그 보호자를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해 왔다.

2025년도 보호자 조사는 이러한 조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KCYPS 2018 원패널 보호자 2,607명과 새롭게 구축된 KCYPS 2025 원패널 보호자 약 2,400여명을 포함한 신·구 보호자 이중 패널 구조(dual-panel structure)로 수행되었다.

(3) 원패널의 형제자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형제자매 효과(Sibling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KCYPS 2018 구축 차년도인 제2차년도 조사(2019년)부터 원패널의 형제자매 2,000여명(각 코호트당 1,000여명)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서로의 발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형제자매 조사는 한 가정 내 개인 간 발달 차이뿐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자원의 분포,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구조적 특성 등 가정환경의 다층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25년도 조사의 경우, 신규로 구축된 KCYPS 2025 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추후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며, 올해는 기존 KCYPS 2018 초4 코호트의 형제자매 1,000여명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한다.

표 II-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및 KCYPS 2025) 개요

	KCYPS 2018 초4 코호트 (제8차년도 조사)	KCYPS 2025 초4 코호트 (신규 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조사대상 : 원패널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607명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400여명
조사대상: 원패널 보호자/형제자매	원패널의 보호자 2,607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명	원패널의 보호자 2,400여명
조사방법	TAPI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및 형제자매 :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매년 조사 주제 변경) • 보호자 :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매년 조사 주제 변경) 	

2.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1) KCYPS 2025 조사대상 설계 : 신규 코호트 구축

패널조사에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추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대상의 설계는 패널연구의 타당성,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높은 일반화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다. 패널조사는 조사 목표에 따라 선정된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므로, 조사대상은 추적의 용이성, 응답유지의 가능성, 표본의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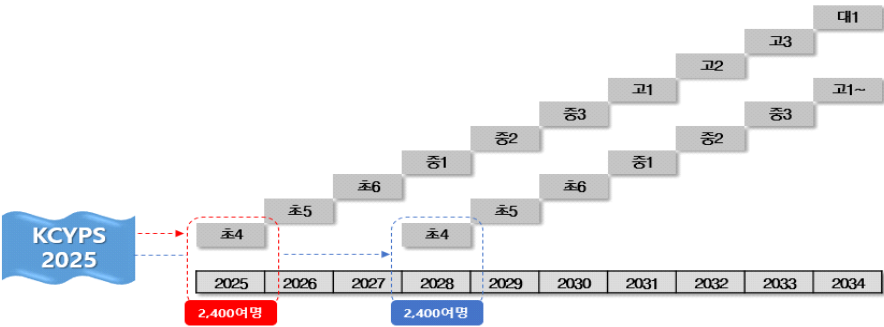
KCYPS 2025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발달의 역동성과 인과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달 단계별 전환기 연구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며, 청소년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인지, 자기이해, 정체감 등 인간의 주요 심리사회적 발달지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인간의 양적 성장(Growth)과 질적

발달(Development),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로,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발달 단계이며,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연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규패널 설정은 코호트 비교의 타당성, 패널 설계의 연속성, 시계열 데이터의 확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으며, 기존 코호트(KCYPS 2010, KCYPS 2018)와의 비교 분석 구조 속에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 설계의 연속성과 시계열적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함으로써, 세대 간 변화 추이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규 코호트의 구축 연령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과 동시에, 기존 패널과의 동일 코호트 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 성실도, 응답 지속성, 측정지표에 대한 인지적 이해력, 자기보고식 설문 가능성 등 패널조사의 핵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청소년기 이행기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으며 대상 추적과 응답 유지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패널과의 연속적 비교분석이 가능한 집단으로서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신규패널 구축의 대상 범위로 확정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서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분석 및 선행 패널과의 연속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모집단 표집 방식으로 가구 기반 표집 대비 표집 효율성이 높은 ‘학교 기반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채택하였다. 학교 기반 층화집락표집은 전체 모집단을 지역 및 학교급으로 층화(Stratification)한 후, 각 층(Stratum) 내에서 ‘학교’를 1차 표집단위로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 속한 ‘학급’ 또는 ‘학생’을 2차 표집단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학교 단위 표집 방식은 조사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이 초·중·고 학교급 전환을 겪는 과정에서도 추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전학이나 졸업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시에도 재접촉 가능성이 높아, 패널의 장기적 유지 및 연속적 추적에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조사 수행에서 교사 및 학교 행정조직의 협조를 통해 조사 참여 독려와 현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널의 응답률(Response Rate)과 협조율(Cooperation Rate)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표본관리의 효율성과 패널 유지·추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단위 층화집락표집 방식을 신규패널 구축의 표집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표 II-2. KCYPs 2025 조사대상 설계 : 초4 코호트 선정 배경

조사대상 설계 시 주요 검토사항	초4 코호트	코호트 선정 배경 및 연구 의의
발달단계 (Developmental 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후반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이행 시기 (Early Transition to Adolescence) • 청소년기 초기단계 (Early Adolescence) 	성장 및 발달궤적의 시계열 변화분석 가능
이론적 근거 (Theoretical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심리·사회적 전환 포착 • 사회정체성 형성시기로 급격한 발달 변화 관찰 	발달단계별 생태학적 요인 비교 및 종단적 인과구조 탐색 가능
연구설계 (Research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기점으로 설정되어 개인내 변화(intra-individual change) 분석 가능 • 코호트간 비교(cohort-sequential design)를 통한 세대효과(cohort effect) 검증 가능 	종단·횡단·코호트 비교가 가능한 패널설계(mixed panel design) : 코호트 비교의 타당성, 패널 설계의 연속성, 시계열 데이터의 확장성 고려
표집틀 (Sampling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표집틀로 활용(학교 단위 층화집락표집) 	학교기반 표집으로 표본 대표성과 효율성 확보
측정 타당성 (Measurement Valid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보고식 문항 이해가 가능한 연령대로 측정의 안정성 확보 • 표준화된 심리·사회척도(standardized scales) 적용에 용이 	측정 불변성(measurement invariance)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조사대상 설계 시 주요 검토사항	초4 코호트	코호트 선정 배경 및 연구 의의
분석 가능성 (Analytic Ut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내 발달 변화 및 초기 환경요인 영향 추적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청소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가능 	종단모형(구조방정식모형 SEM, 다층모형 HLM) 적용 가능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KYPS(2003), KCYPS(2010), KCYPS(2018) 등 선행 코호트와의 시계열 비교분석 가능 동일 코호트간 발달 경향 비교를 통한 시대효과 분석 가능 	패널 간 비교(comparative longitudinal analysis) 가능
사회적 맥락 영향 (Social Context Influ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학교 등 근접환경의 초기 영향 측정 또래관계, 학업환경, 사회적응 등 사회환경 변인 측정 	다층적 영향 요인 검증(Multilevel Effects) 및 발달경로 분석 가능
보호자 병행조사 가능성 (Parent parallel inves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특성과 자녀 발달간의 상호 관련성 검증 가능 부모-자녀응답연계(dyadic data)를 통한 인과분석 가능 	세대간 사회·문화자본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탐색

패널조사는 일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조사 방식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특성상, 조사 초기 단계의 설계가 전체 조사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칫 조사 시작 단계에서 모집단 설계가 부정확하거나 측정도구가 불완전할 경우, 이는 측정 오류와 결과 왜곡으로 이어져 표본의 대표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엄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KCYPS 2025의 조사설계를 확정하기에 앞서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설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 논의사항들을 사전 점검하고, 조사 절차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안정되고 타당한 신규패널의 구축과 실사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2)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

예비조사는 본조사의 기초설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보호자의 조사참여 동의율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표본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본조사의 예상 참여율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조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표본 규모의 추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설문 문항의 적절성,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 및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항목의 타당성, 문항 난이도, 응답 경향, 조사 절차, 조사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전 검증을 통해 본조사 설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연구계획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202504-HR-고유-007)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조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조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교 표집을 실시하고, 조사 참여 동의 절차를 거쳐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25명과 그 보호자 22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가구 방문을 통한 태블릿 기반 면접조사(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TAP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II-2. 예비조사 개요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장기간 추적 및 관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발달 양상을 분석하는 종단적 조사로, 패널자료의 장기적 축적과 측정의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조사항목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문항으로 대체할 경우 시점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종단적 변화 분석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문항의 조정 및 개선은 패널 데이터의 연계성과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5년도 초등학교 4학년 신규 코호트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문항은 KCYPS 2018의 문항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패널 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초등용 예비조사 설문지는 이용자 편의성과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항목 개선과제로 제시된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중학교 시기부터 측정되어 오던 문항을 초등학교 시기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기존 중등용 설문지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초등용 문항 확장 버전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 대한 문항의 적절성, 난이도, 설문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신규 문항 개발 과정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알파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디지털 환경 적응과 책임 있는 온라인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초저출생 시대의 주요 사회정책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결혼관’ 및 ‘출산관’ 관련 문항을 일반 모듈에 포함시켰으며, 청소년의 학업적 흥미와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선호교과’ 및 ‘강점교과’ 문항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편, 매년 시의적 주제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스페셜 모듈로는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를 선정하였다. 이는 2022년도 KCYPS 2018 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스페셜 모듈로 개발된 문항으로, 동일한 시기(고2)를 맞이한 KCYPS 2018 초4 코호트와의 종단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미가 크다. 또한 KCYPS 2018 초4 코호트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해당 모듈을 응답한 바 있어, 동일 코호트 내에서의 진로준비도 발달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로준비도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진로경험 등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초등학교 4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조사에서는 진로계획 영역에 한정된 문항만을 포함하였다.

초등용 예비조사 설문지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개인발달 영역(6개 하위 영역, 24문항)과,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발달환경 영역(4개 하위 영역, 11문항), 진로준비도를 측정하는 스페셜모듈(3문항)로 구성되어 총 38문항으로 설계되었다. 개인발달의 하위 영역은 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 발달, 비행, 신체발달로 구성되었으며, 발달환경의 하위 영역은 매체, 활동/문화 환경, 학교, 가정 관련 측정 문항을 포함하였다.

보호자용 예비조사 설문지는 KCYPS 2018의 보호자용 설문지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되,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 진로준비도, 출산관 및 결혼관 등의 신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보완·개선하였다. 보호자용 예비조사 문항은 아동·청소년 발달배경 2개 영역(10문항), 보호자 개인특성 3개 영역(15문항),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인 배경변인 1개 영역(6문항), 진로준비도를 측정하는 스페셜모듈(3문항)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 이용자 의견 등 다각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초등용 예비조사 문항은 38문항, 보호자용 예비조사 문항은 34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예비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4년 10월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과 그 주 보호자이다. 표본추출은 2024년 교육통계 현황을 근거로 17개 시·도(※ 세종시 제외)를 층으로 구분하고, 각 시·도별로 2개 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 내 1개 학급을 추출하는 2단계 추출법(Two-stage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학교 표본은 주소를 기준으로 1차 정렬한 후, 층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설립유형 등의 학교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내재적 층화(Intrinsic stratification)를 수행하였다. 이후 층 내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 학교를 선정하였다. 추출된 표본학교는 2개 학급 이상을 보유하고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학교로 제한하였으며, 각 학교 내에서는 학급 구성 특성을 확인한 후 무작위(random)로 1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의 표본은 시·도별 2개 학교(총 32개 학급)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패널의 조사동의율을 고려하여(1·2기 패널 80%, 3기 패널 70%) 전체 조사대상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664명을 목표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 예비조사에서는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조사 완료율은 67.2%, 조사동의율은 50.5%로 나타났으며, 표본학교당 평균 약 55% 수준의 유효응답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권(대구/경북),

강원권의 경우 조사 참여율과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사 참여에 협조적인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부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은 참여율과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 향후 조사 참여 유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전에 조사 참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조사 수행 과정에서 조사 거부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조사에서는 응답률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낮은 조사 동의율과 조사 성공률을 감안하여, 지역별 표본을 일부 과대표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컨택 과정에서의 표본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3. 예비조사 시도별 표본할당 및 조사 완료율

구분	조사 대상 수 (A)	동의 완료 수 (B)	동의율 (B/A)	조사 완료 수 (C)	조사 완료율 (C/B)	참여율 /응답률
총계	664	335	50.5%	225	67.2%	
수도권	133	72	54.1%	64	88.9%	참여율, 응답률 높음
♦ 서울특별시	37	30	81.1%	30	100.0%	
♦ 인천광역시	51	24	47.1%	17	70.8%	
♦ 경기도	45	18	40.0%	17	94.4%	
부산경남권	143	58	40.6%	25	43.1%	참여율, 응답률 낮음
♦ 부산광역시	48	16	33.3%	8	50.0%	
♦ 울산광역시	47	15	31.9%	6	40.0%	
♦ 경상남도	48	27	56.3%	11	40.7%	
대구경북권	85	50	58.8%	39	78.0%	참여율, 응답률 높음
♦ 대구광역시	44	21	47.7%	17	81.0%	
♦ 경상북도	41	29	70.7%	22	75.9%	
광주전라권	114	43	37.7%	30	69.8%	참여율 낮음, 응답률 높음
♦ 광주광역시	42	18	42.9%	13	72.2%	
♦ 전라북도	32	13	40.6%	11	84.6%	
♦ 전라남도	40	12	30.0%	6	50.0%	
대전충청권	132	85	64.4%	45	52.9%	참여율 높음, 응답률 낮음
♦ 대전광역시	46	31	67.4%	16	51.6%	
♦ 충청북도	40	20	50.0%	13	65.0%	
♦ 충청남도	46	34	73.9%	16	47.1%	
강원권	42	24	57.1%	20	83.3%	참여율, 응답률 높음
제주권	15	3	20.0%	2	66.7%	참여율 낮음, 응답률 높음

예비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추출된 원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의 목적과 취지,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는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각 학교에 전화컨택을 통해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협력교사를 선정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하였다. 학교 방문 시 조사원은 협력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진행하고, 선정된 학급의 조사참여자에게 배부할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의 배부·수거 일정을 협의하였다. 협력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조사 참여 의사(동의서 수집 현황)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1차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정된 전문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연락하여 조사 참여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하게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예비조사는 학교 컨택을 통해 협력교사를 표집한 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 참여 협조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실적인 조율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허가를 원활히 확보하고, 조사대상자 명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패널 컨택 절차는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협력교사가 지정한 희망 시간대에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안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협력교사를 통해 예비 조사참여자를 1차로 파악하고, 조사참여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전문조사원이 청소년 및 주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뒤 본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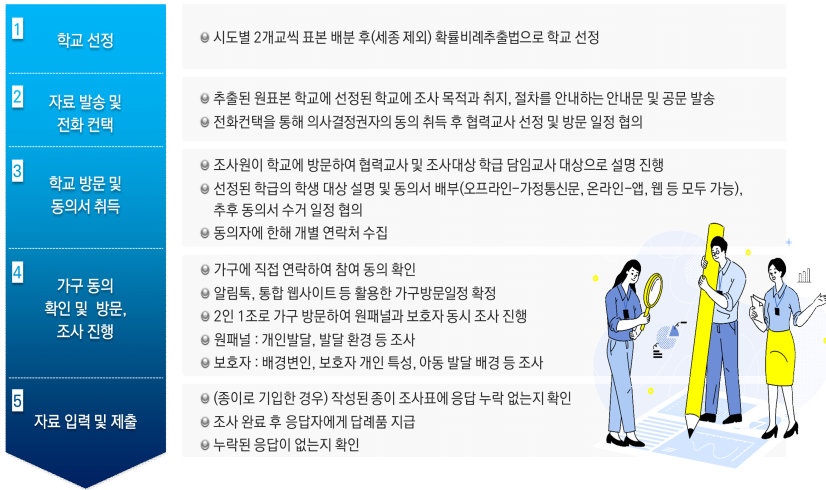


그림 II-3. 예비조사 패널 컨택 및 조사 절차

예비조사 완료 후,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난이도, 문항 수와 설문 구조의 적절성, 예시나 응답지침이 필요한 문항, 민감 문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주요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초등용 예비조사 설문은, 기존 KCYPs 2018 중등용 설문에서만 측정되었던 일부 문항들을 초등 시기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등용 설문 구성에 준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신규패널의 발달 특성과 조사 맥락을 반영한 신규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조사 설문이 구성되었다. 중등용 문항을 포함한 결과, 일부 초등학생들이 문항의 의미나 어휘 난이도 측면에서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문항에 사용된 용어의 추상성 및 문장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이 질문 자체의 이해가 어렵다고 응답한 문항은 ‘[문12] 학업무기력’, ‘[문17] 진로적응력’, ‘[문26] 용서하는 성향’ 등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용어나 표현으로는 ‘[문3] 경진대회’, ‘[문3] 인성’, ‘[문3] 국제 교류 활동’, ‘[문11] 자아실현’, ‘[문12] 극복’, ‘[문19-2] 개의치 않다’, ‘[문20] 객관적인’, ‘[문24] 속물’, ‘[문24] 관습’, ‘[문24] 인습’, ‘[문24] 심사숙고’ 등이다. 이에 청소년 응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문항과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 난이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소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에는

맥락적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의 대체, 둘째, 인지적 부담이 큰 복합문장은 단문 중심으로 수정, 어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응답자의 평균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풀이식 표현 또는 일상적 용어로 변환하는 등의 측정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항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보호자의 통제와 지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로, 일부 문항이 해당 연령대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문32] 사이버비행’, ‘[문12] 학업무기력’, ‘[문26] 용서성향’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의 생활 맥락이나 경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려운 부적합 문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행동, 학업무기력, 용서성향 등과 관련된 문항 전반에 대해 질문 수준과 표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연령별 발달 단계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분리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3] 체험활동’, ‘[문4] 동아리 활동’, ‘[문5] 팬텀활동’ 문항의 경우, 제시된 응답 범주가 실제 생활 경험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적 경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지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없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4학년의 발달 단계와 실제 경험 수준을 고려한 응답 범주의 재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예비조사의 평균 응답시간은 청소년 43.71분, 보호자 35.04분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설문 문항 수가 과도하고 장문 문항이 많아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향후 본조사 설계 시 문항 수 조정과 문항 간소화 등의 응답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응답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응답자의 피로감(Response Fatigue)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응답 불성실(satisficing) 및 무성의 응답이 증가하여 설문 후반부 문항의 신뢰도와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로 누적은 응답자의 조사 거부나 중도 포기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패널 이탈(panel attri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터뷰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응답자의 이탈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ynn, 2006). 이는 장시간 조사 참여가 응답자의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을 유발하여 응답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문항을 축소하여 응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섹션별 구분과 문항 간

간격 확보 등 시각적 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설문 화면 구성 방식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을 본조사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II-4. 예비조사 결과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향

구분	청소년용 설문	보호자용 설문
조사 진행 및 조사표 작성 방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 조정 : 설문이 길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빨리 끝내려 하는 경우가 있었음. • 민감 문항 검토 : 일부 응답을 꺼리는 문항: 학교 성적(문6), 키, 몸무게(문38)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도 유형 개선 : 개인감정 및 개인생활과 관련된 질문의 자기 기입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있었음 • 민감 문항 검토 : 학교 성적(문6), 소득(문33), 학력(문31), 직업(문32-1), 성향 관련 문항(문18, 문20, 문21)을 정성과 감성 문항 같다며 거부감을 보임
조사표 내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표현의 명확성 : 시간 관련 문항: 24시간 기준이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오전, 오후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문항의 어휘 난이도 고려 : 모르는 단어가 많았음(인성, 자아실현, 개척지 않다, 객관적인, 국제교류활동, 경진대회, 극복, 숙물, 관습, 안습, 심사숙고 등) • 중복 문항 제외 및 문항 수 조정 : 문2-2(스마트폰 의존도):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어 한번만 질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응답자 특성 고려 : 문6(학교 성적) 초등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아 응답하기 어려움 • 응답자 수준과 특성 고려 : 결혼과 출산(문33, 문34), 직업 관련 문항(문14~문15) 아직 어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많았으며,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난감해함 • 문항의 어휘 난이도 고려 : 문18(삶의 만족도), 문19-2(행복감), 문24(창의적 성격)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껴 예시가 필요함 • 문항의 어휘 난이도 고려 : 문26(용서) 전반적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특성 고려 : 문11(자녀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고등학교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일반고 외에 진로 방향이 많아서 단순 고등학교로 응답하기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설문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평균 응답 시간 : 43.71분 • (최소) 27분 / (최대) 1시간 1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평균 응답 시간 : 35.04분 • (최소) 26분 / (최대) 59분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조사내용의 타당성과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설문 문항 전반에 대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직접적

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조사표 초안에 대한 이해도와 난이도, 문항 수와 응답 소요시간으로 인한 피로도, 문항 내용 및 선택지의 적절성,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혼란 지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조사내용의 적합성과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본조사의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	•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10명 및 주 보호자 10명
조사 목적 ▶	•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 및 청소년/보호자의 당사자 의견 수렴 (조사 난이도, 피로도, 조사 분량, 문항 내용 및 선택지 관련 의견 등)
조사 방법 ▶	• FGI: Focus Group Interview
집단 구성 ▶	• 그룹별 10명 x 2그룹 • 그룹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명과 보호자 5명으로 구성
조사 일시 ▶	• 2025년 6월 14일(토) 10:00 ~ 12:00 • 2025년 6월 14일(토) 13:00 ~ 15:00
진행 장소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관 3층 FGD ROOM1

그림 II-4. FGI 개요

FGI는 갤럽에서 보유한 약 8만 명 규모의 패널리스트 중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 조사 참여 안내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보호자 10명(남 5명, 여 5명)과 그 자녀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명(남 4명, 여 6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그룹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우선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 조사 참여 안내 링크를 발송하여 자발적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모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전화 컨택을 실시하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FGI는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10명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특성에 따라 청소년 그룹과 보호자 그룹으로 각각 10명씩 2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룹 단위 심층면접을 통해 질문의 이해도, 응답 과정에서의 어려움, 문항 난이도 및 조사 분량, 조사 기간과 내용에 대한 인식, 응답 오류 발생 지점 등을 파악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목별·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여 조사표 개선 및 실사진행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FGI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청소년 및 보호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항의 난이도, 조사 분량과 문항 구조, 선택지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에 관한 주요 의견을 취합하였다.

설문 이해도 및 난이도 측면에서, 보호자는 전반적인 문항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용어가 모호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항은 이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의 생활 경험과 맞지 않거나 어휘와 표현이 어려워 이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초등학교 4학년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항에 대해 질문 수준과 표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조사 설계에 반영하였다.

설문 문항 수와 응답자 피로도 측면에서, 보호자의 경우 전반적인 문항 수는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부 문항이 중복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실제 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피로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체 문항 수는 38문항이지만 각 문항 내에 다수의 세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중복 문항과 난이도 및 연령 부적합 문항으로 지적된 항목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응답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영역별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 수를 조정하였고, 본조사의 최종 문항 구성에 반영하였다.

문항별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초등용 설문의 경우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팬덤활동 문항은 현실적 예시가 부족하고 초등학교 4학년의 실제 활동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조사 문항에서 최종적으로 삭제하였다. 또한 학업무기력, 창의적 성격, 사이버비행 문항은 저학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항 이해도가 낮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검토 결과 본조사에서는 최종 삭제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보호자용 설문의 경우, 사교육 경험, 주간 노동시간, 월평균 가구소득 문항은 용어의 모호성이나 제시문의 부족으로 인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TAPI 설명문을 보완하여 응답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와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용과 보호자용 설문 모두에서 매체 문항의 경우, 시대적 변화와 실제 사용 행태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시 항목을 현실적인 용어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엑스(X)’로,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TV, 유튜브’는 ‘유튜브’로 예시를 통합·정비하였다. 아울러, 2025년도 신규로 추가

된 핵심 문항인 디지털 시민성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의 응답 집중도를 고려하여 문항 초반부로 재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성실 응답을 방지하고 응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II -5. 청소년/보호자의 문항 개선 의견

구분	청소년	보호자	개선방향
설문 이해도 및 응답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문항은 무난히 이해했으나, 일부 문항에서 단어와 표현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보다 어려웠음 문항 구조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문항 이해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모호한 용어의 표현으로 확인과 설명이 필요 문항이 있었음 예시가 부족하거나, 응답 기준이 애매한 항목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적합도 및 설문 난이도 재고
문항 수 및 응답 피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수는 38문항이지만, 문항별 세부 문항이 많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아 체감상 길고 피로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수는 적정하며, 응답피로도는 보통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수 축소 검토
선택지 또는 예시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3) 체험활동 참여 및 만족 : 스포츠관람은 어느 활동에 포함되는지 예시 부족 (문3-4)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만족 : 자원봉사활동에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문3-6) 국제 교류 활동 참여 및 만족 : 국제 교류 활동에 해외여행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하는 활동들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음.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문4) 동아리 활동 참여 및 만족 : 참여하지 않아 응답이 어려움 (문5-1) 팬덤 활동 : 아이돌 작품 감상, 팝업스토어 방문, 행사장 가기 등 예시 부족 (문5-1) 팬덤 활동 : 굿즈에 운동선수의 유니폼, 모자 등 예시가 빠짐 (문9) 선호 교과 : 초등학교 교과목에 실과라는 항목이 없음 (문10) 강점 교과 : 초등학교 교과목에 실과라는 항목이 없음 (문12) 학업무기력 :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문20) 디지털 시민성 : 인터넷 활동이 다양하나, 유튜브,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3) 사교육 : 사교육 범위 및 월평균 사교육비 계산이 어려워 설명 필요 (문14-1) 스마트폰 의존도 : 보호자 스마트폰 사용 예시 부족. '은행 업무' 예시 추가 필요 (문17) 디지털 시민성 : 인터넷 활동이 다양하나, 유튜브, SNS만 제시되어 있다 보니 응답하기 애매함. 예시 추가 또는 수정 필요 (문26) 건강상태 :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기에 없어 응답하기 애매함 (문32-1) 주간노동시간 : 각 직업 대분류에 어느 직업이 포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문32-1) 주간노동시간 : 파트타임인 경우 어느 분류로 응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문33) 월평균 가구소득 : 세전인지 세후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특성 상 부적합 문항 삭제 집중도 기반 문항 배치 조정

구분	청소년	보호자	개선방향
	<p>만 제시되어 있다 보니 응답하기 애매함. 예시 추가 또는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24) 창의적 성격 :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기 항목에 '상상력이 풍부한', '엉뚱한' 등이 없고, 예시 추가 필요 • (문32) 사이버비행 :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부적절한 문항임. 		
<p>단어 또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3-8) 자기(인성) 개발 관련 활동 • (문11) 학업열의 : 자아실현 • (문17) 진로적응력 : 공상, 이수 • (문18) 삶의 만족도 : 이상 • (문24) 창의적 성격 : 관습, 인습, 속물, 임기응변, 자화자찬, 심사숙고, 격식, 순종, 통찰력, 개인주의적, 가식적임, 보수적인 • (문29) 양육태도 : 이치 • (문30) 또래관계 : 의견 충돌이 잦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수정 보완 • 용어 설명 추가 • 부적격 문항 삭제

실사 진행 관련 사전 점검을 위해 조사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실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를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 조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부모-자녀 조사의 경우 두 대상을 동시에 만나야 하므로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조사 요청이 많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대에는 집중이 어렵고 외부 방해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부모와 자녀의 응답 시점을 분리하여 일정 조율의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보호자의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에 유연성을 보장하며, 조사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조사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정 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맞벌이 가구 등 가족 단위 응답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 단위 조사에서는 부모-자녀 분리 조사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경우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자녀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응답 태도가 불성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자녀가 혼자 설문을 진행할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조사 중간에 보호자를 찾거나 부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조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 전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조사 안내문에 분리 응답 구조로 조사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사 과정에서는 조사원 2명이 가구를 방문하여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보호자와 자녀의 조사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자율성, 진실성,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응답자의 경우 응답 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어를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원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답자 안내 및 문항 설명 절차를 구체화한 조사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조사원 대상의 사전 교육을 강화하였다.

표 II-6. 실사 진행 관련 사전 검토사항

1)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택 단계에서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는 케이스 다수 • 자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2) 조사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양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리다 보니, 응답자의 스케줄을 피해 조사 진행 시간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기 어려워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방문해야 함. 이 경우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대이다 보니 응답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부모를 만나는 것부터 쉽지 않음 • 학생 조사의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 집중력이 떨어지다보니 힘들어 함 • 어려운 단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소요 시간이 길어짐
3) 조사대상자의 응답 진실성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경우 설문 내용이 길다 보니 대충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성적 관련 질문은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느낌
4) 청소년과 부모 분리 조사에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조사 시, 학부모가 지나가면서 관심을 보인다거나, 솔직하게 답하라고 재촉하는 경우 학생의 집중력이 떨어짐 • 학생 혼자 설문을 진행하면 응답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짐 • 조사가 늘어지면서 조사 중간에 학부모를 찾거나 부르는 경우 발생 • 분리 조사를 학생들이 꺼려하여 조사에 실패할 가능성 우려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 및 스페셜 모듈¹⁰⁾

패널조사는 조사 특성상 동일한 대상을 추적조사한다는 조사적 특성의 중요성 뿐만

10)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37-41)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아니라, 일관된 조사결과를 위해 매 조사 차수마다 동일한 조사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20년부터 기본 모듈(Basic Module)과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로 구성하였는데, 기본 모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발달환경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스페셜 모듈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은 조사대상의 발달단계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 및 구성하였다. KCYPS 2018 패널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며, KCYPS 2025 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두 코호트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다.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도 검토하여 기본 모듈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공통적으로 핵심 발달영역을 다루는 기본 모듈을 유지하면서, 학령기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스페셜 모듈을 함께 구성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수정하였다.

2025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KCYPS 2018 초 4 코호트 제8차년도)과 202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KCYPS 2025 초4 코호트 제1차년도), 두 개의 신규 초4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을 각각의 발달단계와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예비조사, FGI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이 조사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응답자가 문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지, 또한 응답 저항이나 무응답률이 높은 문항이 존재하는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별 핵심 영역과 문항을 선별하고, 문항 수와 구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다.

2025년 KCYPS 설문지는 ‘초등용’, ‘중등용’, ‘성인용’, ‘보호자용’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의 기본 구조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주요 발달 환경 요인이 매개 요인을 통해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발달 결과가 다시 청년기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발달 경로 모형(longitudinal developmental pathway model)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II-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 및 스페셜 모듈 구성 논의 과정

일정	논의/자문영역(내용)	연구/자문진
02.06.	·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 설계에 관한 논의	연구기관 연구자
02.17.	· 스페셜모듈 및 KCYPs 2025 원패널 구축방안 논의	연구기관 연구자
03.06.	· 실행계획서 심의회를 통한 연구설계 및 문항설계에 대한 심의 · 2025년 KCYPs 조사문항 및 KCYPs 2025 패널 구축 방향 논의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03.13.	·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 구성, 2025년 KCYPs 조사 방향에 대한 전문가자문 의견 반영	연구기관 연구자
04.17.	·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 수정 보완,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 관련 자문	대학 교수
04.18.	· 기본모듈 수정·보완, 스페셜 모듈 구성 및 신규패널 구축 관련 자문	연구기관 연구자
05.09.	·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IRB 심의 완료 승인번호 202504-HR-고유-007	NYPI IRB 위원
06.13.	· 중간보고서 심의회를 통한 2025년 KCYPs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06.14.	·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에 대한 청소년/보호자 당사자 의견 수렴	청소년/보호자
06.27.	·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에 대한 전문가자문 의견 반영	연구기관 연구자
07.03.	· KCYPs 기본모듈 및 스페셜모듈 최종 검토 회의	연구기관 연구자
07.09.	· 2025년 KCYPs 본조사(기본모듈, 스페셜모듈) IRB 심의 완료 승인번호 202504-HR-고유-007	NYPI IRB 위원

기본 모듈의 경우, 기존 문항 중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거나 표현상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비¹¹⁾하고, 새롭게 구축되는 α 세대 패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민성¹²⁾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측정 척도는 6요인 29문항이며, 요인은 디지털 보안, 공감, 사회적 책임, 디지털 사회이해, 디지털 자아정체감, 비판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좋아하는 교과목을 파악하기 위한 선호교과¹³⁾ 문항과 스스로 잘한다고

11) 시대흐름을 반영한 SNS 워딩 수정: (수정) 트위터 → 엑스(구 트위터), (수정)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TV, 유튜브 → 유튜브.

12) 이준, 유숙경과 이윤옥 (2021)의 디지털 시민성 척도 29문항을 사용하였고, 해당 척도를 개발한 연구자와 연구물이 발간된 학술지에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 후 조사문항 구성.

13) 초등학생: 국어, 수학, 체육, 영어, 사회/도덕, 과학/실과, 예술(음악/미술) 중 선택
중학생: 국어, 수학, 체육, 영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기술·가정/정보, 예술(음악/미술), 선택교과(한문, 생활 외국어, 진로와 직업, 환경, 보건, 기타 중 선택) 중 선택

인식하는 교과목을 파악하기 위한 강점교과 문항을 신규로 포함하여, 교과 영역별 흥미와 강점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 관련 문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패널이 현재 속한 학령 단계와 실제 학습 경험을 반영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스페셜 모듈은 매년 사회적 쟁점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단일 연도에 한 번만 조사되는 특별 주제의 부가조사이다. 2025년에는 2022년 조사에 이어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를 다시 도입하였다. 2025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에 진입한 KCYPS 2018 초4 코호트의 발달단계와 진로 고민의 심화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 주제는 2022년도 KCYPS 2018 제5차년도 조사 스페셜 모듈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 성숙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2024년 스페셜 모듈로 구성되었던 ‘결혼관’과 ‘출산관’ 문항은 저출생 추세 및 사회적 관심의 지속적 확대를 반영하여, 2025년 조사부터 기본 모듈로 편입하였다.

모든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의 조사문항은 연구진의 초안 작성 이후 관계 전문가 자문, 실행 및 중간심의, 예비조사(FGI 포함), IRB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은 세대 변화에 따른 조사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시계열적 연속성과 코호트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II-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 및 항목

●: 포함, ○: 포함 안 됨, ◐: 부분 포함

모듈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초등	중등	성인
	대	중	소				
기본 모듈	개인 발달	생활 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	●	●
		지적 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	●	●
			교육과정	선호교과, 강점교과	●	●	○
			학업태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	●	●
		진로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장래직업 결정여부	○	●	●

고등학생: 국어, 영어, 과학, 예술, 수학, 사회(역사/도덕 포함), 체육,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교과(경영·금융,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광·레저, 건축·토목, 재료, 섬유·의류, 정보·통신, 농림·축산, 융복합·지식 재산, 보건·복지, 미용, 식품·조리, 기계, 화학 공업, 전기·전자, 환경·안전·소방, 수산·해운 중 선택) 중 선택

●: 포함, ○: 포함 안 됨, ◐: 부분 포함							
모듈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초 등	중 등	성 인
	대	중	소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	●	●
			진로적응력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	●	●
			진로 상황	현재 진로 상황, 진학/취업 의사 및 준비	○	○	●
		사회/ 정서/ 역량 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	●	●
			행복	행복감	●	●	●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	●	●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	●	●
			협동의식	협동심	●	●	●
			창의성	창의적 성격	○	●	●
			끈기	그릿(Grit)	●	●	●
			결혼/출산관	결혼관 / 출산관	●	●	●
		비행	비행 I	현실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
			비행 II	사이버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
		신체 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	●	●
			신체	키, 몸무게, 몸정/초경 시작 시기	◐	●	●
	발달 환경	매체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	●	●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	●	●
		활동/ 문화 환경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	●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	●
			팬덤 활동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팬덤 활동 빈도	○	●	●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	●	●
			친구	친구관계	●	●	●
			교사	교사관계	●	●	○
			대학	대학 특성, 전공 선택 고려, 등록금, 대학 만족도	○	○	●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	●	●
			형제자매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간	●	●	●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	●	●
			부모동거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	○	●
		직장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만족도	○	○	●
			직장	직장 특성, 취업 경로, 희망 직업여부, 직장 만족도, 이직 의사	○	○	●
			무직	진학/취업 준비, 진학/취학 가능성, 진학/취업 미진 이유	○	○	●
		스페셜 모듈	2020년	재난 안전 의식 : 안전 체감도(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 인식도			●
2021년	정서인식 역량 :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	●	○	
2022년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	●	○	
2023년	학교폭력 및 적응			◐	●	○	
	지역사회 인식(지역사회·공동체 인식, 다문화 수용도)			●	●	○	
2024년	결혼/출산관, 시간선호, 용서하는 성향			●	●	●	
2025년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	●	◐	

보호자 조사도 아동·청소년 조사와 동일하게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로 구성된다. 기본 모듈은 보호자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배경과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크게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영역, 보호자 개인 영역, 배경변인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영역은 자녀의 학업, 교육, 가정환경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과 교육의 두 중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가정 영역에서는 가구 구성원 및 역할, 자녀와의 관계(평일·주말 함께하는 시간),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 교육수준, 선호교과, 강점교과 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받지 않는 이유, 월평균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보호자 개인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 개인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조사 항목 중 사회/정서/역량, 매체, 신체 관련 중영역을 동일 구조로 구성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창의성, 끈기(Grit), 결혼/출산관, 스마트폰 사용 및 디지털 시민성,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운동 시간, 아침식사 횟수) 등이 포함된다.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보호자의 출생지, 최종학력, 근로 여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조사한다.

스페셜 모듈은 매년 사회적 쟁점이나 자녀 발달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년도 주제로 구성되는 부가조사로, 2025년에는 자녀의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를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KCYPS 2018 초4 코호트의 진로 성숙도를 파악하고, 2022년 당시 중학교 2학년 시점(KCYPS 2018 초4 코호트 제5차년도)과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4년 스페셜 모듈로 조사되었던 결혼/출산관 문항은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부터 기본 모듈로 편입되었으며, 보호자 개인의 결혼/출산관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보호자 관점 문항도 함께 포함되었다.

표 II-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호자 조사 영역 및 항목

모듈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대	중	소	
기본 모듈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가정	구성원	가구 구성원
			구성원 역할	조사대상(자녀)에 대한 역할별 구성원
			보호자 관점	조사대상(자녀)의 학업성취 정도, 학교 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한 의견, 선호교과, 강점교과
			자녀관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주말)
		교육	사교육	조사대상(자녀)의 사교육 유무, 사교육 받은/받지 않은 이유, 월평균 교육비
	보호자 개인	사회 /정서 /역량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	행복감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창의성	창의적 성격
			끈기	그릿(Grit)
		매체	결혼/출산관	자녀의 결혼관/출산관, 본인의 결혼관/출산관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신체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신체	키, 몸무게
	배경변인			출생지(자녀와 보호자), 최종학력, 근로여부,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수준
스페셜 모듈	2020년	재난 안전 인식 : 안전 체감도(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 인식도 (행동요령 인식)		
	2021년	정서 인식 역량 :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2022년	자녀의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2023년	자녀의 학교폭력 및 적응 관련 문항		
		지역사회 인식(지역사회·공동체 인식, 다문화 수용도)		
	2024년	자녀의 결혼/출산관, 본인의 결혼/출산관, 시간선호, 용서하는 성향		
2025년	자녀의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승인통계 변경승인¹⁴⁾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KCYPS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술연구 및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패널조사이다.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실시 전, 6월 중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202504-HR-고유-007)을 득하였다.

절차	내용	일정
조사기획 및 조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수행 개요 및 추진일정 계획 수립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대상별 질문지 확정 	3월 ~ 6월
IRB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구비 : 연구계획서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대상별 질문지(초등, 중등, 성인, 보호자용), 대상별 조사설 명문, 대상별 조사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연구자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심의 신청 : NYPI IRB에 심의서류 송부 IRB 승인 통보(2025.07.09) 	7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승인통계 변경승인 통보(2025.07.24) 	7월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도구 마련 : 조사안내문 제작 및 TAPI 개발 조사원 선발 및 조사원 교육 실시 	7월
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진행 	8월 ~ 11월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data 산출 및 분석, 결과 도출 	~ 익년 12월

그림 II-5. 2025년 KCYPS IRB 심의 절차


14)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42-4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2) 통계작성 변경승인

KCYPS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는 패널조사로, 승인된 통계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또는 협의)을 받아야 한다.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은 조사명칭, 작성목적, 조사항목, 조사대상(모집단·표본범위·지역 등), 조사기준시점, 조사주기, 자료수집체계, 조사표 및 통계표 등 통계작성과 관련된 모든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2025년도 KCYPS의 IRB 심의가 완료된 후,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발송 및 관련 서류를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으며, 7월 중 변경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해당 승인을 바탕으로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와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10.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

변경승인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
<p>■ 변경승인 신청 절차</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승인 ⇨ 통계작성변경 심의 신청 ⇨ 심사(보완 요구 이행) ⇨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고시</p>		
<p>■ 변경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서변경문항 세부대역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항목별 활용가능 행정자료 및 판단결과표표본설계보고서		<p>변경승인(원안승인) 통보</p> <p>제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통계작성 변경승인 알림</p>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근거 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패널연구본부-2070(2025. 07. 09.) 나.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5. 실사 준비¹⁵⁾

1) 자료수집 도구

양적조사의 자료수집 기법은 동일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구의 목적과 조사 대상, 가용 예산, 사업운영 관련 제반 상황에 따라 자료수집 형태와 그 방법이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제1기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KYPS 2003, 2003~2008)과 제2기 조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2010~2016)은 모두 종이설문지 활용 면접조사 방식(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제1기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복수의 조사원이 아동·청소년을 그룹 단위로 모아 집단 면접조사(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종이설문지를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제2기 조사부터는 패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 대면조사 방식(individual face-to-face interview)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보호자 조사는 조사 효율성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고려하여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CATI는 전화조사원이 보호자에게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자가 구두로 답변하면 이를 조사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PAPI 및 CATI 방식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와 코딩 오류(coding error)가 발생하기 쉬워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수집된 자료의 입력 및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데이터 처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3기 조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2018~2027)에서는 기존 PAPI 방식에서 발생하던 입력 오류 및 데이터 처리 비효율성 문제를 보완하고, 데이터 입력과 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태블릿 PC 활용 면접조사 방식(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으로 조사 방식이 개선되었다. 제3기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법정대리인의 조사 참여 동의가 확보된 청소년 가구를 방문하였다. 이후 조사원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각각 태블릿 PC를 배부하고,

15)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44~55)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1대1로 설문 문항을 읽어주며 응답자가 직접 태블릿 화면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성인이 된 청소년을 추적조사하는 KCYPS 2010 유지조사의 경우, 제2차년도까지는 전화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제3차년도부터는 응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응답 정확성, 데이터 품질 및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웹조사(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CAWI)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CAWI 방식에서는 성인 패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웹조사 URL을 발송하고, 패널이 해당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4기 조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5(KCYPS 2025, 2025~2034)에서는 신규 구축되는 알파세대 청소년 패널의 디지털 기기 친숙도,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조사 비용 및 장비 확보 여건, 조사 인력의 역량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품질과 조사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되어, 제3기 조사와 동일하게 TAPI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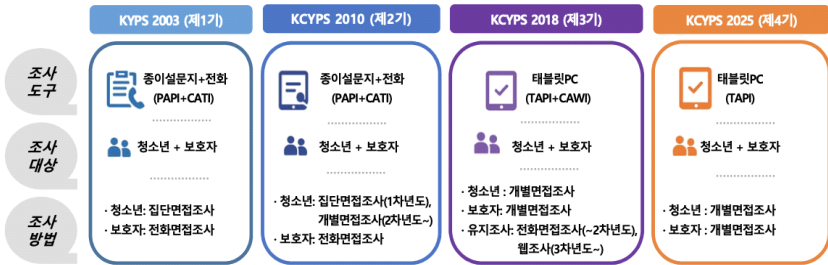


그림 II-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제1기 ~ 제4기)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비교

2) KCYPS 2025 초4 코호트 표본설계

KCYPS 2025의 목표모집단은 2025년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과 학부모로 정의하며, 조사모집단은 2024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하였다. 표본추출틀은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주어진 초등학교 명부로 구성하며, 표본추출단위는 ‘학교’를 1차 추출 단위로 정의하고 2차 추출 단위는 ‘학급’으로

정하고 최종 추출 단위는 ‘학생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1) 모집단 분석

학생들의 개인 발달과 발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모집단 자료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지역’과 ‘도시 규모’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파악하였다.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수와 학급 수 및 학생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초등학교 4학년이 재학 중인 학교 수는 전국 6,163개교이고, 학급 수는 20,574개 학급, 학생 수는 422,020명이다.

표 II-11. 시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 현황

시도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서울	605	60,972	2,801	21.8
부산	304	24,901	1,174	21.2
대구	240	19,835	891	22.3
인천	264	25,411	1,171	21.7
광주	155	13,215	620	21.3
대전	153	12,071	609	19.8
울산	122	10,700	490	21.8
세종	54	5,403	251	21.5
경기	1351	122,952	5,562	22.1
강원	341	10,986	688	16.0
충북	251	13,026	694	18.8
충남	417	18,891	1,030	18.3
전북	394	14,016	804	17.4
전남	427	13,801	873	15.8
경북	459	19,674	1,071	18.4
경남	509	29,572	1,528	19.4
제주	117	6,594	317	20.8
합계	6,163	422,020	20,574	20.5

(2)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 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는 통계 생산 단위 수준에서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통계분석 단위별로 통계치의 목표요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1.96s)^2}{Nd^2 + (1.96s)^2} = \frac{n_0}{1 + \frac{n_0}{N}}, \text{ 단 } n_0 = \frac{(1.96 \cdot S)^2}{d^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1.96은 신뢰수준 95%에서 신뢰계수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frac{1.96^2 pq}{d^2}}{1 + \frac{1}{N} \left(\frac{1.96^2 pq}{d^2} - 1 \right)}$$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p 는 모비율의 값이며($q = 1 - p$) 1.96은 신뢰수준 95%에서 신뢰계수이다. 실제로 표본추출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선정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한다면 일종의 집락추출법이므로 허용 오차를 충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는 더 크게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KCYPS 2025에서는 조사비용과 기준 기수들의 패널 유지율을 참조하여 표본크기를 2,400명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1차 추출단위인 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표본학교당 평균적으로 약 55%의 유효응답자가 조사될 것으로 가정하여 표본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2024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5명이며, 이들의 55%는 초등학교 4학년 11.275명이고, 이를 근거로 조사될 학교 수를 계산하면 213개 ($=2400/11.275$) 학교가 된다.

(3) 표본할당

각 시도별로 통계는 생산하지는 않지만, 시도별 특성이 뚜렷하고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권역별로 특성 분석이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 표본 20명을 우선 할당한 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할당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17개 시도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II-12. 시도별 표본할당 결과

시도	표본할당						
	학교 수	학생 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	우선할당+비례배분	동의율 55% 학생 수	표본학교수
서울	605	60,972	2,801	21.77	318	577	27
부산	304	24,901	1,174	21.21	142	257	12
대구	240	19,835	891	22.26	117	212	10
인천	264	25,411	1,171	21.70	144	262	12
광주	155	13,215	620	21.31	85	154	7
대전	153	12,071	609	19.82	79	143	7
울산	122	10,700	490	21.84	72	131	6
세종	54	5,403	251	21.53	46	84	4
경기	1351	122,952	5,562	22.11	620	1,128	51
강원	341	10,986	688	15.97	74	134	8
충북	251	13,026	694	18.77	84	152	8
충남	417	18,891	1,030	18.34	112	204	11
전북	394	14,016	804	17.43	88	161	9
전남	427	13,801	873	15.81	87	159	10
경북	459	19,674	1,071	18.37	116	211	11
경남	509	29,572	1,528	19.35	164	299	15
제주	117	6,594	317	20.80	52	95	5
합계	6,163	422,020	20,574	20.50	2,400	4,363	213

17개 시도별로 최소 할당된 표본학교는 세종시 4개교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서울시에 할당된 학교 수는 27개교이며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1개교가 할당되었다.

특히 각 시도 내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학교 추출에서 이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과 읍면지역으로 층을 구분하였다. 서울시는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고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로 구분한 후 각각을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광역시는 하나의 층으로 하였고 나머지 도는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층별 구분 결과는 다음 표에 각각 정리하였다. 각 시도별로 할당된 결과를 주어진 층별로 배분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다.

표 II-13. 시도별 도시규모별 표본할당 결과

시도	규모		총 구분	초등학교 4학년				할당표본 학교 수
				모집단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서울	남부	서울특1	300	33,885	1,516	22.35	15	
	북부	서울특2	305	27,087	1,285	21.08	12	
부산	특별/광역시	부산광1	304	24,901	1,174	21.21	12	
대구	특별/광역시	대구광1	240	19,835	891	22.26	10	
인천	특별/광역시	인천광1	264	25,411	1,171	21.70	12	
광주	특별/광역시	광주광1	155	13,215	620	21.31	7	
대전	특별/광역시	대전광1	153	12,071	609	19.82	7	
울산	특별/광역시	울산광1	122	10,700	490	21.84	6	
세종	특별/광역시	세종특1	54	5,403	251	21.53	4	
경기	남부	동부	경기동1	724	77,494	3,409	22.73	31
		읍면부	경기읍1	181	8,613	455	18.93	4
	북부	동부	경기동2	262	29,164	1,269	22.98	12
		읍면부	경기읍2	184	7,681	429	17.90	4
강원	동부		강원동1	102	6,978	350	19.94	4
	읍면부		강원읍1	239	4,008	338	11.86	4
충북	동부		충북동1	92	8,051	372	21.64	4
	읍면부		충북읍1	159	4,975	322	15.45	4
충남	동부		충남동1	102	10,370	456	22.74	5
	읍면부		충남읍1	315	8,521	574	14.84	6
전북	동부		전북동1	167	11,243	515	21.83	6
	읍면부		전북읍1	227	2,773	289	9.60	3
전남	동부		전남동1	112	7,257	358	20.27	4
	읍면부		전남읍1	315	6,544	515	12.71	6
경북	동부		경북동1	149	12,089	532	22.72	5
	읍면부		경북읍1	310	7,585	539	14.07	6
경남	동부		경남동1	216	19,738	918	21.50	9
	읍면부		경남읍1	293	9,834	610	16.12	6
제주	특별/광역시	제주특1	117	6,594	317	20.80	5	
합 계			6,163	422,020	20,574	20.51	213	

표 II-14. 서울시와 경기 남부/북부에 포함되는 시군구

지역		포함되는 시군구
서울	남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북부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경기도	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북부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4)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학교 추출과 학급 추출로 나눈 2단계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학교추출에 관하여 설명하면, 초등학교 4학년 추출에 대하여 시도별, 동/읍면지역별로 할당된 표본학교들을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각 층 내의 해당 학교들을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들을 선정하되, 선정된 표본학교는 최소한 4학년에서 2개 학급 이상이고 학생 수가 50명 이상이 되도록 추출한다. 표본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확인하고 만일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학교를 표본학교로 대체하고, 표본 학급의 선정은 추출된 표본학교의 특성이나 소재지를 확인하고 KCYPS 2025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학급수와 학급별로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 무작위로 표본 학급을 선정하였다.

(5) 표본 관리

신규패널 구축을 위해서 추출된 표본학교는 조사 대상자인 학생을 선정하여 접촉하기 위한 표본추출 과정이며, 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이후 매년 개인별로 접촉하여 조사해야 하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조사해야 하고, 완전한 응답자의 데이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응답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패널조사보다 표본 관리가 더 중요하다. KCYPS 2025는 앞으로 장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추적해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응답 거절이나 표본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노력과

사명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들이 본 패널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과 심리적인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표 유효응답자는 학생과 학부모를 쌍으로 한 2,400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만약 조사 진행이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후에 패널조사 탈락이 많아지면 중간에 표본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사된 데이터로부터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없거나 추론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이 낮아져서 통계로서의 활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의 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패널을 구축하는 첫해의 조사에서 조사 참여자들에게 본 패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패널조사에 참여하면 앞으로 장기간 조사에 참여해야 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패널참여자들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응답자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인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6) 가중치

KCYPs 2025는 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도 동일 표본을 조사하므로 조사된 표본들의 조사 연도 간의 순수 변동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패널 효과와 모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동에 의한 특성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사 시점마다 패널 유지율이 상이하므로 설계 당시에 자체가중설계를 했을지라도 조사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불균등 확률표본설계가 되기 때문에 매 웨이브마다 가중치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매 조사차수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 특성을 분석하는 데 횡단적인 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2개 이상의 조사차수들 간의 변동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종단적인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종단적인 가중치는 매 조사차수마다 조사가 종료된 후에 가중치를 계산하게 되므로 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설명은 횡단적 가중치의 계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첫 조사에서 가중치 계산은 일반 표본조사에서의 가중치 계산과 동일하며,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수행된다.

① 표본추출확률에 대한 가중치(기본 가중치)

KCYPS 2025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 2단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도’와 ‘동/읍면’ 지역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층별로 표본을 할당하고, 각 층에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2단집락층화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② 표본의 무응답 조정을 위한 가중치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단위 중에서 일부는 응답 거부로 조사를 성공하지 못하거나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여 무응답 처리한 조사단위에 대한 조정이 무응답 조정의 가중치이며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W_{hij}^b = \frac{n_{hi}}{r_{hi}}$$

여기에서 r_{hi} 와 n_{hi} 는 각각 완전 응답한 표본크기와 추출된 표본크기이다.

③ 사후층화 가중치(poststratification weight)

표본설계 시에는 층화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표본조사 완료 후에 연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정확한 외부보조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외부 보조정보 데이터의 구조와 표본조사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여 층으로 구분하고 표본조사의 각 셀에 가중치의 합계를 계산한 결과와 외부보조정보의 층별 합계와 비교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BF_{hij} = \frac{PS_{hij}}{\sum W_{hij}^a \cdot W_{hij}^b}$$

여기서 PS_{hij} 는 외부 보조정보에 의한 셀의 빈도수이고 분모의 내용은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을 위한 가중치를 곱한 후에 합계를 계산 결과이다. 최종 가중치는 세 가지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W_{hij}^f = W_{hij}^a \cdot W_{hij}^b \cdot BF_{hij}$$

패널조사에서 1차년도 조사에서 가중치는 위의 일반 표본조사의 가중치 작성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2차년도 이후에는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의 가중치에 무응답보정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확률의 역수로 계산하지만, 무응답률을 어느 단계에서 계산할 것인가는 표본설계와 패널추적조사의 규칙과 관계가 있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상황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일종의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를 종단면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모수 추정

패널조사에서 모수 추정은 생산할 통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모수추정량은 ‘표본가중추정’ 형식이다. 통계 생산 단위를 전국 단위 ‘시도별’과 ‘성별’로 한다는 가정에서 모비율이나 모평균의 추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 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r_{hi}$).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r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3) 실사 수행기관 선정 및 기본방향 설정

(1) 수행기관 선정

패널조사는 한 시점의 조사(One-shot survey)가 아닌, 장기 추적조사(Longitudinal study)의 특성 때문에 조사 품질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 수행기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 품질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실사 수행기관의 선정은 조사기관의 전문성(수행 실적)과 조직 역량(조사인력 구성), 정보보안 및 품질관리체계의 확보 등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수행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와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다. 계약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그에 따른 참가 자격은 ‘최근 3년간 단위 계약건 1억 이상에 대한 유사조사 실적목록을 보유’하고, ‘정부부처 조사 유경험 기관으로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을 두고 공모가 진행되었다. 입찰 공고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었고,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의 제안서 접수(제안사 2곳 접수)가 이루어진 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안서 평가 및 기술/가격협상이 진행되었다. 업체 적격성 심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패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5명의 외부 평가위원의 제안서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행역량평가(제안사 현황,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체계, 사업관리체계, 프레젠테이션 및 제안서 작성 요청 준수) 90점과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의 비중을 적용하여 적격성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다. 2025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수행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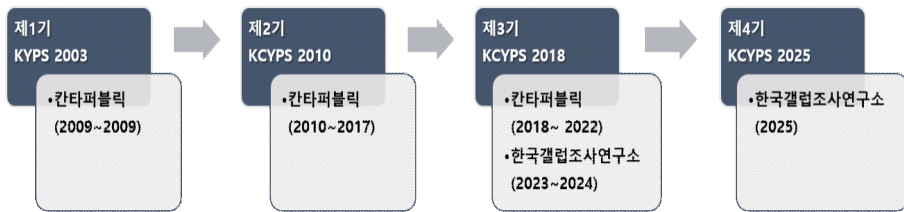


그림 II-7. 실사 수행기관 선정(제1기 ~ 제4기)

(2)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추진 방향 설정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조사는 신·구 코호트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유지·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패널의 장기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패널 특성에 기반한 세분화된 관리체계 구축과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패널의 조사 이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조도, 참여도, 연락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협조형·저협조형·비접촉형 등 세부 유형을 설정한다. 유형별로 연락 방식, 컨택 주기, 조사원 배치, 인센티브 제공 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응답 거부율과 이탈률을 낮추고, 패널조사의 지속성과 데이터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패널과의 정기적 접촉 유지 및 정보 업데이트를 강화한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이사, 전학 등 주요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3개월 주기의 정기적 접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거주지 이동이나 연락처 변경 등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전화·문자·모바일·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 소통을 통해 조사 참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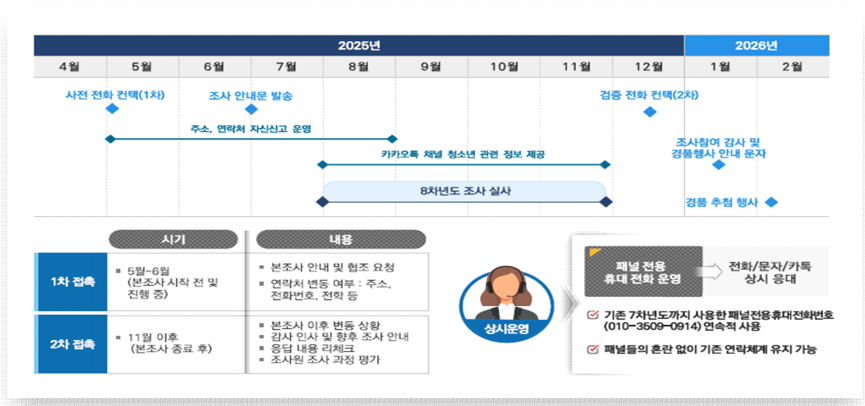


그림 11-8. 주기적 접촉 및 정보 업데이트

셋째, 참여 유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패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품 행사를 운영한다. 경품 품목은 청소년의 연령과 학업 특성을 고려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성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실질적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원패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사 참여자에게도 별도의 경품 행사를 병행하여 가구 단위의 참여율을 높이고 응답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자발적 신고제를 운영하여 패널이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 갱신 등의 정보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관리와 장기적 패널 유지 활동을 촉진한다.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보상 및 정보 서비스도 강화한다. 패널의 참여 동기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조사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조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소속감을 제고한다. 또한 패널과 연구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패널 전용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패널이 조사 관련 문의나 변경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문자·우편 등 기존의 연락체계 외에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하여 패널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그림 11-9. 물질적·비물질적 보상체계

넷째, 조사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조사원의 성과 달성도와 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층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진행률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지속참여 인센티브, 비성과 조사 성공 인센티브(전년도 미조사 대상의 조사 성공 시 부여), 현장 의견 개선 인센티브(조사원 의견 반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층적 인센티브 제도는 조사원의 책임감과 참여 지속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의 일관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사진행율에 따른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는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조사 조사원이 많이 투입되는 조사임 ■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각 조사원별로 주간/월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01
	전년도 비성공자 조사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조사 특성상 동일한 응답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장기간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데이터의 품질을 좌우함 ■ 패널 응답자의 연속적인 조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년도 비성공자 성공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02
	지속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패널조사 참여를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원이 동일 패널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조사 현장에서 패널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지속 참여시켜 전년도 조사의 패널유지율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사원의 참여 동기 유발 제고 	03
	조사원 의견 반영한 추가 조사필요 비용 및 조사 도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 간혹 조사원이 다과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태블릿PC, 답례품 등 조사도구 외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음 ■ 조사원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로 패널용 간식(BB) 별도 지급 및 필요한 조사 도구 제공 ■ 또한 조사 시기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검토하여 마스크 및 휴대용 손세정제 등 지급 	04

그림 II-10. 조사원 인센티브 제도

다섯째, 거절자 및 재접촉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조사 거절자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를 통해 조사 거절로 인한 표본 이탈을 최소화하고, 재접촉 시 응답자의 재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패널 유형	접촉 경로	대응 방안
적극적 응답 패널	→ 1-7차 조사 진행한 담당 조사원의 전담 통한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조사 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 조사 2개월 전 조사 안내 전화 1회 실시하고, 기존 조사원 투입하여 조사 실시 → 조사 완료 후 감사표 표하고 차후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참여 부탁
소극적 응답 패널	→ 1차(9월 중) : 서울지역 중앙 컨택 통해 조사 안내 및 기존 불만 사항 청취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조사 시 1-2회 정도 소극적으로 거절 후 조사에 참여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 조사 2개월 전 조사 안내 전화 실시 과정에서 조사 참여의 당위성 강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절한 패널이 많음으로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 → 사전 전화 컨택 시 주의 깊게 기존 불만사항 청취하여 해결 후 조사 진행 → 조사 완료 시 감사표 표하고 차후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참여 부탁
적극적 설득 필요 패널	→ 2차(9-10월 중) : 우수 조사원 투입하여 컨택, 우선 접촉 대상으로 분류하여 설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조사 시 3-4회 정도 강하게 조사 거부하였으나 적극적인 설득 활동으로 인해 조사에 참여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 조사 2개월 전 안부 및 조사 안내 전화 실시할 때 우수조사원 투입하여 조사참여 시 받게 되는 혜택을 강조 : 답례품, 경품행사, 유용한 정보 제공 등 → 조사에 참여해도 별 혜택이 없다면 거절했던 패널이 다시이므로 조사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위주로 설득을 진행한 후 조사 진행 → 계속적 조사 거절 시에는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10월 이후 재컨택을 통해 응답 독려
응답 거절 패널	→ 3차(11월 초) : 담당 연구원이 직접 컨택 진행, 미참여 사유 확인 및 해결 통해 최종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차 조사 때 응답을 거절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이라도 1-2년 간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연구원이 직접 컨택하여 조사참여 요청 진행 → 조사 참여의 필요성 및 미진행 사유 해결을 약속하고, 필요 시 추가답례를 증정 안내로 참여 유도 →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강한 무시 작업 지양, 매우 설득 전화를 진행하기 보다는 사자를 두고 재컨택 실시하여 응답 독려

그림 II-11. 거절 유형의 세분화 및 접촉 경로, 대응 방안 마련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조사 거절 이유	대응 방안
본조사는 우리나라 학생의 일상생활부터 학교·가족·친구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보를 생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통계청 공식 승인 조사인 본 조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강박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택 최소화 •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 일자 제공 • 조사 시간이 짧고, 1년에 딱 한 번임을 안내하여 설득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찌조?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학업에 방해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 일자 제공 • 응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 진행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조사결과를 연구에만 참고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조사 전 과정에 걸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무가 딱히 없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는 없지만, 도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최대한 설득
조사결과를 어디에 쓰이나요?	학원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사결과 만나고 싶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패널의 시간에 맞춰서 조사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참여 독려
본조사를 주관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황파악이 필요합니다. 본조사는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입니다.	부모님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두분 중 한 분만 응답하면 된다고 설득 • 교육, 진료 관련 등 유용한 정보를 우편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 가능 안내
	개인정보 제공에 민감하게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강조 •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외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음을 강조

그림 II-12. 거절자 대응 및 재접촉 관리

여섯째, 실사 현장 검증 및 조사 완료 후 전화 검증을 실시한다. 패널조사의 자료 신뢰성과 조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장 검증을 통해 조사원이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조사 과정의 표준화와 오류를 예방한다. 또한 가구 방문 조사 종료 후에는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전화를 실시하고, 응답 내용의 사실 여부와 방문 조사원의 응대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조사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유지 방안을 마련을 통해 패널의 장기적 신뢰 구축과 응답의 일관성 유지, 비표본오차 및 패널 이탈의 최소화 등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조사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 목적과 참여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조사 신뢰도 형성과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써 본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형 조사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하였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한국아동·청소년·청년데이터아카이브센터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메인페이지로 연동되도록 구성하여, 주 관기관,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 패널조사 관련 주요 정보를 언제든지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참여자가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참여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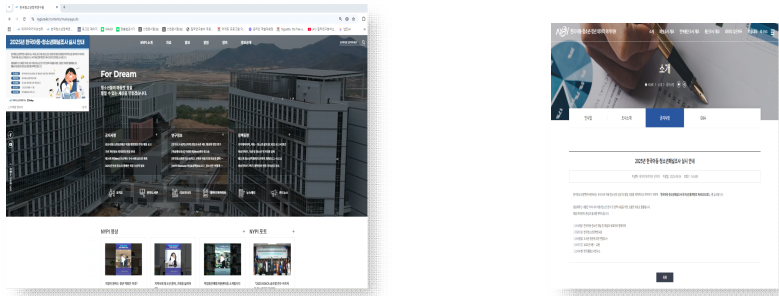


그림 11-13. 2025년 KCYPs 배너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KCYPs 2025 신규패널 구축은 학교 기반 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을 위해 학교의 협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원표본으로 추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자료를 학교장 명의로 등기 발송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발송된 홍보자료에는 주관기관 소개 리플렛, ‘KCYPs 2025’ 조사 안내문, 조사 참여 협조 공문,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의의 학교장 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패널조사에 대한 개요와 구체적인 협조 요청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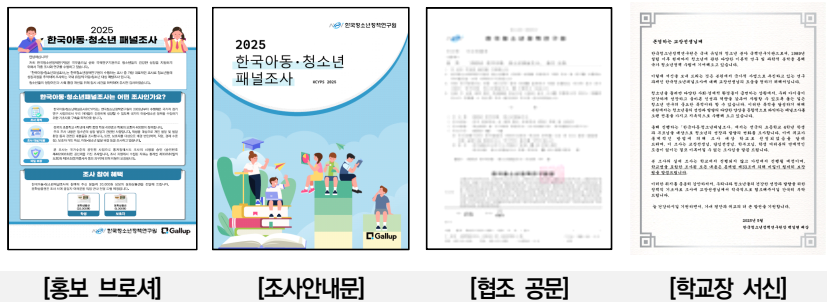


그림 11-14. 2025년 KCYPs 홍보자료

5) 조사원 선발 및 관리

(1) 조사원 선발

패널조사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추적조사라는 점에서, 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지속적 관계 형성이 조사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신뢰와 친밀감을 확보할수록 조사 참여율과 응답의 지속성이 높아지며, 이는 패널조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원은 단순한 자료 수집자가 아니라, 패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도 조사는 기존 코호트(KCYPs 2018 초4 코호트, 제8차년도)를 지속 추적함과 동시에 신규 코호트(KCYPs 2025 초4 코호트, 제1차년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해로,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의 첫 만남과 조사 경험은 향후 참여자의 태도와 조사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KCYPs 2025 초4 코호트 제1차년도 조사는 ‘학교 기반 표집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수행 단계를 세분화하고 역할별로 전문 인력을 선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화 컨택을 수행하는 ‘전화 컨택원’, 컨택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 방문 조사원’, 조사 참여에 동의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가구 방문 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전화 컨택원’은 학교 컨택 기간 동안 전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학교 담당자와의 첫 접점에서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명확한 발음과 친근감 및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의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하였다. 더불어 KCYPs 조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을 선발하여, 전화 통화 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참여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방문 조사원’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장·교감 또는 담임교사에게 패널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배부·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표집 및 현장 협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 특히 제3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학교조사 팀장 및 조사원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방문 조사원’은 조사 참여에 동의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TAPI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제3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유경험자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 또는 보육 관련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특히 TAPI 조사 경험과 아동·청소년 대상 면접 능력을 갖춘 조사원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조사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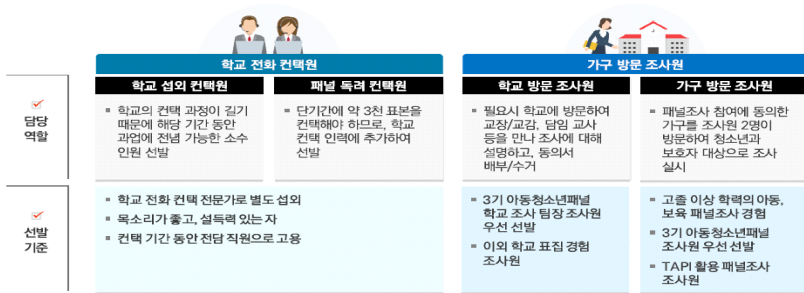


그림 II-15. KCYPS 2025(제1차년도) 조사원 선발기준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는 장기간의 패널 추적조사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원과 패널 간에 형성된 신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가구에는 이전 차년도와 동일 조사원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불가피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 3년 이상인 고정 조사원 또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가구 방문 패널조사 경험자를 차순위로 선발하였다.

조사원은 단순한 면접 수행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패널관리자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되며, 패널 컨택, 가구 방문, 주소/연락처 등 변동사항의 추적 등 조사 외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패널의 지속적인 참여와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조사원은 1인이 패널 1가구를 전담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패널 컨택 단계부터 본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❶ 조사원 선발 절차



❷ 조사원 선발 규모

지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청 충북	강원	제주
전화 조사	2025년 현재 활동 컨택원(471명)	471(동육 컨택원 중 24년에 끝났어서 고정적으로 활동한 컨택원)						
	본 패널조사 유선 컨택원(76명)	76						
Field 조사	실사연구원수(98명)	21	3	3	3	3	2	1
	전분/교정(1,430명)	900	125	110	120	110	40	25
	동육(13,200명)	11,000	500	400	500	400	300	100
	패널조사 경험 방문면담조사원(319명)	143	43	36	36	43	12	4
본 조사	8차년도 조사 투입 예정 조사원(1,000명)	44	14	10	12	13	4	3

그림 II-16. KCYPS 2018(제8차년도) 조사원 선발기준

(2)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 조사수행 기관 책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지역별 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연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표준화된 교육안을 적용하고 지역 간 교육 편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실사 담당 조사원 뿐만아니라, 실사 수퍼바이저, 에디터, 예비조사원 등 실사 투입 인력 전원이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은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문제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이론 교육과 패널 컨택 및 가구방문 시 유의사항 교육, 설문 교육, TAPI 교육, 개인정보보호 원칙 교육 등 5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품질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5단계 교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일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소개 및 조사 목적 패널조사의 개념 조사 진행절차 및 조사 방법 가구면접조사 유의사항 교육 우수 현장조사사례 공유 	패널 컨택 시 유의사항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컨택 시 유의사항 (패널과 보호자 상황을 고려한 방문 일정 확인) 가구 방문 시 주의사항 등 교육 응답 거부 시 대응 방안 	설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조사의 구성 소개 (패널+보호자+형제자매 조사) 전체 문항에 대한 설문 구조 및 로직 이해 	TAPI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PI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사용법 설명 TAPI 전 문항을 하나씩 따라가며 교육 TAPI 컨리 방법 및 현장 검증에 대한 교육 실시 	Role-Playing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컨택부터 실사과정 전부 진행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통계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련한 교육 및 조사원 평가

그림 II-17. 2025년 KCYPS 조사원 교육 내용

2025년도 조사원 교육은 신규 코호트와 기존 코호트의 조사가 병행되는 해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KCYPS 2018 초4 코호트(제8차년도) 조사원 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패널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지조사의 첫 시점에서 패널 유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두고,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대면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KCYPS 2025 초4 코호트(제1차년도) 조사원 교육은 ‘신규 코호트를 구축하는 첫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와의 긍정적 첫 접촉과 조사 참여율 제고 전략’을 핵심 주제로 운영되었다. 본 교육은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일하게 5개 지역에서 약 2시간 내외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규패널의 원활한 모집과 초기 조사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표 II-15. 2025년 KCYPs 조사원 교육

지역	KCYPs 2018(제8차년도)		KCYPs 2025(제1차년도)	
수도권·강원	7월 17일(목) 13:30~16:30	서울사무소	8월 19일(화) 10:00~13:00	서울사무소
대구·경북	7월 21일(월) 13:30~16:30	대구사무소	8월 21일(목) 14:00~17:00	대구사무소
광주·전라	7월 22일(화) 13:30~16:30	광주사무소	8월 22일(금) 10:00~13:00	광주사무소
대전·충청	7월 22일(화) 13:30~16:30	대전사무소	8월 18일(월) 10:00~13:00	대전사무소
부산·경남·제주	7월 23일(수) 13:30~16:30	부산사무소	8월 20일(수) 10:00~13:00	부산사무소

(3) 조사원 관리

패널조사는 패널의 지속적 유지관리뿐 아니라 조사원의 체계적인 선발과 관리가 조사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 품질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원 선발 및 배치, 예방적 품질관리, 조사원 역량 강화, 성과관리 및 동기부여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원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사원 선발 및 배치 단계에서는 패널조사 경험과 조사대상과의 유대관계 형성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경력 3년 이상의 숙련 조사원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 선발하였다. 동일한 조사원이 동일 가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패널과의 신뢰 관계(rapport)를 유지하고, 응답 연속성과 조사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응답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조사원 교체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응답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II-18. 조사원 선발기준



그림 II-19. 조사원 선발 및 패널리스트 배분

예방적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 유형(입력 오류, 중단 오류, 일관성 오류, 시간기록 오류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오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TAPI 시스템의 논리 검증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 중 실시간 오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오류 유형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조사원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사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조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원의 숙련도와 역할에 따라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 과정에서는 조사 절차, 개인정보보호, 조사문화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조사원뿐 아니라 담당 연구원, 슈퍼바이저(SV), A/S 담당자, 에디터, 전산연구원 등 전 과정 참여자가 함께 교육을 이수하여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실사 후에는

주요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피드백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차기 교육에 반영하여 조사 역량의 순환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림 II-20. 조사원 현장 에디팅 교육

성과관리 및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조사원의 장기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에 따른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지역 간담회를 병행하였다. 조사 종료 후에는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 조사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의지를 높였다. 특히 동일 패널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한 조사원에게는 연속 참여에 따른 추가 보상을 제공하여 조사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였다.

01 조사원의 유대감 강화

>> 패널조사에서 조사원 관리는 패널 관리만큼 중요함
 >> 조사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분기별 회식 등을 지원하여 조사원들끼리 또는 조사원과 수퍼바이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함

02 조사완료 후 간담회 실시

>> 조사 이후 지역별로 담당 연구원이 주관하여 회식 겸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사 중 어려웠던 점, 문제해결방안 등을 공유함
 >> 2025년 조사 후 12월경 각 지역별로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사협조 및 컨택 시 응답자 반응, 조사 거절 및 연기 사유, 조사 진행 시 특이사항, 향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2025년 서울/그 외 지역 2회 수행)
 >> 이후에도 본사나 연구원 측에 요청할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사항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03 인센티브

>> 패널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패널과 조사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패널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동일 패널에게 동일한 조사원을 배정하고, 조사 성공률 및 연속 참여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후 계속 진행되는 조사에서도 기존 조사원이 참여하도록 함

그림 II-21. 조사원 성과 보상 체계

이와 같은 조사원 관리체계는 단순한 인력 운영을 넘어, 조사원의 전문성과 직무 책임감, 소속감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품질관리 체계로 기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패널 유지율 향상,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 확보, 응답자 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장기적 패널조사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조사시스템(TAPI) 구축 절차

조사의 체계적 진행과 관리, 정확한 데이터 생산 및 처리, 그리고 객관적 검증 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2025년 TAPI 구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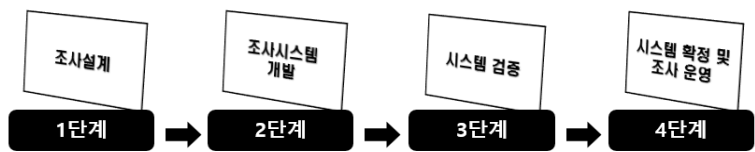


그림 II-22. 2025년 KCYPs TAPI 개발과정

첫째,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을 포함하는 초등, 중등, 성인, 보호자 설문지 문항 설계를 확정하여 문항 순서, 응답/스킵 방식, 문항 유형에 따른 입력형태(객관식, 복수응답, 기타 서술식 응답)를 최종 점검하고 TAPI 개발 시 고려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조사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는 태블릿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문 로직과 스킵 규칙을 설계하며, 사용자 친화적 응답 입력 화면을 설계하고, 온/오프라인 데이터 저장 및 전송 기능 구현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시스템 검증 단계’에서는 개발된 TAPI 프로그램의 문항 흐름, 문항간 로직, 응답 저장, 오류 검증 등의 기능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오류를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증작업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프로그램 개발진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 실사 참여 조사원이 프로그램의 편의성, 문항 오류, 로직 오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넷째, ‘시스템 확정 및 조사 운영 단계’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TAPI 개선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관련 의견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이후 확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조사를 개시하였다.

TAPI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 ‘조사 효율성’, ‘응답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축’, ‘패널 유지 및 안정성’ 측면에서 주요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시스템 기능 및 기술 개선’ 영역에서는 첫째, 종단패널 특성을 반영하여 이전 차수 응답값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종단데이터 연계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는 KCYPS 2018 초4 코호트 제8차년도 조사에만 해당한다.

둘째, 조사원 고유의 ID/PW 기반 로그인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원에게 할당된 패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패널관리를 자동화하였다.

셋째, TAPI 시스템 상에서 컨택 여부, 컨택 횟수, 조사 성공 및 조사 실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였다.

넷째, 조사동의서 및 서명 양식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원이 현장에서 바로 응답자에게 서명을 받고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또한 조사대상자에게 실시간 동의서 원본을 전자 서식으로 발송하는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전자화 기능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학교명 검색 시 키워드 입력만으로 ‘지역·학교급’ 정보가 자동 표시되도록 개선하였고, 형제자매·가구원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가 동일 가구원을 반복 기입하거나 혼동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녀별 구분 로직을 탑재하여 오입력을 최소화하고 입력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신뢰도 및 품질관리’ 영역에서는 첫째,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응답(예: 연령·관계 불일치 등)에 대한 ‘자동 경고’ 및 ‘재확인 팝업’ 등의 논리적 제약 조건을 설정하여 응답 오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둘째,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 이해도 개선을 위해 ‘도움말 풍선’과 ‘그림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인지 수준을 고려한 시각적 보조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현장 조사 완료 후 데이터가 즉시 중앙서버로 전송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에디팅 절차를 거치고, 이상치나 논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진에게 보고되도록 실시간 데이터 검증 및 클리닝 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조사표 문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TAPI에 즉시 반영하여 문항 테스트와 오류 검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 종단 응답값을 사전에 제시하여 조사 현장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함 • 종단 응답값이 다른 경우 올바른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이 잘못된 사유에 대해 별도 기입하도록 함 • 사유 기입은 TAPI의 '별도' 기능을 활용 <p>예시</p> <p>SO1 학생은 몇 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실제 태어난 생년과 월을 입력해 주십시오.</p> <p>_____년 _____월</p> <p>2006년 3월 → 1~6학년도 종단 데이터 제시</p> <p>Case 1 응답이 같은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p> <p>Case 2 응답이 다른 경우 맞는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이 잘못된 사유에 대해 기입</p> <p>TAPI</p> <p>종단 데이터 확인</p> <p>종단 데이터 확인</p> <p>종단 데이터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교유의 id/pw를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할당된 패널 리스트 정보만 제시할 수 있게 함 • 패널 리스트에는 패널 연혁치, 주소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주요 정보(지역, 학교명, 성별, 생년월 등)가 제시되어 있음 • 이사, 전학 등으로 지역에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중앙에서 리스트 재할당하여 담당 조사원 변경 가능 • 조사 종료 혹은 마무리 이후 특이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별도 칸에 기입 가능 <p>종단 데이터 확인</p> <p>종단 데이터 확인</p> <p>종단 데이터 확인</p>
<p>종단 데이터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성공 여부는 원패널, 보조자, 현재지역 성공 여부로 나누어 관리 • 성공 여부 이외에도, 전체 여부 및 전체 횟수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진행상황 관리 가능 • 진행상황 관리 외에도, 조사원 공지 기능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공지하여 조사과정의 비효율성 오 최소화 <p>진행상황 관리</p> <p>1. 조사원 진행 상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 전체, 기입 등의 조사원 • 조사원 진행 상황 <p>2. 실시간 조사원 진행 상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설문 진행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원패널/보조자/현재지역 성공 여부를 나누어 진행 상황을 각각 기록하도록 구성 가능 • 조사원도 여부 및 누락된 항목 등 확인 <p>3. 발령 시 주의 사항 실시간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차사항 등 알림 가능 <p>4. 응답자 정보 실시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정보 확인 • 방문일자, 조사 시간 등 기입 	<p>조사원별 패널 리스트 분배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이로 수집했던 각종 통의서를 모두 TAPI 안에 탑재하여 조사원 및 응답자 편의 제공하고, 조사 마무리 즉시 패널 가구별로 DB화 <p>조사원별 패널 리스트 분배</p> <p>조사원별 패널 리스트 분배</p> <p>조사원별 패널 리스트 분배</p>
<p>키워드 검색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명 문항에서 키워드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학교를 학교급, 지역정보 등과 같이 제시하여 정확한 학교정보를 수집 <p>키워드 검색 후 관련정보 확인</p> <p>502-가) 학생의 학교 소재지(지역) 학교명 입력 후 확인</p> <p>502-가) 학생의 학교 소재지(지역) 학교명 입력 후 확인</p> <p>502-가) 학생의 학교 소재지(지역) 학교명 입력 후 확인</p>	<p>응답자 서명 편의성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가구원 정보를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추가나 삭제이 있는 경우, 각 가구원 별로 추가 or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함 <p>가구원 동업일 5 (H1)~4</p> <p>가구원 동업일 5 (H1)~6</p> <p>가구원 동업일 5 (H1)~4</p> <p>가구원 동업일 5 (H1)~6</p>
<p>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입력 오류 최소화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문항에서 (3)형태제에 라고 응답하는 경우 하단에 해당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즉각 제시하여 자녀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p>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입력 오류 최소화 가능</p> <p>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입력 오류 최소화 가능</p> <p>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입력 오류 최소화 가능</p>	<p>난이도 높은 문항 응답 신뢰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이도 있는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여 오류를 최소화함 ① Logic 설문 문항 : 이전 응답값에 따른 문항 제시 ② Loop 형태 문항 : 응답한 가구원 수에 맞춰 관계/성별 등 문항 개수 결정 ③ 도용할 용선 기능 : 용어 뒤의 물음표 클릭 시 문항에 대한 뜻이 제시 ④ 그래픽드 기능 :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문항에 그래픽드 제시 <p>Logic 설문 문항</p> <p>Logic 설문 문항</p> <p>Logic 설문 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값이 논리적 구조나 일반적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재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적용 가능 ① 제언조건 설정 : 대소관계 또는 세부 응답값 간에 논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력이 제한되어 응답값을 확인하도록 함 ② 일률적(무성의) 응답 자동 경고 메시지 : 지문(소문형)의 순차적 제시에도 일률적(무성의)한 응답으로 보일 경우, 자동 경고 메시지를 통해 응답자의 불성실 응답을 줄임 ③ 테이블 지문 순차적으로 제시 : 일률적(무성의) 응답을 막기 위해, 한 문항에 여러가지 소문형이 포함된 경우 테이블 지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자의 불성실 응답을 줄임 ④ 소프트체크 기능 : 현실적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응답값의 경우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 하는 정답 추가로 제시 <div data-bbox="192 382 608 493"> <div>제언조건 설정</div> <div>일률적(무성의) 응답 자동 경고 메시지</div> <div>테이블 지문 순차적으로 제시</div> <div>소프트체크 기능</div> </div> <div data-bbox="325 505 480 533">응답값 재확인 기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요청(촉려) 채널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패널을 추적 및 조사 실행할 수 있도록 연락처 (거주지) 수집 방안을 강화 · 전화번호의 경우 번호변경, 광변 등으로 추적이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추가적으로 패널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전화컨택의 한계점을 극복 ·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추후 패널조사 및 패널 유지조사에 활용 <div data-bbox="643 305 1058 500"> <div>패널 및 보호자 정보 수집</div> <div> <p>본 단 정보 제시하여 정확한 연락처, 소재지 정보기 기입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iv data-bbox="681 505 1025 533">패널의 정확한 연락처 및 거주지 정보 수집</div>
---	---

그림 II-23. TAPI 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6. 실사 진행 및 관리¹⁶⁾

1) 실사 진행

(1) 사전 전화 컨택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패널과의 원활한 접촉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사전 전화 컨택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우선, 패널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컨택하였으며, 보호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의 경우, 여전히 보호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자를 통한 사전 안내를 우선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 안내 문자를 사전에 발송하여 패널 전용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한 응답 및 문의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접촉률을 높였다. 발신번호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전용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사전 전화 컨택 결과는 ‘수신 성공’, ‘부재중·통화중’, ‘결번·연락처 확인 불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며, 수신 성공 시 조사 일정 및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부재 또는 통화 불가 시에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하거나 다른 요일·시간대에 재컨택을 시도하였고,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에는 같은 학교 출신 타 패널을 통해 간접 확인을 진행하였다.

16)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56-64)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아울러, 사전 컨택 과정에서 패널의 협조도를 평가하여 A~C 등급으로 분류(A: 호의적 반응, B: 보통, C: 부정적 반응)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이후 조사원 배분과 실사 진행 시 우선순위 관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패널과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조사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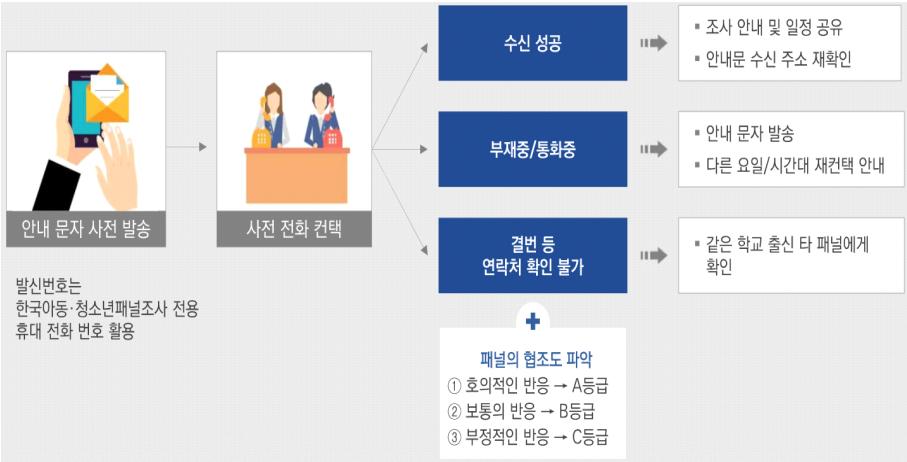


그림 II-24. 사전 전화 컨택

(2) 패널 정보 DB 관리

KCYPS 2018 제8차년도(2025년) 조사는 패널의 장기적인 추적관리와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해 패널개인정보 DB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패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패널 정보 관리 시스템(DB)을 구축·운영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은 단순한 연락처 관리 수준을 넘어 패널의 접촉 이력, 조사 협조도, 조사원 정보, 조사 요청 및 유의사항, 조사 참여 이력 등 조사 전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패널 정보 DB는 ① 통합 연락망 관리(주소·가구정보·연락처 누적 관리), ② 실사 관리 정보(패널 협조도 평가, 담당 조사원, 자발적 신고내역 등), ③ 패널 경험 관리 정보(조사 참여이력, 조사 요청사항, 경품 당첨 이력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패널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누적·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5~6월에 실시된 사전전화컨택(해피콜)을 통해 확보한 최신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톡 ID), 주소, 거주지 이전 계획, 조사 시 요청사항 등을 DB에 즉시 반영하였다. 컨택 과정에서 확인된 패널별 협조도와 조사 유의사항도 DB에 기록되었고, 세부 내용(예: 문자 선호, 조사 우선순위 요청 등)은 조사 시 참고하도록 체계화하였다.

특히 패널의 개별 요청사항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고, 패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통해 조사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운영체계를 정교화하였다.



그림 II-25. 패널 정보 DB 관리시스템

(3) 학교 표집 및 선택

KCYPS 2025 신규패널의 표집 설계는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를 표집단위로 하는 학교 기반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 based on schools)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학교 표집은 지역(시·도), 학교 규모, 학교 유형을 층화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층 내에서 확률비례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원표본 학교에는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 조사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학교 선택을 진행하였다.

‘학교 선택’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1단계에서는 전화 선택원이 해당 학교의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교장 또는 교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관기관 소개와 조사 취지,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 협조 요청 및 참여 설득 과정을 수행하였다.

선택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조사 참여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학교에 협력교사를 선정하고 학교 방문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협력교사가 제시한 희망 일정에 따라 현장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였다. 현장조사원은 협력교사에게 본 조사의 목적, 주요 내용, 조사 절차 및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협력교사용 가이드북과 안내 영상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협력교사’는 해당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을 확인하고, 각 학급의 조사 참여 여부를 조율·섭외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협력교사가 학교 선택 과정에서 핵심적인 섭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업무 협조도와 참여 동기 제고를 위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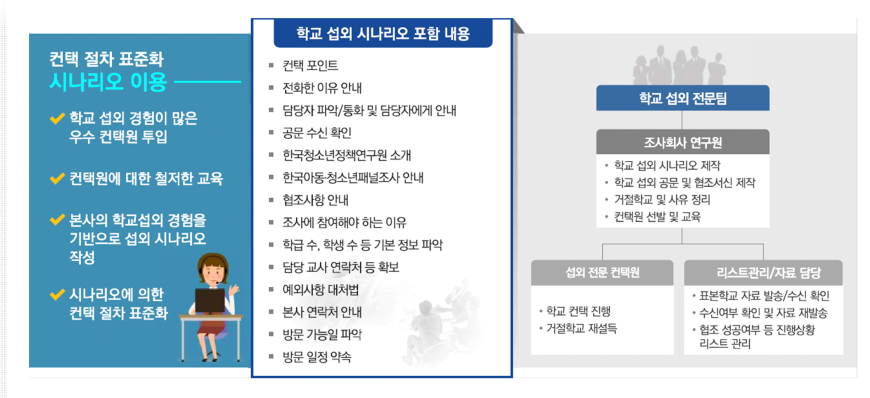


그림 II-26. 전화 선택 설득 과정

이후 현장조사원은 협력교사와 동행하여 조사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를 직접 면담하고, 본조사의 취지와 목적, 조사 절차 및 설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조사 설명문과 조사 참여 동의서의 배부 및 회수 일정을 협의하고, 담임교사가 요청한 일정에 따라 학교를 재방문하여 동의서를 수거하고 조사참여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후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지역별 배정된 전문조사원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하여 조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후, 가구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단계	내용	담당자	협력교사의 역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선정 후 협력교사의 역할을 할 담당자 섭외 및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취지, 조사 절차 등 설명 	협력교사	<p>→ 조사대상 확인 및 대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학생 및 담임 교사들에게 조사 관련 안내 및 조사 협조 요청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학급 확인 및 참여 여부 확인 학교 방문 일정 확정 각종 안내자료를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담임 교사에게 전달해 줌 <p>→ 추가 사례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교사에게는 추가 사례비를 제공하여 협조도 제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협조도가 낮은 경우) 대체 협력교사 섭외 	협력교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학급 확인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회사 조사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회신 	협력교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 응답자 확정 후 협력교사에게 회신 	조사 회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교사의 역할에 대한 안내 - 공문, 브로셔 등 관련 자료 전달 - 패널조사에 대한 설명, 동의서 수집 방법 등 설명 	담임 교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일정 확인 후 학교 방문 일정 확정 후, 방문 일정을 담임 교사에게 전달 	조사 회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하는 일정에 학교 방문 후, 동의서 취합/스크리닝 설문 이후 방문 조사 실시 	조사 회사	

그림 11-27. 협력교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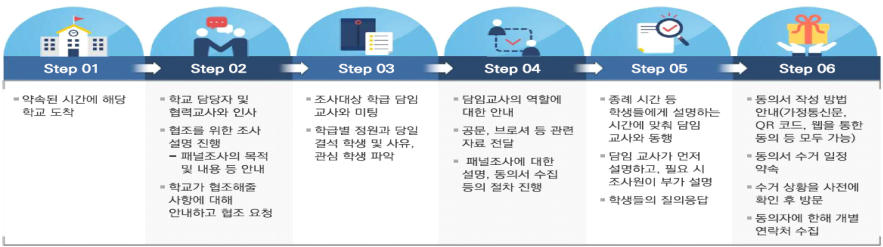


그림 11-28. 학교 표집 및 패널 컨택 과정

(4) 가구방문 조사

조사참여자와의 일정 조율은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컨택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전화 응대가 어려운 조사대상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편하게 방문희망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방문 일정이 확정된 후 1일 전에는 리마인드

알림톡을 발송하여 조사 일정을 재안내함으로써 조사 참여율과 방문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II-29.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의 가구 방문조사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전화컨택과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원 2인 1조로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패널이 희망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가구를 방문하였다. 가구 방문 시 조사원은 신분증, 명함, 협조 공문, 조사용 태블릿 PC, 인포시트, 안내문, 조사원 지침서, 답례품 및 확인서, 필기도구 등 필수 조사 도구를 지참하여 방문하였다.

대면조사 단계에서는 TAPI 설문을 준비하면서 원패널과 보호자에게 면접 소요시간, 조사 목적, 주요 조사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조사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받은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시에는 응답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내 분리된 공간에서 2명의 조사원이 원패널과 보호자를 각각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조사원은 태블릿 화면에 제시된 문항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조사원 타계식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이나 민감한 문항의 경우에는 패널이 원할 때 자기기입식으로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형제자매 조사는 원패널 및 보호자 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종료 후에는 누락 항목이나 입력 오류가 없는지 응답 내용을 재확인한 뒤 설문을 마감하고,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차년도

조사 참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차년도 조사 일정 및 참여 독려 안내를 남기며 조사를 종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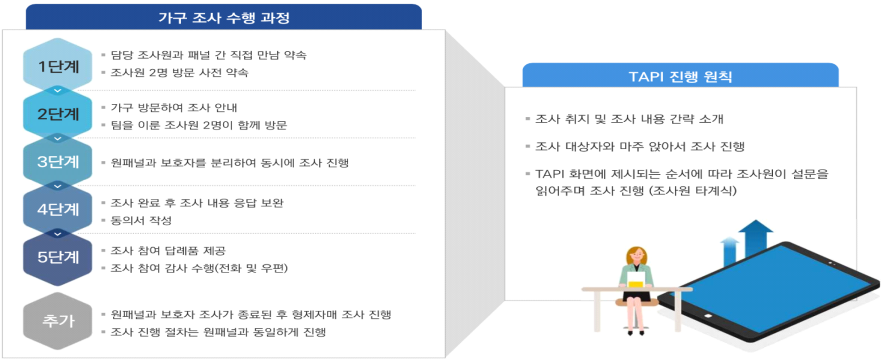


그림 II-30. KCYPS 2018 제8차년도 가구 방문 조사 절차

KCYPS 2025 제1차년도 조사의 가구 방문조사는 비록 협력교사를 통해 조사참여자 명부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나 조사대상자의 일정, 방문 장소, 조사 시간 부담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실제 조사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사원은 협력교사를 통해 확보한 명부를 토대로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전화로 접촉하여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였다. 컨택 과정에서는 보호자가 조사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사 수행기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안내하고, 더불어 본 조사의 목적, 참여의 필요성, 그리고 정책적·학술적·사회적 의의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조사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였다.

응답자의 일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방문 거절이나 부재로 인한 실사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 컨택 외에도 모바일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조사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일정이 확정된 후에는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방문일, 예상 소요시간, 조사원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조사 참여를 리마인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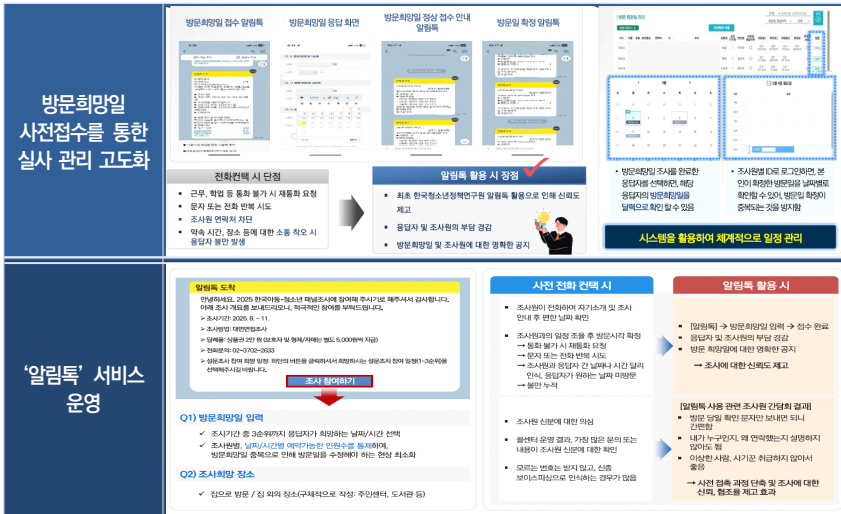


그림 11-31. 방문희망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알림톡 서비스 운영

가구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포함한 필수 조사도구(신분증, 명함, 협조 공문, 인포시트, 안내문, 조사원 지침서, 답례품 및 확인서, 필기도구 등)를 구비하여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구 방문 시 조사원은 반드시 조사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본 패넬조사의 취지와 조사 목적, 그리고 수행기관의 공신력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재차 설명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원의 복장과 태도에 있어서도 응답자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단정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예의바르고 친절한 대면 태도를 통해 긍정적 첫인상과 조사원-응답자 간 라포(rapport)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의 취지와 목적, 주요 조사 내용, 예상 면접 소요시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조사 참여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조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원은 현장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 참여의 자율성과 윤리적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사수행과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료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후 면접조사 진행은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종료 후 조사원은 이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답례품(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차년도 조사 참여에 대한 독려 인사와 안내를 전한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처음 패널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조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과 향후 패널 유지를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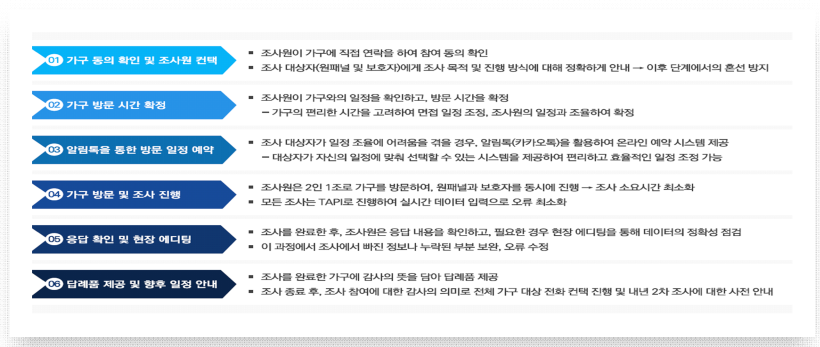


그림 II-32. KCYPs 2025 제1차년도 가구 방문 조사 절차

2) 조사 결과 검증 및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1) 실사 현장 검증 수행

① 실사 현장 검증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11월에 실사 현장 참관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참여하여 실사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컨택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 진행상의 개선 필요 사항, 현장 조사원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검증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확인된 문제점을 차년도 조사 기획 단계에 반영하여 통계자료의 품질과 조사내용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② 가구조사 완료 후 전화 검증

가구 방문 조사 종료 후 조사원별 조사 성공 패널 중 10%에 대한 무작위 전화 검증을 실시하여 ‘응답 내용에 대한 검증’과 ‘방문 조사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실사 품질을 제고하였다.

(2)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KCYPS 2018 제8차년도 조사와 KCYPS 2025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 완료 후, 본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진행하고 응답 내용을 무작위로 검증하였다. 또한 면접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신·구 초4 코호트 패널을 대상으로 차년도 조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2026년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실사 종료 이후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고, 데이터가 확정되면 이후 가중치 산출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실사 결과 및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내용은 2026년의 ‘202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 — 제3장 2024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 1. KCYPS 2018 제7차년도
(2024년) 조사 결과
- 2. 패널 유지 및 이탈 유형
- 3. 가중치 산출
- 4. 주요 조사 결과
- 5.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인식구조 분석
- 6. 데이터 공개

1. KCYPs 2018 제7차년도(2024년) 조사 결과¹⁸⁾

1) 실사 요약

2024년 KCYPs 2018 제7차년도 조사는 2018년에 구축된 원패널 5,197명(초4 코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KCYPs 2018의 여섯 번째 추적조사로, 중1 코호트가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1학년)으로 이행함에 따라 조사체계 전환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사의 내적인 특이사항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인 응답자를 위한 조사도구의 신규 개발이다. 중1 코호트가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 초등·중등용 설문지 외에 성인용 설문지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성인용 설문지는 대학생, 취업자, 무직자 등 응답자의 상태에 따라 문항 구성을 세분화하였으며, 경제활동, 사회참여, 진로계획, 관계 및 정서 등 성인 초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급 전환에 따른 조사관리 전략의 강화이다.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취업, 군입대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조사 전 단계에서 연락처 갱신 및 사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일정 조정과 재방문 관리 등 현장조사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조사안내 및 참여 독려를 지속하였다.

실사 결과, 제7차년도 조사는 원패널 4,196명(전체 유지율 80.7%)의 응답을 확보하였

17) 이 장은 하형석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8)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67-74)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다.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 2,123명(유지율 81.4%), 중1 코호트 2,073명(유지율 80.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 제6차년도 조사(유지율 85.9%) 대비 약 5.2%p 하락한 수준으로, 중1 코호트의 성인 전환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에서는 4,196명이 응답하여 원패널 대비 100.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형제자매 조사는 성인용 설문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1,898명이 참여하였다.

종합하면, 제7차년도 조사는 KCYPS 2018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포착한 첫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한 설문체계와 조사관리 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비록 전체 패널 유지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는 패널의 성인기 진입에 따른 자연적 변동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8차년도 조사에서는 초4 코호트를 중심으로 조사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 대상	* 2018년 구축된 원패널 5,197명 및 패널의 보호자, 형제자매 2,000명							
구축 패널	원패널 수	보호자 수	목표 형제자매 수	원패널 수	보호자 수	목표 형제자매 수		
	2,607명	2,607명	1,000명	2,590명	2,590명	1,000명		
제7차년도 조사현황	초4코호트 조사성공률 81.4%	완료 원패널 수	완료 보호자 수	완료 형제자매 수	완료 원패널 수	완료 보호자 수	완료 형제자매 수	중1코호트 조사성공률 80.0%
		2,123명	2,123명	1,028명	2,073명	2,073명	870명	

그림 III-1.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요약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결과,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조사가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초4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 2,123명(패널유지율 81.4%)에 대응하는 보호자 2,12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원패널 대비 100.0% 응답률이다. 초4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1,028명으로 목표대비 조사 성공률이 102.8%로 나타나, 설정된 목표 인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중1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 2,073명(유지율 80.0%)에 대응하는 보호자 2,07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초4 코호트와 동일하게 원패널 대비 100.0% 응답률을 보였다.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870명으로 목표대비 조사 성공률이 8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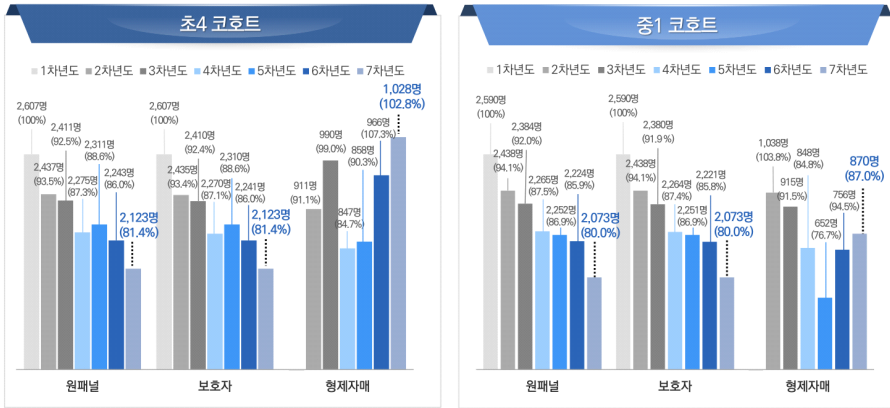


그림 III-2.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사 결과

KCYPs 2018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패널 유지율은 부산(92.6%), 광주(87.4%), 전북(87.9%), 전남(8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83.6%)와 경남(83.6%)도 평균(81.4%)을 상회하였다. 반면 강원(61.9%), 제주(63.3%), 세종(68.6%) 지역의 원패널 유지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세종과 제주 지역은 전년도 마찬가지로 표본 규모가 작아(세종 35명, 제주 30명) 소수 패널의 이탈이 유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는 원패널과 동일하게 1:1 매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조사 성공률은 원패널의 지역별 유지율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의 경우, 전체 조사 성공률이 목표 대비 102.8%로 나타나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북(128.3%), 대전(120.7%), 대구(115.6%), 울산(113.0%), 경기(111.6%), 세종(107.7%), 전남(102.6%), 서울(100.6%) 지역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경북 지역은 형제자매 조사 목표의 1.3배를 상회하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충북(69.4%), 강원(82.1%), 인천(88.5%), 경남(87.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표 III-1. 초4 코호트 조사결과(제7차년도)

초4 코호트		전체 패널 수	원패널		보호자		형제자매		
			조사완료	유지율 (%)	조사완료	성공률 (%)	목표할당	조사완료	성공률 (%)
총계		2,607	2,123	81.4	2,123	81.4	1,000	1,028	102.8
지역 별	서울	406	325	80.0	325	80.0	154	155	100.6
	부산	148	137	92.6	137	92.6	56	51	91.1
	대구	114	91	79.8	91	79.8	45	52	115.6
	인천	158	125	79.1	125	79.1	61	54	88.5
	광주	87	76	87.4	76	87.4	32	33	103.1
	대전	79	61	77.2	61	77.2	29	35	120.7
	울산	59	48	81.4	48	81.4	23	26	113.0
	세종	35	24	68.6	24	68.6	13	14	107.7
	경기	685	573	83.6	573	83.6	259	289	111.6
	강원	97	60	61.9	60	61.9	39	32	82.1
	충북	90	71	78.9	71	78.9	36	25	69.4
	충남	136	109	80.1	109	80.1	54	53	98.1
	전북	99	87	87.9	87	87.9	38	35	92.1
	전남	88	77	87.5	77	87.5	38	39	102.6
	경북	137	107	78.1	107	78.1	53	68	128.3
	경남	159	133	83.6	133	83.6	63	55	87.3
	제주	30	19	63.3	19	63.3	11	12	109.1

KCYPS 2018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패널 유지율은 광주(94.3%), 전북(92.4%), 전남(92.3%), 경북(91.1%)에서 9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종(88.9%)과 경기(82.8%)도 전체 평균(80.0%)을 상회하였다. 반면, 강원(40.9%)과 제주(56.4%), 울산(69.8%) 지역은 원패널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구축된 패널 수가 각각 93명, 39명으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소수 패널의 이탈이 유지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는 1:1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조사 성공률은 원패널의 지역별 유지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의 경우, 전체 조사 성공률이 목표 대비 87.0%로 나타나, 전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28.6%), 전남(116.7%), 대구(117.4%), 전북(106.5%), 경북(106.5%), 울산(105.0%), 경기(102.5%) 등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역은 목표 인원의 1.3배 이상을 조사 완료하여 가장 높은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강원(58.3%), 대전(58.6%), 제주(53.3%) 지역은 조사 여건상 응답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표 III-2. 중1 코호트 조사결과(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전체 패널 수	원패널		보호자		형제자매		
			조사완료	유지율 (%)	조사완료	성공률 (%)	목표할당	조사완료	성공률 (%)
총계		2,590	2,073	80	2,073	80	1,000	870	87
지역 별	서울	420	301	71.7	301	71.7	164	107	65.2
	부산	144	118	81.9	118	81.9	56	41	73.2
	대구	118	98	83.1	98	83.1	46	54	117.4
	인천	192	157	81.8	157	81.8	76	57	75.0
	광주	70	66	94.3	66	94.3	28	36	128.6
	대전	72	60	83.3	60	83.3	29	17	58.6
	울산	53	37	69.8	37	69.8	20	21	105.0
	세종	45	40	88.9	40	88.9	17	17	100.0
	경기	629	521	82.8	521	82.8	237	243	102.5
	강원	93	38	40.9	38	40.9	36	21	58.3
	충북	110	81	73.6	81	73.6	43	34	79.1
	충남	114	90	78.9	90	78.9	43	36	83.7
	전북	119	110	92.4	110	92.4	46	49	106.5
	전남	78	72	92.3	72	92.3	30	35	116.7
	경북	123	112	91.1	112	91.1	46	49	106.5
	경남	171	150	87.7	150	87.7	68	45	66.2
	제주	39	22	56.4	22	56.4	15	8	53.3

2) 제7차년도 원패널 조사실패

KCYPS 2018 제7차년도 조사에서 원패널 대비 조사실패는 초4 코호트의 경우 484명(원패널 대비 18.6%), 중1 코호트의 경우 517명(원패널 대비 20.0%)으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의 경우 조사 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성인 전환기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을 살펴보면, 두 코호트 모두 강력 거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초4 코호트의 경우 전체 조사실패 중 강력 거절이 346명(71.5%), 접촉 실패 130명(26.9%), 당해조사 거절(군입대·유학 등) 8명(1.7%)으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는 강력 거절이 469명(90.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접촉 실패 32명(6.2%), 군입대·유학 등 기타 사유 16명(3.1%)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 거절의 경우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조사하기 싫다”, “고등학생이라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접촉 실패는 초4 코호트 130명, 중1 코호트 32명으로, 전화번호 변경·이사 등으로 인해 사전 컨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취업·군입대 등으로 주거·연락처 변동이 많아 연락 두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초4 코호트 8명, 중1 코호트 16명은 군입대·유학·입원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해조사 참여가 어려운 사례로 파악되었다.

종합하면, 제7차년도 조사에서는 학교급 전환기(초4 코호트) 및 성인 이행기(중1 코호트)라는 발달단계 변화가 패널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1 코호트의 경우 패널조사 종료 시점에서 조사 참여 동기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7년 KCYPS 2018 제10차 조사에서 현 초4 코호트가 성인 패널로의 전환기에 위치하는 만큼 이에 적합한 조사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별 결과

조사실패 유형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N	%	N	%
강력 거절	346	71.5	469	90.7
접촉 실패	130	26.9	32	6.2
당해조사 거절(군입대, 유학 등)	8	1.7	16	3.1
계	484	100.0	517	100.0

3) 제7차년도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

KCYPS 2018 제7차년도 원패널의 보호자는 초4 코호트 2,123명, 중1 코호트 2,073명 조사를 완료하였다. 초4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의 경우, 어머니가 91.9%로 조사에 응답하였고, 아버지가 6.9%, 조부모가 0.8%, 형제자매·친인척이 0.3%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90.0%, 아버지가 8.7%, 조부모가 0.8%, 형제자매·친인척이 0.4%로 조사되었다. 두 코호트 모두 보호자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머니로, 응답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전년도 제6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초4 코호트의 어머니 응답 비율은 91.9%로 전년(91.9%)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1 코호트의 어머니 응답 비율은 90.0%로 전년(90.3%) 대비 0.3%p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간 관계

원패널과 보호자 간 관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N	%	N	%
어머니	1,952	91.9	1,865	90.0
아버지	146	6.9	181	8.7
조부모	17	0.8	17	0.8
형제자매/친인척	7	0.3	9	0.4
비혈연	1	0.0	1	0.0
계	2,123	100.0	2,073	100.0

4) 제7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KCYPS 2018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형제자매 효과(sibl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 제2차년도 조사(2019년)부터 원패널의 보호자뿐 아니라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형제자매 조사는 연령에 따라 초등용·중등용·성인용 조사표를 사용한다.

2024년 제7차년도 조사 결과, 초4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1,028명(목표 대비 102.8%),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870명(목표 대비 87.0%)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조사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한 수준으로, 형제자매 조사 참여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4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학년 분포는 중2(21.8%), 중1(15.6%), 초6(8.5%), 고3(16.2%), 성인(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초4 코호트 원패널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형제자매가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초4 코호트 원패널과의 관계는 여동생(29.8%), 남동생(30.7%), 형/오빠(19.5%), 누나/언니(20.0%) 순으로, 원패널보다 나이가 적은 동생 비율(60.5%)이 다소 높았으나, 고3 및 성인 연령대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면서 원패널보다 나이가 많은 형/오빠, 누나/언니 비율도 4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학년 분포를 보면, 고2(23.7%), 고1(19.2%), 성인(20.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중3(9.8%), 중2(7.4%), 중1(5.9%) 순으로 조사되어, 2024년 기준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원패널과의 연령 차이가 약 2~3년 이내인 형제자매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패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동생(42.1%)이 가장 많고, 남동생(38.6%), 누나/언니(11.6%), 형/오빠(7.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중 다수는 원패널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7차년도 형제자매 조사는 두 코호트 모두 목표 대비 조사성공률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학년 분포는 원패널과의 연령 차이 $\pm 2 \sim 3$ 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고등학생과 성인 초기 연령대의 형제자매가 많았다. 관계 유형은 두 코호트 모두 동생(여동생·남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초4 코호트에서는 형·누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간 발달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한 구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KCYPS 2018 형제자매 조사가 원패널의 가족 내 발달 환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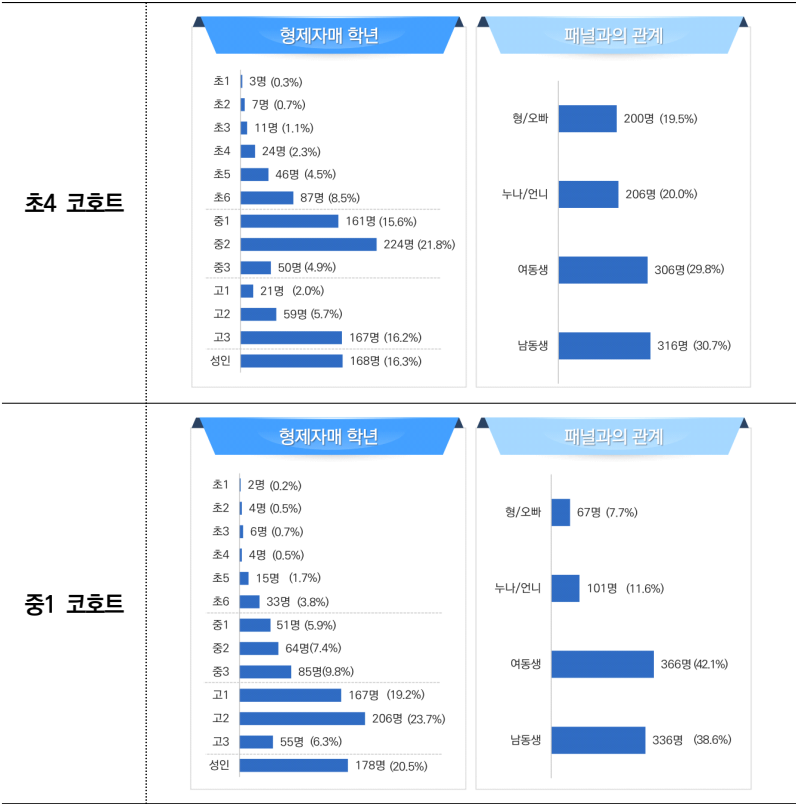


그림 III-3. KCYPs 2018 제7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실사 결과

2. 패널 유지 및 이탈 유형¹⁹⁾

1) 원패널 유지 및 이탈 유형

2018년 원패널 총 5,197명(초4 코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으로 구축된 KCYPs 2018은 2024년 제7차년도 조사까지 80.7%의 패널 유지율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제7차년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조사 성공률은 94.0%로 나타났으며, 전년 응답자 중 375명이 이탈하였고, 전년 이탈자 중 105명이 복귀하였다.

패널 유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일반적으로 패널 구축 직후 제2차년도 조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CYPs 2018 역시 제2차년도에 약 6.2%p의 유지율 하락(93.8%)이 나타났다. 이후 제3차년도(92.3%), 제4차년도(87.4%)로 이어지며 학교급 전환기(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에 따른 자연적 이탈이 관찰되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조사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 성인 대상 패널과 달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학교급 전환기에 응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점이 구조적 특징임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패널 이탈의 주요 사유는 진학에 따른 조사 거절,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추적 실패, 또는 조사 비협조 등이며, 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KCYPs 20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예컨대 KCYPs 2010의 초4 코호트는 중학교 진학 시기(2012→2013년)에 약 5.3%p,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 진학 시기(2012→2013년)에 약 6.4%p의 패널 유지율 하락이 있었다.

이에 비해 KCYPs 2018은 조사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제3차년도~제4차년도 전환기에 약 4.9%p 하락에 그치는 안정적인 유지율을 보였다. 이후 제5차년도 조사(2022년)에서는 특이하게 전년 대비 유지율이 0.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탈 패널의 복귀(235명)가 전년 응답자 중 이탈 패널(212명)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6차년도 조사(2023년)에서는 유지율이 85.9%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제7차년도 조사(2024년)에서는 중1 코호트가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응답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여 전체 유지율이 80.7%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까지의 누적 유지율 80%대 초반은 청소년 패널조사로서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KCYPs 2018 원패널은 학교

19)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 75-80)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급 전환과 성인기로의 이행 등 응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패널 추적관리 체계의 안정화, 복귀패널 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패널 유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III-5. 원패널 유지 및 이탈 결과

(단위: 명, %)

조사 차수 (연도)	전체 코호트(초4 코호트 + 중1 코호트)				
	조사 성공 패널수(명)	패널 유지율 (%)	전년 대비 조사 성공률 (%)	패널이탈	패널복귀
				전년응답→이탈	전년이탈→복귀
제1차년도 (2018년)	5,197	100.0		-	-
제2차년도 (2019년)	4,875	93.8	93.8	322	-
제3차년도 (2020년)	4,795	92.3	98.4	223	143
제4차년도 (2021년)	4,540	87.4	94.7	361	106
제5차년도 (2022년)	4,563	87.8	100.5	212	235
제6차년도 (2023년)	4,466	85.9	97.9	205	108
제7차년도 (2024년)	4,196	80.7	94.0	375	105

원패널 유지 및 이탈 결과를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제7차년도 조사(2024년)까지 두 코호트 모두 완만한 패널 유지율 하락 추세를 보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패널조사로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코호트의 패널 유지율은 제7차년도(2024년)까지 81.4%, 중1 코호트는 제7차년도(2024년)까지 80.0%를 각각 기록하였다. 학교급 전환과 성인기로의 이행이라는 응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7차년도까지 80% 수준의 유지율을 보인 것은 장기 패널로서의 안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5차년도 조사(2022년)에서는 전년대비 패널 복귀가 패널 이탈보다 많은 코호트가 초4 코호트로 나타났다. 제4차년도(2021년) 조사 당시 초4 코호트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학교급 전환 시기로, 강력거절에 의한 조사 실패 비율이 93.1%로 매우 높았으

나, 중학교 2학년이 된 제5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용 소통채널 운영과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 상담, 진로 및 활동 정보 등)이 복귀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5차년도 조사에서 초4 코호트는 전년 이탈자 93명보다 복귀자가 129명으로 더 많았으며, 전년대비 조사 성공률도 10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패널 복귀 촉진 활동은 초4 코호트뿐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에도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중1 코호트의 경우 전년 이탈자(119명)와 복귀자(106명)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급 전환 이후 복귀를 유도하는 조사관리 전략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6차년도 조사(2023년)에서는 초4 코호트(86.0%)와 중1 코호트(85.9%) 모두 일반적인 수준의 패널 유지율을 보였으며, 제7차년도 조사(2024년)에서는 초4 코호트가 81.4%, 중1 코호트가 80.0%로 하락하였다. 중1 코호트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 성인(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함에 따라 응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패널 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KCYPs 2018 원패널은 학교급 전환 및 성인기로의 이행 등 응답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이탈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패널 전용 소통채널 운영,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 등 복귀 유인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패널 유지율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III-6. 코호트별 원패널 유지 및 이탈 결과

(단위: 명, %)

조사 차수 (연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성공 패널수(명)	패널 유지율 (%)	패널이탈 전년응답 →이탈	패널복귀 전년이탈 →복귀	조사성공 패널수 (명)	패널 유지율 (%)	패널이탈 전년응답 →이탈	패널복귀 전년이탈 →복귀
제1차년도 (2018년)	2,607	100.0	-	-	2,590	100.0	-	-
제2차년도 (2019년)	2,437	93.5	170	-	2,438	94.1	152	-
제3차년도 (2020년)	2,411	92.5	110	84	2,384	92.0	113	59
제4차년도 (2021년)	2,275	87.3	181	45	2,265	87.5	180	61
제5차년도 (2022년)	2,311	88.6	93	129	2,252	86.9	119	106
제6차년도 (2023년)	2,242	86.0	115	46	2,224	85.9	90	62
제7차년도 (2024년)	2,123	81.4	177	58	2,073	80.0	198	47

KCYPS 2018 제1차년도 조사부터 제7차년도 조사까지 구축된 패널의 장기 유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 지속 여부와 복귀 형태를 기준으로 패널유지 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은 제6차년도까지의 기존 구분(유형 A ~ 유형 M)을 보완하여, 제7차년도까지의 응답 흐름을 반영한 총 15개 구분(유형 A ~ 유형 O)으로 구성하였다.

유형 A는 모든 조사 차수(제1차~제7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응답한 완전 유지형 패널이며, 유형 B ~ 유형 G는 일정 시점까지 응답한 후 완전히 이탈한 일반적인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H는 학교급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조사에 실패했다가 복귀 후 다시 학교급 전환기에 이탈한 패턴이다. 유형 I는 패널구축 이후 첫 번째 학교급 전환기에서만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지속적으로 응답을 유지한 유형이다. 유형 J는 패널 이탈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제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후 제3차년도 이후 복귀하여 지속적으로 응답을 유지한 유형이고, 유형 K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조사 실패 후 복귀한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제3차년도 조사)의 일시적 응답제한이 반영된 유형이다. 유형 L ~ 유형 O까지는 최근 2년 동안의 조사 성공과 조사 실패의 가능한 4가지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무작위적으로 조사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불규칙 응답패턴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패널(5,197명)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A은 3,639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하여, 7개년 조사 차수 동안 지속적으로 응답한 안정적 핵심 패널로 확인되었다. 일정 시점 이후 완전히 이탈한 유형 B~유형 G는 총 885명(17.0%)으로 나타났고, 학교급 전환기 이탈 후 복귀 및 학교급 전환기 재이탈형(유형 H)은 20명(0.4%), 첫 번째 학교급 전환기 이후 복귀형(유형 I)은 176명(3.4%), 첫 번째 추적조사인 제2차년도 이탈 후 복귀형(유형 J)은 91명(1.8%), 코로나19 시기 이탈 후 복귀형(유형 K)은 63명(1.2%)으로 나타났다. 무작위적 조사성공 및 실패가 반복되는 유형 L ~ 유형 O는 총 323명(6.2%)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원패널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 조사성공 / ○: 조사실패, 단위: 명, %)

유형	전체 코호트(초4 코호트 + 중1 코호트)							패널수 (명)	비율 (%)
	제1차년도 (2018년)	제2차년도 (2019년)	제3차년도 (2020년)	제4차년도 (2021년)	제5차년도 (2022년)	제6차년도 (2023년)	제7차년도 (2024년)		
유형 A	●	●	●	●	●	●	●	3,639	70.0
유형 B	●	●	●	●	●	●	○	309	5.9
유형 C	●	●	●	●	●	○	○	122	2.3
유형 D	●	●	●	●	○	○	○	91	1.8
유형 E	●	●	●	○	○	○	○	101	1.9
유형 F	●	●	○	○	○	○	○	110	2.1
유형 G	●	○	○	○	○	○	○	152	2.9
유형 H	●	●	●	○	●	●	○	20	0.4
유형 I	●	●	●	○	●	●	●	176	3.4
유형 J	●	○	●	●	●	●	●	91	1.8
유형 K	●	●	○	●	●	●	●	63	1.2
유형 L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122	2.3
유형 M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46	0.9
유형 N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105	2.0
유형 O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50	1.0
계								5,197	100.0

초4 코호트(2,607명)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A는 1,824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하였으며, 제1차년도(2018년)부터 제7차년도(2024년)까지 모든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안정적 핵심 패널로 확인되었다. 일정 시점 이후 완전히 이탈한 유형 B ~ 유형 G는 총 434명(16.6%)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전환기 이탈 후 복귀 및 학교급 전환기 재이탈형인 유형 H은 10명(0.4%), 첫 번째 학교급 전환기 이후 복귀형인 유형 I은 101명(3.9%)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추적조사(제2차년도)에서 이탈한 후 제3차년도부터 복귀하여 유지된 유형 J은 54명(2.1%), 2020년 코로나19 조사환경 제약으로 일시적 조사실패 후 복귀한 유형 K는 33명(1.3%)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작위적 조사성공 및 실패가 반복되는 유형 L~유형 O는 총 151명(5.8%)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8. 코호트별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초4 코호트

(●: 조사성공 / ○: 조사실패, 단위: 명, %)

유형	초4 코호트							패널수 (명)	비율 (%)
	제1차년도 (2018년)	제2차년도 (2019년)	제3차년도 (2020년)	제4차년도 (2021년)	제5차년도 (2022년)	제6차년도 (2023년)	제7차년도 (2024년)		
유형 A	●	●	●	●	●	●	●	1,824	70.0
유형 B	●	●	●	●	●	●	○	149	5.7
유형 C	●	●	●	●	●	○	○	68	2.6
유형 D	●	●	●	●	○	○	○	36	1.4
유형 E	●	●	●	○	○	○	○	44	1.7
유형 F	●	●	○	○	○	○	○	61	2.3
유형 G	●	○	○	○	○	○	○	76	2.9
유형 H	●	●	●	○	●	●	○	10	0.4
유형 I	●	●	●	○	●	●	●	101	3.9
유형 J	●	○	●	●	●	●	●	54	2.1
유형 K	●	●	○	●	●	●	●	33	1.3
유형 L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53	2.0
유형 M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18	0.7
유형 N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58	2.2
유형 O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22	0.8
계								2,607	100.0

중1 코호트(2,590명)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A는 1,815명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으며, 제1차년도(2018년)부터 제7차년도(2024년)까지 모든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안정적 핵심 패널로 나타났다. 일정 시점 이후 완전히 조사에서 이탈한 유형 B ~ 유형 G는 총 451명(17.4%)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전환기(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 이행기)에서 일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복귀 후 다시 이탈한 유형 H는 10명(0.4%), 첫 번째 학교급 전환기 이후 다시 응답을 재개한 유형 I은 75명(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추적조사(제2차년도)에서 이탈한 후 제3차년도부터 복귀하여 응답을 유지한 유형 J은 37명(1.4%),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조사 실패 후 복귀한 유형 K는 30명(1.2%)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작위적으로 조사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유형 L ~ 유형 O는 총

219명(8.4%)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응답패턴(유형 L ~ 유형 O)의 비율이 초4 코호트(5.8%)보다 다소 높은 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조사참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9. 코호트별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중1 코호트

(●: 조사성공 / ○: 조사실패, 단위: 명, %)

유형	중1 코호트							패널수 (명)	비율 (%)
	제1차년도 (2018년)	제2차년도 (2019년)	제3차년도 (2020년)	제4차년도 (2021년)	제5차년도 (2022년)	제6차년도 (2023년)	제7차년도 (2024년)		
유형 A	●	●	●	●	●	●	●	1,815	70.1
유형 B	●	●	●	●	●	●	○	160	6.2
유형 C	●	●	●	●	●	○	○	54	2.1
유형 D	●	●	●	●	○	○	○	55	2.1
유형 E	●	●	●	○	○	○	○	57	2.2
유형 F	●	●	○	○	○	○	○	49	1.9
유형 G	●	○	○	○	○	○	○	76	2.9
유형 H	●	●	●	○	●	●	○	10	0.4
유형 I	●	●	●	○	●	●	●	75	2.9
유형 J	●	○	●	●	●	●	●	37	1.4
유형 K	●	●	○	●	●	●	●	30	1.2
유형 L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69	2.7
유형 M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28	1.1
유형 N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47	1.8
유형 O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28	1.1
계								2,590	100.0

2)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응답 유형

KCYPS 2018 원패널의 보호자와 형제자매는 원패널의 조사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보호자는 원패널과의 1:1 매칭을 목표로, 형제자매는 조사 차수별 배당 인원을 목표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는 조사 여건상 원패널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주로 어머니²⁰⁾가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 제7차년도 조사 기준, 조사에 응답한 원패널 4,196명 중 보호자 조사로 어머니가 응답한 인원은 3,817명으로

제1차년도부터 제7차년도 조사까지 총 5,852명의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이는 원패널 수(5,197명)보다 다소 많다. 이는 일부 조사 차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대로 응답하거나, 동일 가구 내 응답자가 바뀌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응답 지속 패턴을 살펴보면, 7회 모두 동일인이 응답한 보호자는 3,170명(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6회 응답자는 906명(15.5%), 5회 391명(6.7%), 4회 269명(4.6%), 3회 255명(4.4%), 2회 329명(5.6%), 1회 532명(9.1%)으로 나타났다. 즉, KCYPS 2018 보호자 데이터는 동일 개체의 반복 응답이 누적된 형태로, 자녀의 성장 과정과 보호자의 사회·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축적된 패널데이터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조사 내용 또한 자녀의 발달 배경뿐 아니라 보호자 개인의 심리·정서, 건강, 미디어 이용, 직업 및 소득 등을 포함하여,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성인의 장기 추적형 조사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원패널과 보호자 조사 성공 시 추가로 진행되며 KCYPS 2018 제2차년도 조사부터 시작되었다. 형제자매 조사는 조사 참여의 불규칙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특정 연도에 응답했다가 이후에는 불참하거나, 반대로 이전에 불참했던 대상이 이후 조사에 응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2차년도부터 제7차년도까지 총 3,205명의 형제자매가 응답하였는데, 응답 지속 패턴을 보면 6회 모두 동일인이 응답한 형제자매는 562명(17.5%)으로 나타났고, 5회 457명(14.3%), 4회 501명(15.6%), 3회 517명(16.1%), 2회 397명(12.4%), 1회 771명(24.1%)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형제자매 데이터는 동일 개체의 반복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조사 내용이 원패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넓은 연령대를 포괄하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패널 보호자 조사가 세대 간 연결된 성인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지닌다면, 형제자매 조사는 가구 내 다자녀 발달 비교가 가능한 확장형 아동·청소년·청년 패널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응답 패널 대비 91.0%에 해당함.

표 III-10.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동일 개체 응답 유형

(단위: 명, %)

동일 개체 응답 횟수	원패널의 보호자(제1차~제6차)		원패널의 형제자매(제2차~제6차)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7회	3,170	54.2	-	-
6회	906	15.5	562	17.5
5회	391	6.7	457	14.3
4회	269	4.6	501	15.6
3회	255	4.4	517	16.1
2회	329	5.6	397	12.4
1회	532	9.1	771	24.1
계	5,852	100.0	3,205	100.0

3. 가중치 산출

제7차년도 조사 시점인 2024년 모집단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와 조사대상의 종단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초4 코호트

(1) 횡단면 가중치 (Cross-sectio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기본 가중치는 표본탈락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제1차년도 대비 응답률($2,123/2,607=81.4\%$)의 역수를 제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1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제1차년도 대비 응답률}}$$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는 해당 학생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2024년의 고등학생 1학년 기준).

$$\text{최종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123	56	1,697	210	446,297
남자	1,063	72	1,697	216	229,603
여자	1,060	56	808	204	216,694

표 III-12.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지역	가중치 부여 이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056	50.0%	1,054	50.0%	2,110	100.0%	228,569	51.4%	215,865	48.6%	444,434	100.0%
서울	164	49.5%	167	50.5%	331	15.7%	35,838	51.3%	33,986	48.7%	69,824	15.7%
부산	67	49.6%	68	50.4%	135	6.4%	12,477	51.3%	11,867	48.7%	24,344	5.5%
대구	44	47.3%	49	52.7%	93	4.4%	10,467	51.7%	9,789	48.3%	20,256	4.6%
인천	62	51.7%	58	48.3%	120	5.7%	13,093	50.8%	12,659	49.2%	25,752	5.8%
광주	34	45.9%	40	54.1%	74	3.5%	7,246	51.2%	6,900	48.8%	14,146	3.2%
대전	34	56.7%	26	43.3%	60	2.8%	6,948	52.2%	6,366	47.8%	13,314	3.0%
울산	17	37.8%	28	62.2%	45	2.1%	5,515	51.8%	5,140	48.2%	10,655	2.4%
세종	7	33.3%	14	66.7%	21	1.0%	2,443	48.4%	2,606	51.6%	5,049	1.1%
경기	275	48.8%	289	51.2%	564	26.7%	62,998	51.0%	60,591	49.0%	123,589	27.8%
강원	33	56.9%	25	43.1%	58	2.7%	6,380	51.8%	5,935	48.2%	12,315	2.8%
충북	37	49.3%	38	50.7%	75	3.6%	7,245	52.5%	6,562	47.5%	13,807	3.1%
충남	59	54.1%	50	45.9%	109	5.2%	10,585	51.8%	9,837	48.2%	20,422	4.6%
전북	46	52.3%	42	47.7%	88	4.2%	8,617	52.5%	7,804	47.5%	16,421	3.7%
전남	38	46.9%	43	53.1%	81	3.8%	7,913	51.3%	7,504	48.7%	15,417	3.5%
경북	62	57.9%	45	42.1%	107	5.1%	11,771	53.2%	10,356	46.8%	22,127	5.0%
경남	68	52.7%	61	47.3%	129	6.1%	15,770	51.5%	14,851	48.5%	30,621	6.9%
제주	9	45.0%	11	55.0%	20	0.9%	3,263	51.2%	3,112	48.8%	6,375	1.4%

* n=2,110 (학교밖 응답자 13명 제외)

(2) 종단면 가중치 (Longitudi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제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는 1, 2, 3, 4, 5, 6, 7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1,824명)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1차년도 대비 응답률 $1,824/2,607=70.0\%$).

제7차년도 가중치 산출을 위해서 6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7차년도 응답여부 변수를 이용한 적절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근거한 7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 추정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7차년도의 응답여부 변수를 응답의 경우 '1' 그리고 무응답의 경우 '0'을 갖는 이항변수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확률 예측방법을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에 앞서 주요 설명변수의 응답률 예측에 대한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설명변수에 대하여 7차년도 응답자와 무응답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자 그룹과 무응답자 그룹 간의 차이를 변수별로 분석하기 위해 근사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범주별 빈도수가 적어서 χ^2 -검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빈도수가 적은 범주를 묶은 후에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설명변수들의 동시적 예측력을 반영하며 동시에 최대우도 추정량의 유일성을 살피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변수선택 방법을 고려하였다. 변수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각 변수들의 추가 또는 제거 후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Wald의 적합도 검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alpha=0.15$).

다음 표는 변수선택 과정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7차년도 응답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시/도(학교 기준)'(ARA1Bw6)이다.

표 III-1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변수	자유도	Wald Chi-Square	p-value
ARA1Bw6	5	44.6015	<.0001

다음 표에는 응답확률 추정값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확률의 추정값은 대략 0.5~0.982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927과 0.042 정도이다.

표 III-14.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824	0.50000	0.98176	0.92655	0.04239

제7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제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에 응답확률 추정값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6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응답확률 추정값}}$$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사후층화 가중치)는 해당 학생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2024년의 고등학생 1학년 기준).

$$\text{사후층화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5. 제7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1,824	78	1,694	245	447,076
남자	910	84	1,694	253	230,494
여자	914	78	1,028	237	216,581

표 III-16. 제7차년도 종단면 초4 코호트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지역	가중치 부여 이전						종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903	49.8%	911	50.2%	1,814	100.0%	228,569	51.4%	215,865	48.6%	444,434	100.0%
서울	141	50.7%	137	49.3%	278	15.3%	35,838	51.3%	33,986	48.7%	69,824	15.7%
부산	66	50.0%	66	50.0%	132	7.3%	12,477	51.3%	11,867	48.7%	24,344	5.5%
대구	39	45.3%	47	54.7%	86	4.7%	10,467	51.7%	9,789	48.3%	20,256	4.6%
인천	52	51.5%	49	48.5%	101	5.6%	13,093	50.8%	12,659	49.2%	25,752	5.8%
광주	29	44.6%	36	55.4%	65	3.6%	7,246	51.2%	6,900	48.8%	14,146	3.2%
대전	32	58.2%	23	41.8%	55	3.0%	6,948	52.2%	6,366	47.8%	13,314	3.0%
울산	17	38.6%	27	61.4%	44	2.4%	5,515	51.8%	5,140	48.2%	10,655	2.4%
세종	5	26.3%	14	73.7%	19	1.0%	2,443	48.4%	2,606	51.6%	5,049	1.1%
경기	205	47.1%	230	52.9%	435	24.0%	62,998	51.0%	60,591	49.0%	123,589	27.8%
강원	30	60.0%	20	40.0%	50	2.8%	6,380	51.8%	5,935	48.2%	12,315	2.8%
충북	30	48.4%	32	51.6%	62	3.4%	7,245	52.5%	6,562	47.5%	13,807	3.1%
충남	49	52.7%	44	47.3%	93	5.1%	10,585	51.8%	9,837	48.2%	20,422	4.6%
전북	38	54.3%	32	45.7%	70	3.9%	8,617	52.5%	7,804	47.5%	16,421	3.7%
전남	37	47.4%	41	52.6%	78	4.3%	7,913	51.3%	7,504	48.7%	15,417	3.5%
경북	61	58.1%	44	41.9%	105	5.8%	11,771	53.2%	10,356	46.8%	22,127	5.0%
경남	64	52.0%	59	48.0%	123	6.8%	15,770	51.5%	14,851	48.5%	30,621	6.9%
제주	8	44.4%	10	55.6%	18	1.0%	3,263	51.2%	3,112	48.8%	6,375	1.4%

* n=1,814 (학교밖 응답자 10명 제외)

2) 중1 코호트

(1) 횡단면 가중치 (Cross-sectio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기본 가중치는 표본탈락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1차년도 대비 응답률(2,073/2,590=80.0%)의 역수를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1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제1차년도 대비 응답률}}$$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제7차년도에 경우 응답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 기준의 지역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차 년도에 해당 학생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최종 가중치 = 기본 가중치 × $\frac{\text{제1차년도 기준 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073	55	1,895	217	448,816
남자	1,101	66	1,122	211	232,698
여자	972	55	1,895	222	216,118

표 III-18.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지역	가중치 부여 이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101	53.1%	972	46.9%	2,073	100.0%	232,698	51.8%	216,118	48.2%	448,816	100.0%
서울	144	48.2%	155	51.8%	299	14.4%	37,444	51.9%	34,729	48.1%	72,173	16.1%
부산	67	56.8%	51	43.2%	118	5.7%	13,284	51.1%	12,721	48.9%	26,005	5.8%
대구	57	58.2%	41	41.8%	98	4.7%	10,854	51.3%	10,285	48.7%	21,138	4.7%
인천	85	54.5%	71	45.5%	156	7.5%	12,229	49.0%	12,728	51.0%	24,957	5.6%
광주	41	61.2%	26	38.8%	67	3.2%	7,914	52.4%	7,194	47.6%	15,108	3.4%
대전	45	75.0%	15	25.0%	60	2.9%	7,292	50.9%	7,038	49.1%	14,330	3.2%
울산	23	62.2%	14	37.8%	37	1.8%	5,811	53.6%	5,030	46.4%	10,841	2.4%
세종	19	47.5%	21	52.5%	40	1.9%	1,699	54.0%	1,446	46.0%	3,145	0.7%
경기	279	53.2%	245	46.8%	524	25.3%	64,266	51.9%	59,528	48.1%	123,794	27.6%
강원	26	68.4%	12	31.6%	38	1.8%	6,730	51.0%	6,472	49.0%	13,202	2.9%
충북	42	51.9%	39	48.1%	81	3.9%	7,314	53.6%	6,323	46.4%	13,637	3.0%
충남	53	58.9%	37	41.1%	90	4.3%	10,015	52.4%	9,109	47.6%	19,124	4.3%
전북	50	45.9%	59	54.1%	109	5.3%	8,842	51.7%	8,259	48.3%	17,101	3.8%
전남	34	47.2%	38	52.8%	72	3.5%	8,272	51.8%	7,698	48.2%	15,970	3.6%
경북	53	47.3%	59	52.7%	112	5.4%	11,576	53.0%	10,285	47.0%	21,861	4.9%
경남	69	46.0%	81	54.0%	150	7.2%	15,614	52.3%	14,264	47.7%	29,878	6.7%
제주	14	63.6%	8	36.4%	22	1.1%	3,544	54.1%	3,009	45.9%	6,553	1.5%

* 거주지 기준

(2) 종단면 가중치 (Longitudi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제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는 1, 2, 3, 4, 5, 6, 7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1,815명)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1차년도 대비 응답률 $1,815/2,590=70.1\%$).

제7차년도 가중치 산출을 위해서 제5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제6차년도 응답여부 변수를 이용한 적절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근거한 제6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 추정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제6차년도의 응답여부 변수를 응답의 경우 '1' 그리고 무응답의 경우 '0'을 갖는 이항변수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확률 예측방법을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에 앞서 주요 설명변수의 응답률 예측에 대한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설명변수에 대하여 제6차년도 응답자와 무응답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자 그룹과 무응답자 그룹 간의 차이를 변수별로 분석하기 위해 근사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범주별 빈도수가 적어서 χ^2 -검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빈도수가 적은 범주를 묶은 후에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설명변수들의 동시적 예측력을 반영하며 동시에 최대우도 추정량의 유일성을 살피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변수선택 방법을 고려하였다. 변수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각 변수들의 추가 또는 제거 후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Wald의 적합도 검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alpha=0.15$).

제7차년도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선택된 변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7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제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6차년도 가중치}$$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제7차년도의 경우 응답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 기준의 지역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차년도에 해당 학생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제1차년도 기준 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9.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1,815	62	2,469	247	448,816
남자	961	62	1,308	242	232,698
여자	854	66	2,469	253	216,118

표 III-20. 제7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지역	가중치 부여 이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961	52.9%	854	47.1%	1,815	100.0%	232,698	51.8%	216,118	48.2%	448,816	100.0%
서울	117	46.8%	133	53.2%	250	13.8%	37,023	51.6%	34,724	48.4%	71,747	16.0%
부산	66	57.9%	48	42.1%	114	6.3%	13,286	51.1%	12,723	48.9%	26,009	5.8%
대구	55	57.9%	40	42.1%	95	5.2%	11,173	52.0%	10,322	48.0%	21,495	4.8%
인천	74	52.9%	66	47.1%	140	7.7%	12,519	49.8%	12,636	50.2%	25,155	5.6%
광주	38	63.3%	22	36.7%	60	3.3%	7,914	52.5%	7,166	47.5%	15,080	3.4%
대전	43	78.2%	12	21.8%	55	3.0%	7,382	51.2%	7,038	48.8%	14,420	3.2%
울산	22	61.1%	14	38.9%	36	2.0%	5,843	53.7%	5,030	46.3%	10,873	2.4%
경기	19	52.8%	17	47.2%	36	2.0%	1,605	53.1%	1,421	46.9%	3,026	0.7%
강원	217	52.7%	195	47.3%	412	22.7%	64,557	52.1%	59,290	47.9%	123,847	27.6%
충북	21	65.6%	11	34.4%	32	1.8%	6,580	49.0%	6,844	51.0%	13,423	3.0%
충남	40	50.6%	39	49.4%	79	4.4%	7,314	53.5%	6,346	46.5%	13,660	3.0%
전북	43	60.6%	28	39.4%	71	3.9%	9,751	51.8%	9,073	48.2%	18,824	4.2%
전남	45	45.0%	55	55.0%	100	5.5%	8,842	51.7%	8,259	48.3%	17,101	3.8%
경북	32	47.1%	36	52.9%	68	3.7%	8,272	51.7%	7,726	48.3%	15,998	3.6%
경남	48	45.7%	57	54.3%	105	5.8%	11,227	52.3%	10,250	47.7%	21,477	4.8%
제주	67	46.9%	76	53.1%	143	7.9%	15,859	52.6%	14,262	47.4%	30,121	6.7%

* 거주지 기준

4. 주요 조사 결과²¹⁾²²⁾

1) 기본 모듈

KCYPS 2018 제7차년도 기본 모듈의 주요 조사 결과를 조사영역(대영역-중영역-소영역)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년도 조사에서 대영역은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발달 영역은 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 발달, 비행, 신체발달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환경 영역은 매체, 활동·문화 환경, 학교, 가정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년도 조사의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결과는 승인통계 통계공표 기준에 따라 조사기준연도 익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요 조사 결과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1) 개인발달 - 생활시간 - 하루일과

평일 및 주말의 평균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초4 코호트는 (평일) 6.94시간, (주말) 8.53시간, 중1 코호트는 (평일) 7.43시간, (주말) 8.70시간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또는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의 수면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 < 0.01$). 반면, 수면의 질(평일·주말)은 두 코호트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평일의 경우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p < 0.01$).

초4 코호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일 수면시간이 약 0.1시간(약 6분) 더 길고, 수면의 질 또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그러나 주말의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1 코호트의 경우 평일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말 수면시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0.2시간(약 12분) 더 길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주말 수면의 질은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1) 주요 조사 결과에 사용한 관측치 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통계량(t)는 제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성별 부분집합 관측치 n은 실제 성별 조사완료 총수와 다를 수 있음.

22)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문항 중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ex. 자아존중감 10문항 중 4문항, 스마트폰 의존도 15문항 중 3문항 등)에 대해서는 역코딩하여 결과값을 산출함.

요약하면, 성인기로 이행한 중1 코호트는 청소년기(고1)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전반적으로 수면시간이 더 길었으나, 수면의 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 차이는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이, 중1 코호트에서는 여학생이 다소 긴 수면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평균/주말)

구분	n	수면시간(평일)		수면의 질(평일)		수면시간(주말)		수면의 질(주말)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7.18	1.14	3.00	0.64	8.61	1.40	3.26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6.94	1.04	2.95	0.66	8.53	1.37	3.26	0.57
중1 코호트	2,073	7.43	1.19	3.06	0.62	8.70	1.42	3.26	0.57
<i>t</i>		-14.145***		-5.696***		-3.938***		0.527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7.00	1.01	2.98	0.65	8.50	1.33	3.27	0.56
여자	1,031	6.88	1.07	2.91	0.68	8.57	1.41	3.26	0.58
<i>t</i>		2.540**		2.270**		-1.232		0.161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7.41	1.16	3.07	0.61	8.61	1.44	3.25	0.56
여자	998	7.45	1.21	3.05	0.63	8.80	1.40	3.27	0.58
<i>t</i>		-0.732		0.440		-3.166***		-0.786	

*** p<0.01, ** p<0.05, * p<0.1

(2) 개인발달 - 지적발달 - 학업태도

학업태도는 크게 학업 열의와 학업 무기력으로 구성된다. 먼저 학업 열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4 코호트의 평균은 2.40점, 중1 코호트의 평균은 2.49점으로, 중1 코호트의 학업 열의 수준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이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중1 코호트가 새로운 학업 환경 속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중1 코호트의 경우 대학에 진학한 응답자에 한해서만 학업 열의 문항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중1 코호트 전체가 아닌 대학 진학 집단의 학업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헌신(초4 코호트 2.74점 → 중1 코호트 2.80점), 활기(2.33점 → 2.44점), 효능감(2.28점

→ 2.37점), 몰두(2.35점 → 2.42점)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코호트별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학업 열의(전체) 및 하위요인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1 코호트에서는 여학생의 학업 열의(전체)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특히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등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p<0.1\sim0.05$ 수준).

다음으로 학업 무기력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초4 코호트 2.07점, 중1 코호트 1.97점으로, 중1 코호트의 학업 무기력 수준이 초4 코호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 즉,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대학생으로 조사된 중1 코호트가 학업과 관련된 무기력감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역시 중1 코호트의 경우 대학에 진학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문항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업 무기력 결과 또한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통제신념 결여(초4 2.11점 → 중1 2.03점), 학습동기 결여(2.08점 → 1.96점), 긍정정서 결여(2.06점 → 1.97점), 능동수행 결여(2.02점 → 1.91점) 등 모든 요인에서 중1 코호트의 점수가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1$).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학업 무기력(전체)에서 유의한 성차는 없었으나, 능동수행 결여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중1 코호트에서는 전체 학업 무기력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p<0.05$), 긍정정서 결여와 능동수행 결여 등 일부 하위요인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1\sim0.01$).

요약하면, 조사 시점 고등학교 1학년인 초4 코호트보다 대학 진학 집단으로 구성된 중1 코호트가 학업 열의는 높고 학업 무기력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 열의가 높고 학업 무기력은 낮은 경향을 보여, 성별 간 학업태도의 일관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I-22. 학업 열의

구분	n	학업열의(전체)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74	2.44	0.48	2.76	0.55	2.38	0.58	2.32	0.57	2.38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40	0.48	2.74	0.54	2.33	0.57	2.28	0.58	2.35	0.56
중1 코호트	1,551	2.49	0.49	2.80	0.55	2.44	0.58	2.37	0.56	2.42	0.57
<i>t</i>		-5.225***		-3.337***		-5.872***		-4.725***		-3.490***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40	0.48	2.73	0.53	2.34	0.57	2.29	0.57	2.34	0.56
여자	1,031	2.41	0.48	2.75	0.55	2.33	0.57	2.27	0.58	2.36	0.57
<i>t</i>		-0.093		-0.807		0.408		0.474		-0.839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787	2.46	0.52	2.77	0.56	2.41	0.62	2.35	0.60	2.39	0.59
여자	764	2.51	0.45	2.82	0.55	2.48	0.54	2.39	0.52	2.45	0.55
<i>t</i>		-2.116**		-1.680*		-2.272**		-1.105		-2.210**	

*** p<0.01, ** p<0.05, * p<0.1

표 III-23. 학업 무기력

구분	n	학업무기력 (전체)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74	2.03	0.48	2.08	0.55	2.03	0.56	2.02	0.54	1.98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7	0.48	2.11	0.55	2.08	0.56	2.06	0.54	2.02	0.58
중1 코호트	1,551	1.97	0.47	2.03	0.55	1.96	0.55	1.97	0.53	1.91	0.55
<i>t</i>		6.524***		4.219***		6.890***		5.069***		5.678***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07	0.49	2.10	0.56	2.08	0.57	2.06	0.56	2.05	0.58
여자	1,031	2.07	0.47	2.12	0.53	2.08	0.55	2.05	0.53	2.00	0.57
<i>t</i>		0.362		-0.554		-0.217		0.282		1.975**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787	1.99	0.48	2.05	0.55	1.98	0.57	1.98	0.52	1.96	0.56
여자	764	1.94	0.46	2.02	0.54	1.93	0.54	1.95	0.53	1.87	0.54
<i>t</i>		2.190**		1.243		1.710*		1.157		3.255***	

*** p<0.01, ** p<0.05, * p<0.1

(3) 개인발달 - 진로 -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은 KCYPs 2018의 두 코호트가 각각 학교급이 처음 전환되는 제4차년도(2021년) 조사부터 기본 모듈에 포함된 영역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적응력의 측정 문항은 부정적 진술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다는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진로적응력(전체) 평균은 초4 코호트 2.72점, 중1 코호트 2.89점으로 나타나, 중1 코호트의 진로적응력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이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진로 관심(초4 코호트 2.74점 → 중1 코호트 2.88점), 진로 호기심(2.69점 → 2.88점), 진로 자신감(2.73점 → 2.91점) 모두 중1 코호트의 평균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진로적응력(전체)과 하위요인 모두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각각 2.73점, 2.71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중1 코호트 역시 진로적응력 전체 및 하위요인(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모두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기 초기 집단에서는 진로적응력 수준이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조사 시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의 진로적응력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진로적응력의 세부 요인(관심·호기심·자신감)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 코호트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진로적응력은 성별보다는 발달 단계와 경험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4. 진로적응력

구분	n	진로적응력(전체)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80	0.54	2.81	0.61	2.79	0.59	2.82	0.59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72	0.54	2.74	0.62	2.69	0.58	2.73	0.59
중1 코호트	2,073	2.89	0.52	2.88	0.59	2.88	0.58	2.91	0.56
<i>t</i>		-10.473***		-7.968***		-10.357***		-9.653***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73	0.54	2.75	0.62	2.70	0.59	2.75	0.58
여자	1,031	2.71	0.54	2.73	0.62	2.69	0.57	2.72	0.61
<i>t</i>		0.904		0.722		0.627		1.070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89	0.54	2.88	0.61	2.88	0.60	2.90	0.58
여자	998	2.89	0.50	2.89	0.56	2.88	0.56	2.91	0.55
<i>t</i>		-0.294		-0.185		-0.198		-0.393	

*** $p < 0.01$, ** $p < 0.05$, * $p < 0.1$

(4)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정서/역량 발달 중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2.55점, 행복감은 2.98점, 자아존중감은 2.88점으로 나타났다. 코호트별 비교에서는 삶의 만족도(초4 코호트 2.57점 → 중1 코호트 2.54점)와 행복감(초4 코호트 2.99점 → 중1 코호트 2.96점)이 모두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 < 0.05 \sim 0.01$).

반면 자아존중감(초4 코호트 2.88점, 중1 코호트 2.88점)은 코호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대학 진학 또는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보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초4 코호트의 성별 차이를 보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학생(2.90점)이 여학생(2.8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1 코호트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2.56점 vs. 2.51점)와 행복감(2.98점 vs. 2.93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sim0.01$).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초4 코호트(고등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중1 코호트(성인기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초4),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중1)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발달 단계가 성인기로 이행되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다소 감소하고, 동시에 성별에 따른 정서적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5.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구분	n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M	SD	M	SD	M	SD
전체	4,196	2.55	0.50	2.98	0.37	2.88	0.42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57	0.50	2.99	0.38	2.88	0.42
중1 코호트	2,073	2.54	0.50	2.96	0.36	2.88	0.42
<i>t</i>		1.980**		3.163***		-0.678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59	0.48	3.01	0.38	2.90	0.42
여자	1,031	2.55	0.51	2.98	0.37	2.85	0.42
<i>t</i>		1.939*		1.507		2.810***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56	0.49	2.98	0.37	2.90	0.44
여자	998	2.51	0.50	2.93	0.35	2.87	0.40
<i>t</i>		2.026**		3.305***		1.921*	

*** $p<0.01$, ** $p<0.05$, * $p<0.1$

(5)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정서문제

정서문제는 총 5개의 하위요인(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주의집중(2.04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2.03점), 신체증상(1.82점), 공격성(1.81점), 우울(1.7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외현적 행동 문제보다 내면적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나 주의 집중 관련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주의집중(초4 코호트 2.08점 → 중1 코호트 1.99점)과 공격성(1.86점 → 1.77점)에서는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반면, 신체증상(초4 코호트 1.85점 → 중1 코호트 1.78점), 사회적 위축(2.05점 → 2.00점), 우울(1.77점 → 1.72점)은 모두 초4 코호트가 더 높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보다 정서적 불안정과 내적 긴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코호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고 성인기에 진입할수록 정서적 문제 수준이 완화된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주의집중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이는 여학생이 내면화된 정서 문제를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남학생의 경우 주의집중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1 코호트에서도 유사한 성별 차이 양상이 나타났다. 남학생은 주의집중(남학생 2.01점, 여학생 1.97점)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반대로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은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이는 성인기에 진입하더라도 남학생은 외현적·주의집중 관련 문제를, 여학생은 내면적 정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정서문제는 전반적으로 초4 코호트(고등학교 1학년)에서 더 높고, 성별로는 남학생은 주의집중, 여학생은 신체증상·우울 등 내면화된 정서문제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른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정서 표현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III-26. 정서문제

구분	n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04	0.54	1.81	0.54	1.82	0.54	2.03	0.66	1.74	0.5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8	0.54	1.86	0.54	1.85	0.53	2.05	0.65	1.77	0.53
중1 코호트	2,073	1.99	0.53	1.77	0.54	1.78	0.54	2.00	0.66	1.72	0.52
t		5.611***		5.560***		4.119***		2.266***		2.928***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10	0.53	1.85	0.54	1.82	0.53	2.01	0.65	1.72	0.52
여자	1,031	2.06	0.54	1.86	0.54	1.89	0.53	2.09	0.66	1.82	0.54
t		1.486		-0.438		-3.064***		-2.840***		-4.441***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01	0.55	1.73	0.53	1.73	0.51	1.97	0.64	1.68	0.50
여자	998	1.97	0.51	1.80	0.54	1.84	0.58	2.04	0.67	1.77	0.54
t		1.902*		-2.749***		-4.262***		-2.554***		-4.021***	

*** $p < 0.01$, ** $p < 0.05$, * $p < 0.1$

(6)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협동의식

사회/정서/역량 발달 중영역 중 협동의식 소영역은 협동심으로 측정되며, 이는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협동심(전체) 평균은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팔로워십(2.8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갈등문제해결(2.79점), 집단축진(2.76점) 순이었다. 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협동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태도보다, 집단 내 협력과 역할 수행에 비교적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협동심(전체)은 초4 코호트(2.79점)와 중1 코호트(2.79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별로도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모두 두 코호트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협동 관련 역량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발달 단계가 달라지더라도 또래 협동 및 집단 내 관계 조절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반영한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협동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 팔로워십에서 유의한 차이($p<0.1$)가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이 집단 내 관계 조화를 중시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1 코호트에서는 남녀 간 협동심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기에 진입한 이후에는 성별에 따른 협동 관련 태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협동심은 코호트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별 차이는 초4 코호트(고1 시기)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 내 협력과 조화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나, 성인지 초기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성별 차이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III-27. 협동심

구분	n	협동심(전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79	0.53	2.76	0.55	2.84	0.64	2.79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79	0.52	2.76	0.54	2.85	0.62	2.78	0.56
중1 코호트	2,073	2.79	0.54	2.75	0.56	2.84	0.65	2.80	0.58
<i>t</i>		-0.222		0.214		0.365		-1.073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77	0.52	2.74	0.54	2.83	0.61	2.76	0.54
여자	1,031	2.80	0.53	2.77	0.54	2.87	0.64	2.80	0.58
<i>t</i>		-1.631		-1.372		-1.774*		-1.495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79	0.52	2.76	0.54	2.83	0.63	2.81	0.56
여자	998	2.79	0.57	2.75	0.58	2.85	0.67	2.79	0.61
<i>t</i>		0.169		0.182		-0.728		0.718	

*** $p<0.01$, ** $p<0.05$, * $p<0.1$

(7)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창의성, 끈기

사회/정서/역량 발달 중영역 중 창의성은 창의적 성격을 통해, 끈기는 그릿(Grit)을 통해 측정되었다. 두 변인은 개인의 자기조절력, 목표지속성,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다. 조사 결과, 창의적 성격의 전체 평균은 2.63점, 그릿(Grit)

의 전체 평균은 2.46점으로 나타났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성격은 초4 코호트가 2.55점, 중1 코호트가 2.71점으로, 중1 코호트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 그릿의 경우 초4 코호트가 2.47점, 중1 코호트가 2.45점으로 두 코호트 간 차이는 매우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와 성인기 초입(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는 창의성과 끈기 모두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1$). 반면, 중1 코호트에서는 창의적 성격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릿(Grit)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종합하면, 창의성과 끈기 모두 코호트 간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성별로는 일부(특히 중1 코호트의 그릿)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두 역량이 성장 단계보다는 개인의 성향적 특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인지적 특성임을 시사한다.

표 III-28. 창의적 성격, 그릿(Grit)

구분	n	창의적 성격		그릿(Grit)	
		M	SD	M	SD
전체	4,196	0.98	2.63	2.46	0.3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1.03	2.55	2.47	0.35
중1 코호트	2,073	0.93	2.71	2.45	0.36
<i>t</i>		1.175		2.620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1.05	2.55	2.47	0.35
여자	1,031	1.00	2.55	2.48	0.35
<i>t</i>		0.396		-0.303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0.95	2.77	2.47	0.36
여자	998	0.91	2.65	2.43	0.35
<i>t</i>		0.319		2.586***	

*** $p<0.01$, ** $p<0.05$, * $p<0.1$

(8) 개인발달 - 비행 -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비행 중영역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두 영역 모두 지난 1년간 해당 행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를 '경험 있음(1)',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없음(0)'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0과 1로 구성된 이분형 변수를 대상으로 횡단가중치를 적용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사용하여 코호트 및 성별 간 통계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코호트별로 보면, 현실비행의 경우 중1 코호트(0.56)가 초4 코호트(0.14)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반면, 사이버비행의 경우 초4 코호트(0.17)와 중1 코호트(0.19)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성인기 초입(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에서 현실비행 경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사이버비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실비행 및 사이버비행 경험 비율이 높았다. 초4 코호트의 경우 현실비행은 남학생 16%, 여학생 11%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사이버비행 역시 남학생 18%, 여학생 16%로 남학생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p<0.1$). 중1 코호트에서도 이러한 성별 격차가 더욱 뚜렷해져, 현실비행은 남학생 61%, 여학생 50%, 사이버비행은 남학생 22%, 여학생 16%로 모두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성별에 따른 비행 양상의 분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즉,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에서는 남학생이 현실적·행동적 비행에 더 많이 관여하고,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공간 중심의 제한된 비행 형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9. 현실비행 및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

구분	n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M	SD	M	SD
전체	4,196	0.34	0.48	0.18	0.38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0.14	0.34	0.17	0.38
중1 코호트	2,073	0.56	0.50	0.19	0.39
<i>t</i>		-31.836***		-1.486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0.16	0.37	0.18	0.39
여자	1,031	0.11	0.32	0.16	0.36
<i>t</i>		3.067***		1.780*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0.61	0.49	0.22	0.41
여자	998	0.50	0.50	0.16	0.36
<i>t</i>		5.042***		3.678***	

*** $p<0.01$, ** $p<0.05$, * $p<0.1$

(9) 개인발달 - 신체발달 - 건강, 신체

신체발달 중영역 중 건강, 신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초4 코호트(2.27점)가 중1 코호트(2.21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성인기 초입(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약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두 코호트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상태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p<0.01$). 초4 코호트의 경우 남학생(2.55점)이 여학생(1.97점)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고, 중1 코호트 역시 남학생(2.49점)이 여학생(1.9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해 더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전체 평균이 3.83회로 나타났으며, 초4 코호트(4.11회)가 중1 코호트(3.54회)보다 약 0.6회 더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즉, 학교생활의 규칙성이 유지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초4 코호트)가 성인기 초입(중1 코호트)보다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더 규칙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4.17회)이 여학생(4.06회)보다 아침식사 횟수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1$), 중1 코호트에서는 남학생(3.63회)이 여학생(3.44회)보다 다소 많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식사 횟수나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체질량지수(BMI)는 초4 코호트(21.13)보다 중1 코호트(21.72)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 성별로도 두 코호트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BMI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는 성장 단계의 차이뿐 아니라, 남학생의 근육량 증가나 체중 변화가 여학생보다 두드러지는 후기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초4 코호트가 전반적으로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식사습관이 규칙적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 자각수준과 BMI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0. 건강 및 신체

구분	n	건강상태 평가		아침식사 횟수		BMI	
		M	SD	M	SD	M	SD
전체	4,196	2.24	1.24	3.83	2.12	21.42	2.91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27	1.21	4.11	2.04	21.13	2.87
중1 코호트	2,073	2.21	1.26	3.54	2.16	21.72	2.92
<i>t</i>		1.636		8.895***		-6.591***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55	1.26	4.17	2.07	21.69	3.07
여자	1,031	1.97	1.08	4.06	2.01	20.53	2.51
<i>t</i>		11.155***		1.289		9.538***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49	1.37	3.63	2.26	22.65	2.93
여자	998	1.90	1.06	3.44	2.05	20.71	2.55
<i>t</i>		10.971***		1.971**		15.978***	

주) BMI(Body Mass Index): 체중(kg) / [신장(m)]²

*** $p<0.01$, ** $p<0.05$, * $p<0.1$

(10) 발달환경 - 매체 - 스마트폰

발달환경 대영역 중 매체 중영역, 스마트폰 소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²³⁾를 측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전체 평균은 2.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성(2.36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상생활 장애(2.17점), 금단(2.08점), 가상세계 지향성(1.8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용 내성’과 일상생활 방해 요인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별로 보면, 초4 코호트(2.20점)가 중1 코호트(2.10점)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하위요인(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성인기 초입(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보다 스마트폰 사용 의존 수준이 더 높다($p < 0.01$)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후기의 학업 및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여전히 생활 전반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금단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이는 남학생이 스마트폰 이용 제한 시 불편감이나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경향과 관련된다. 다만, 전체 의존도와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0.1$). 한편, 중1 코호트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는 미미했다.

종합하면, 스마트폰 의존도는 초4 코호트에서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내성과 일상생활 장애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p < 0.01$). 성별 차이는 고등학교 1학년(초4 코호트)에서 금단 요인에 한해 일부 관찰되지만, 성인기 초입(중1 코호트)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양상을 보여, 스마트폰 의존의 성별 격차가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완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3)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 3점 이상은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III-31. 스마트폰 의존도

구분	n	스마트폰 의존도(전체)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82	2.15	0.42	2.17	0.51	1.86	0.60	2.08	0.52	2.36	0.5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13	2.20	0.42	2.25	0.51	1.89	0.60	2.10	0.52	2.39	0.56
중1 코호트	2,070	2.10	0.42	2.08	0.49	1.83	0.60	2.06	0.52	2.32	0.53
<i>t</i>		7.677***		11.380***		3.313***		2.933***		4.566***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84	2.20	0.43	2.25	0.51	1.90	0.60	2.13	0.51	2.38	0.55
여자	1,029	2.20	0.42	2.26	0.52	1.88	0.60	2.08	0.52	2.41	0.57
<i>t</i>		0.186		-0.331		0.511		2.327**		-1.514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3	2.11	0.44	2.09	0.51	1.84	0.62	2.07	0.52	2.30	0.54
여자	997	2.10	0.40	2.07	0.47	1.82	0.59	2.04	0.51	2.34	0.52
<i>t</i>		0.335		1.054		0.616		1.011		-1.548	

*** $p < 0.01$, ** $p < 0.05$, * $p < 0.1$

(11) 발달환경 - 학교 - 학교생활

발달환경 대영역 중 학교 중영역, 학교생활 소영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개인발달 영역의 주관적 성적 수준과 학교성적 만족도가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세 항목 모두에서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성인기 초입(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보다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관적 성적 수준은 초4 코호트 3.19점, 중1 코호트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 만족도(초4 코호트: 3.15점, 중1 코호트: 3.46점), 학교생활 만족도(초4 코호트: 3.61점, 중1 코호트: 3.74점)에서도 모두 중1 코호트가 다소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1 코호트의 경우 본 문항은 대학 진학자에 한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 코호트 내의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중1 코호트의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대학생 집단의 표집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모두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1$). 반면, 중1 코호트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p<0.05$)을 보여, 성인 초입기에 해당하는 남학생이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만족감을 갖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학교 관련 인식과 만족도는 초4 코호트보다 중1 코호트(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1학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단계의 변화뿐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교급 전환(중등교육 → 고등교육)에서 오는 자율성 확대가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 -32.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M	SD	M	SD	M	SD
전체	3.30	0.74	3.28	0.81	3.67	0.7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3.19	0.72	3.15	0.81	3.61	0.74
중1 코호트	3.46	0.74	3.46	0.77	3.74	0.71
<i>t</i>	-10.743***		-11.621***		-5.409***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3.17	0.70	3.14	0.78	3.61	0.73
여자	3.21	0.74	3.16	0.84	3.61	0.75
<i>t</i>	-1.202		-0.616		0.080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3.44	0.76	3.46	0.79	3.79	0.72
여자	3.47	0.72	3.45	0.76	3.70	0.70
<i>t</i>	-0.797		0.357		2.436**	

주)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응답 중 '잘 모르겠음'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n: 전체(주관적 성적 수준 - 3,599 / 학교성적 만족도 - 3,633 / 학교생활 만족도 - 3,651)
 초4 코호트(주관적 성적 수준 - 2,098 / 학교성적 만족도 - 2,102 / 학교생활 만족도 - 2,110)
 초4 코호트 남자(주관적 성적 수준 - 1,078 / 학교성적 만족도 - 1,076 / 학교생활 만족도 - 1,082)
 초4 코호트 여자(주관적 성적 수준 - 1,020 / 학교성적 만족도 - 1,026 / 학교생활 만족도 - 1,028)
 중1 코호트(주관적 성적 수준 - 1,500 / 학교성적 만족도 - 1,531 / 학교생활 만족도 - 1,541)
 중1 코호트 남자(주관적 성적 수준 - 759 / 학교성적 만족도 - 774 / 학교생활 만족도 - 779)
 중1 코호트 여자(주관적 성적 수준 - 742 / 학교성적 만족도 - 757 / 학교생활 만족도 - 763)

*** $p<0.01$, ** $p<0.05$, * $p<0.1$

(12) 발달환경 - 학교 - 친구

친구관계는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관계는 역코딩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질이 양호

함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전체 친구관계 평균은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 관계 2.91점, 부정적 관계(역코딩 후) 3.14점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별로 보면, 중1 코호트(3.02점)가 초4 코호트(2.99점)보다 친구관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특히 부정적 관계($p<0.01$)에서 중1 코호트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성인기 초입(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가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초4 코호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친구관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이는 여학생이 친구 간 정서적 교류, 협력, 공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1 코호트에서는 친구관계 전반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1$).

요약하면, 친구관계는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초4 코호트에서는 여학생의 친구관계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후기(고등학교 시기)에는 성별에 따른 관계 성향 차이가 뚜렷하지만, 성인기 초입(대학 시기)으로 이행하면서 남녀 모두 관계의 질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표 III-33. 친구관계

구분	n	친구관계(전체)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M	SD	M	SD	M	SD
전체	4,196	3.00	0.41	2.91	0.51	3.14	0.5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99	0.39	2.92	0.49	3.10	0.54
중1 코호트	2,073	3.02	0.42	2.91	0.54	3.19	0.57
t		-2.355**		0.394		-5.089***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97	0.38	2.90	0.49	3.09	0.56
여자	1,031	3.00	0.40	2.93	0.48	3.12	0.52
t		-1.742*		-1.472		-1.144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3.01	0.41	2.89	0.53	3.20	0.56
여자	998	3.03	0.44	2.93	0.54	3.18	0.57
t		-0.916		-1.547		0.562	

*** $p<0.01$, ** $p<0.05$, * $p<0.1$

(13) 발달환경 - 학교 - 교사

교사관계는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초4 코호트의 교사관계 전체 평균은 2.6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수용성(2.71점)이 가장 높고, 신뢰성(2.68점), 민감성(2.67점), 접근가능성(2.5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의 이해와 수용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1 코호트는 조사 시점에서 이미 대부분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1학년)에 해당하므로, 교사관계 관련 문항은 성인용 조사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패널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관계로 중등용 조사표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례수가 제한적²⁴⁾이어서 본 주요 조사 결과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초4 코호트 내 성별 비교 결과, 남학생(2.66점)과 여학생(2.64점) 간 교사관계 전체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민감성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p<0.1$)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이 교사의 관심이나 반응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교사관계는 조사 시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부 하위요인(민감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34. 교사관계

구분	n	교사관계(전체)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초4 코호트)	2,123	2.65	0.49	2.52	0.55	2.67	0.54	2.68	0.57	2.71	0.58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66	0.49	2.53	0.55	2.69	0.53	2.69	0.57	2.71	0.58
여자	1,031	2.64	0.49	2.51	0.55	2.65	0.55	2.68	0.56	2.71	0.58
<i>t</i>		0.809		0.562		1.877*		0.297		-0.054	

*** $p<0.01$, ** $p<0.05$, * $p<0.1$

24) 가중치 적용 전 40개 사례.

(14) 발달환경 - 가정 - 양육태도

가정의 양육태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으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밀관성)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이거나 불안정한 관계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sim 0.01$). 즉,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가,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보다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의 차이라기보다, 자녀가 부모를 인식하는 관계적 거리감이 성인기에 가까워질수록 완화되거나 객관화되는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초4 코호트는 따스함(3.10점), 자율성지지(2.97점), 구조제공(2.74점) 등 긍정적 양육요인에서 모두 중1 코호트(각각 3.06점, 2.96점, 2.7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1.95점), 강요(2.18점), 비밀관성(2.07점) 등 부정적 양육요인 역시 중1 코호트(각각 1.84점, 2.05점, 1.96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sim 0.01$). 즉, 초4 코호트는 긍정적·부정적 양육 행동 모두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강요 요인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1$), 이는 남학생이 부모의 기대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1 코호트에서는 거부($p < 0.1$)와 구조제공($p < 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부모의 거부적 행동을 다소 낮게, 구조제공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하면, 초4 코호트는 중1 코호트보다 부모와의 관계성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일부 요인에서 남학생이 부모의 통제나 기대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밀접하지만,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밀도가 완화되는 발달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5. 양육태도

구분	n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3.08	0.59	1.90	0.60	2.96	0.63	2.12	0.55	2.73	0.58	2.02	0.5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3.10	0.59	1.95	0.63	2.97	0.61	2.18	0.56	2.74	0.56	2.07	0.56
중1 코호트	2,073	3.06	0.60	1.84	0.57	2.96	0.64	2.05	0.54	2.72	0.60	1.96	0.54
<i>t</i>		2.448**		6.098**		0.323***		7.266***		1.332		6.379***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3.11	0.59	1.95	0.64	2.97	0.60	2.15	0.57	2.73	0.58	2.06	0.56
여자	1,031	3.10	0.58	1.96	0.62	2.97	0.63	2.20	0.54	2.75	0.55	2.09	0.56
<i>t</i>		0.428		-0.647		-0.087		-1.937*		-0.854		-1.272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3.06	0.59	1.82	0.58	2.97	0.62	2.07	0.55	2.75	0.59	1.96	0.54
여자	998	3.05	0.61	1.87	0.56	2.95	0.66	2.04	0.53	2.68	0.61	1.96	0.54
<i>t</i>		0.516		-1.953*		0.830		1.234		2.673***		-0.003	

*** p<0.01, ** p<0.05, * p<0.1

2) 스페셜 모듈

KCYPS 2018의 제7차년도 스페셜 모듈²⁵⁾로 구성된 결혼관/출산관, 시간 선호, 용서하는 성향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5년부터 기본모듈로 포함된 결혼관/출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통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의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스페셜 모듈 - 결혼관

결혼관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단계로 측정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2.0%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하여 결혼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36.0%), ‘하지 않는 것이 좋다’(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하여 대체로 결혼을 필수적 규범이 아닌 선택 가능한

25) 스페셜 모듈 구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참조.

가치로 보는 태도가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코호트별로 보면,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4.4%)와 ‘하는 것이 좋다’(33.4%)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는 ‘하는 것이 좋다’(38.6%)의 비율이 더 높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9.5%)의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두 코호트 간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97, 16635.23)=2.41, p<0.05$). 이는 성인기에 접어들며 결혼에 대해 다소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이 ‘하는 것이 좋다’(38.4%)와 ‘반드시 해야 한다’(3.7%)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각각 28.0%, 1.7%)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11.0%) 및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8.2%)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F(3.99, 8476.55)=8.77, p<0.01$).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결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남학생은 ‘하는 것이 좋다’(41.5%)와 ‘반드시 해야 한다’(3.7%)의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10.2%) 및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1.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7, 8234.79)=4.31, p<0.01$).

종합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할 수도 있는 일’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청소년기 후반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결혼관

구분	n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전체	4,196	33	0.8	355	8.5	2,181	52.0	1,509	36.0	118	2.8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	1.0	180	8.5	1,156	54.4	709	33.4	58	2.7
중1 코호트	2,073	13	0.6	175	8.4	1,025	49.5	800	38.6	60	2.9
<i>F</i>							2.407**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10	0.9	66	6.1	556	50.9	420	38.4	41	3.7
여자	1,031	11	1.0	114	11.0	600	58.2	289	28.0	17	1.7
<i>F</i>							8.767***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3	0.3	73	6.8	513	47.7	446	41.5	40	3.7
여자	998	10	1.0	102	10.2	513	51.4	354	35.4	20	2.0
<i>F</i>							4.305***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2) 스페셜 모듈 - 출산관

출산관은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단계로 측정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하여, 출산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낳는 것이 좋다’(31.3%), ‘낳지 않는 것이 좋다’(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응답은 3.0%,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출산을 필수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 가능한 가치로 인식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별로 보면,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는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53.6%)의 비율이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48.8%)보다 높았던 반면, ‘낳는 것이 좋다’(29.0%)는 중1 코호트(33.7%)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코호트 간의 응답 분포 차이는 복합표본설계 기반 F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00, 16766.71)=2.726, p<0.05$).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이 ‘낳는 것이 좋다’(34.9%) 및 ‘반드시

‘낳아야 한다’(4.5%)의 응답 비율이 여학생(각각 22.7%, 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낳지 않는 것이 좋다’(16.3%) 및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F(3.97, 8425.84)=11.344, p<0.01$). 즉, 여학생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남학생은 ‘낳는 것이 좋다’(38.7%) 및 ‘반드시 낳아야 한다’(3.4%)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각각 28.4%, 1.7%)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낳지 않는 것이 좋다’(17.2%) 및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51.0%)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6, 8212.70)=7.870, p<0.01$).

종합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청소년·청년층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개인의 삶과 선택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37. 출산관

구분	n	낳지 말아야 한다		낳지 않는 것이 좋다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낳는 것이 좋다		반드시 낳아야 한다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전체	4,196	54	1.3	555	13.2	2,150	51.2	1,314	31.3	124	3.0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9	1.4	269	12.7	1,139	53.6	615	29.0	71	3.3
중1 코호트	2,073	24	1.2	286	13.8	1,011	48.8	699	33.7	53	2.5
<i>F</i>							2.726**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12	1.1	101	9.2	550	50.3	381	34.9	49	4.5
여자	1,031	17	1.7	168	16.3	589	57.1	234	22.7	22	2.2
<i>F</i>							11.344***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6	0.6	115	10.7	502	46.7	416	38.7	36	3.4
여자	998	18	1.8	171	17.2	509	51.0	283	28.4	17	1.7
<i>F</i>							7.870***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3) 스페셜 모듈 - 시간 선호

시간 선호는 개인이 보상의 시점(time frame)에 따라 선택을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Thaler(1981)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패널은 동일한 금액(4,000원)을 ‘다음 주 목요일’에 받는 경우와 ‘4주 뒤 목요일’ 또는 ‘8주 뒤 목요일’에 더 큰 금액(4,500원, 5,500원, 6,500원)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 선택(time frame 1)²⁶⁾과 장기 선택(time frame 2)²⁷⁾간의 응답 일관성을 비교하여, 신진욱, 박정민, 최승주와 홍성철(2018)의 구분 방식에 따라 패널을 현재 편향(present bias), 정상성(time consistency), 미래 편향(future bias)으로 분류²⁸⁾하였다.

여기서 현재 편향(present bias)은 당장의 보상을 더 크게 평가하여 지연된 보상보다 즉시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정상성(time consistency)은 시점에 상관없이 합리적·일관된 선택을 유지하는 성향을 뜻하며, 이는 경제학적으로 안정된 시간 선호를 의미한다. 미래 편향(future bias)은 오히려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여, 미래의 이익을 더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시간 선호 패턴을 추론할 수 없는 비일관적 선택자(inconsistent choosers)는 제외²⁹⁾하였다. 이는 두 시점(time frame 1과 2) 간 선택 방향이 상충하거나 전환되는 응답(예: 4,500원에서는 기다리지만 6,500원에서는 4,000원을 즉시 선택)을 배제하여 시간 선호 유형의 해석 가능성과 비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6) time frame 1은 다음 주 목요일 4,000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4주 뒤 목요일 4,500원, 4주 뒤 목요일 5,500원, 4주 뒤 목요일 6,500원을 받는 것에 대한 각각 3번의 선택임. 기준점인 다음 주 목요일 4,000원을 선택하는 것을 ‘1’로, 지연된 보상(4주 뒤 목요일 4,500원, 5,500원, 6,500원)을 선택하는 것을 ‘2’로 표현하면 time frame 1에서의 패널의 선택 조합은 (1,1,1), (1,1,2), (1,2,2), (2,2,2)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음.

27) time frame 2는 다음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4주 뒤 목요일 4,000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로부터 8주 뒤 목요일 4,500원, 8주 뒤 목요일 5,500원, 8주 뒤 목요일 6,500원을 받는 것에 대한 각각 3번의 선택임. 기준점인 다음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4주 뒤 목요일 4,000원을 선택하는 것을 ‘1’로, 지연된 보상(다음 주 목요일로부터 8주 뒤 목요일 4,500원, 5,500원, 6,500원)을 선택하는 것을 ‘2’로 표현하면 time frame 2에서의 패널의 선택 조합도 (1,1,1), (1,1,2), (1,2,2), (2,2,2)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음.

28) time frame 1과 2에서의 선택 조합을 이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함.

시간 선호 유형		time frame 2에서의 선택			
		(1,1,1)	(1,1,2)	(1,2,2)	(2,2,2)
time frame 1에서의 선택	(1,1,1)	정상성	현재 편향	현재 편향	현재 편향
	(1,1,2)	미래 편향	정상성	현재 편향	현재 편향
	(1,2,2)	미래 편향	미래 편향	정상성	현재 편향
	(2,2,2)	미래 편향	미래 편향	미래 편향	정상성

29) (1,2,1), (2,1,1), (2,1,2), (2,2,1)과 같이 시간 선호의 방향이 앞뒤 문항 간 일관되지 않거나, 선택이 역전되는 응답 패턴을 보이는 비일관적 선택자는 제외.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상성이 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미래 편향이 19.3%, 현재 편향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와 시간 선택에서 비교적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는 즉시 보상을 선호하거나(현재 편향), 오히려 장기 보상을 더 높게 평가하는(미래 편향) 경향을 보인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는 현재 편향 10.4%, 정상성 70.3%, 미래 편향 19.3%로 나타났으며,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 또한 현재 편향 10.2%, 정상성 70.5%, 미래 편향 19.3%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두 코호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00, 7842.48)=0.014, p=0.986$). 즉, 시간 선택의 구조적 차이는 거의 없으며, 시간 선호는 연령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초4 코호트에서는 남학생의 정상성(72.4%)이 여학생(68.0%)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미래 편향(21.5%)의 비율이 남학생(17.3%)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00, 4012.52)=2.145, p=0.117$). 중1 코호트에서는 현재 편향(남 10.3%, 여 10.1%), 정상성(남 70.5%, 여 70.5%), 미래 편향(남 19.2%, 여 19.4%)이 모두 유사했으며, 성별 간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F(1.99, 3821.24)=0.013, p=0.987$).

종합하면 조사 대상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시간 선택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즉각적 보상보다 계획적·지연된 보상을 선호하는 행동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며, 시간 선호는 발달단계보다는 개인 내적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8. 시간 선호

구분	n	현재 편향		정상성		미래 편향	
		freq	%	freq	%	freq	%
전체	3,929	405	10.3	2,766	70.4	758	19.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1,998	208	10.4	1,404	70.3	385	19.3
중1 코호트	1,931	197	10.2	1,362	70.5	373	19.3
<i>F</i>				0.014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49	109	10.3	760	72.4	181	17.3
여자	960	101	10.5	653	68.0	206	21.5
<i>F</i>				2.145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07	104	10.3	710	70.5	193	19.2
여자	913	92	10.1	644	70.5	177	19.4
<i>F</i>				0.013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4) 스페셜 모듈 - 용서하는 성향

용서하는 성향은 개인이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해 부정적 경험이나 실수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총 18개 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으로 구분되며,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용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66점으로 나타났다. 코호트별로는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2.65점)보다 성인(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1 코호트(2.68점)의 용서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하위요인별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p<0.01$),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p<0.05$),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p<0.01$)에서 모두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이나 타인·상황에 대한 수용 수준이 다소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초4 코호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 용서 수준이 높았으며($p<0.05$),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과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에서도 남학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1$). 중1 코호트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 및 하위 모든 영역에서 용서 수준이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sim0.05$).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과 타인, 상황을 보다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II-39. 용서하는 성향

구분	n	용서하는 성향 (전체)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66	0.29	2.70	0.38	2.62	0.35	2.68	0.3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65	0.28	2.68	0.37	2.61	0.35	2.65	0.35
중1 코호트	2,073	2.68	0.29	2.72	0.38	2.63	0.36	2.70	0.34
<i>t</i>		-4.248***		-3.094***		-2.195**		-4.947***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2.66	0.28	2.69	0.36	2.62	0.34	2.66	0.35
여자	1,031	2.63	0.29	2.67	0.38	2.59	0.36	2.64	0.34
<i>t</i>		1.996**		1.844*		1.928*		0.979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2.71	0.30	2.76	0.39	2.65	0.37	2.72	0.36
여자	998	2.65	0.27	2.67	0.37	2.61	0.34	2.68	0.33
<i>t</i>		4.497***		5.736***		2.111**		2.776***	

*** $p<0.01$, ** $p<0.05$, * $p<0.1$

5.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인식구조 분석³⁰⁾

KCYPS 2018 제7차년도 조사에서 결혼관과 출산관은 원패널과 보호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결혼관과 출산관이 세대 간에 어떻게 전이 되는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출산 전이 관련 기존 문헌

결혼과 출산 관련 태도 및 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헌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 Axinn과 Thornton(1996)은 어머니의 이혼이나 재혼, 사별 등 가족 해체 경험이 자녀의 가족 형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는 자녀가 18세

30) 이 절은 고강혁 교수(고려대학교)가 작성하였음.

시점에 보고한 가족 형성 태도(혼전 성관계, 동거, 결혼, 출산, 이혼에 대한 태도)였다.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혼인 해체 경험과 어머니의 가족 형성 태도로 설정했다. OLS 회귀 분석으로 추정된 결과,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은 자녀가 결혼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게 했으며, 혼전 성관계, 동거, 이혼을 더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했다. 반면, 출산(선호하는 자녀 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가족 형성 태도는 어머니의 혼인 해체 경험과 자녀의 가족 태도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며, 가치관 전이를 통한 효과도 작동함을 시사한다. Cunningham과 Thornton(2006)은 동일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결혼의 질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자녀의 가족 관련 태도(혼전 성관계, 동거, 이혼, 독신/결혼 비교)를 종속변수로,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의 질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결혼의 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 질은 자녀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자녀가 부모의 결혼 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혼 및 혼전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 결혼 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에게 강하게 전이되었고, 추가적으로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경우에 자녀는 이혼, 동거,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Willoughby, Carroll, Vitas와 Hill(2012)은 미국 대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Project R.E.A.D.Y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결혼 태도와 결혼의 질이 성인 자녀의 결혼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와 부모가 보고한 결혼의 중요성 및 이상적 결혼 연령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부모 및 자녀가 보고한 부모의 결혼 질을 조절 변수로 포함하였다. 계층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부모의 결혼 태도는 자녀의 결혼 태도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결혼 질은 자녀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반면, 아버지의 결혼 질은 자녀 태도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결혼 질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 태도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결혼 태도의 세대 간 전이가 단순한 가치관 모방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 및 가족 규모 전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Duncan, Freedman, Coble과 Slesinger(1965)은 1955년 Growth of American Families와 1962년 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세대의 가족 규모가 자녀 세대의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혼인 후 자녀수(실제 및 기대 자녀 수)였으며, 독립변수는 아내 또는 남편이 보고한 본인의 형제자매 수(가족 규모)였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부모 세대 가족 규모와 자녀 세대 출산 행동 간 작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이를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화와 가족 내 가치관 학습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반면, Kolk (2015)은 스웨덴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형제자매가 성인기의 최종 출산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 세대의 쌍둥이 출산을 도구변수로 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자녀 세대의 최종 자녀 수, 독립변수는 부모 세대의 최종 자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세대의 쌍둥이 출산으로 인한 추가 형제자매 수가 자녀 세대의 최종 출산 행동에 유의한 인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Yin(2024)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활용하여, 부모 세대의 형제자매 수와 자녀 세대의 출산 행동 간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4년 China Family Panel Studies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 세대의 실제 자녀 수와 이상적 자녀 수, 독립변수는 부부 각각의 형제자매 수로 설정하였다. 부모 세대의 정책 노출 정도를 도구변수로 하여 2단계 최종자승법을 실시한 결과, 부모 세대의 형제자매 수는 자녀 세대의 출산 행동에 작은 양(+)의 인과 효과를 가지며, 특히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세대의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자녀 세대의 한 자녀 정책 위반 확률이 2.4~6.8%p 증가하였다. 직접적인 출산 행동보다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출산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출산 행동의 세대 간 전이는 가치관을 매개로 하며, 제도적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Jennings, Sullivan과 Hacker (2012)는 Utah Population Database를 활용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출산 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혼인 연령, 첫/마지막 출산 연령, 출산 간격, 최종 자녀 수이며, 종속변수는 자녀 세대 여성의 동일한 지표이다. 이변량 상관분석과 사건사 분석 결과, 혼인 연령과 마지막 출산 연령에서 강한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 중단과 출산 간격 조절 등 출산 행동이 전이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어머니의 출산 행동과도 일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자녀 세대가 다음 출산을 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Keijer, Liefbroer과 Nagel(2018)은 네덜란드의 Youth and Culture (2005-2006)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실제 가족 형성(독립, 동거, 결혼, 출산) 시기와 자녀에 대한 기대 시점이 청소년의 기대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가치관 전이와 행동 모델링의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기대는

부모의 기대와 실제 경험 모두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독립 시점에 대해 가치관 전이의 영향이 강했다. 부모 성별 간 효과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어머니의 출산 시기는 자녀의 출산 기대 시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이외 가치관의 전이 관련 기존 문헌

결혼과 출산 외 문화적·사회적 가치관 전이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Whitbeck과 Gecas(1988)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전이하고자 하는 가치와 실제 전이되는 가치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모가 의도적으로 전이하고자 하는 가치보다 실제로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 자녀에게 강하게 전이되었으며, 자녀가 부모와의 가치 유사성을 인지할수록 전이 강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치관을 전이하려는 상호적 전이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Moen, Erickson과 Dempster-McClain(1997)은 뉴욕의 어머니-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 역할 이데올로기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딸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직업 정체성,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로 설정하였다. OLS 다중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는 딸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딸의 직업 정체성은 어머니의 영향보다 본인의 교육 및 고용 경험에 의해 설명되었다. Cunningham(2001)은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와 후속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성 역할 규범의 세대 간 전이를 가사노동 분담을 매개로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 자녀의 성 역할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는 부모의 성 역할 태도 및 아버지의 실제 가사노동 참여 여부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성 역할 태도는 자녀의 가사 분담 태도에 장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는 자녀의 성평등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ordero-Coma와 Esping-Andersen(2018)은 독일 Socio-Economic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가 아동기에 보고한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이 청소년기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LS 및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가사노동의 25% 이상을 분담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제 가사노동 참여 확률이 약 22%p 높았다. 반면, 딸의 경우에는 부모의 분담 영향이 미미하였으며, 형제 구성이나 부모의 고용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 Tenenbaum과 Leaper(2002)은 43편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통해, 부모의 성별

스키마가 자녀의 성 역할 인지 행동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줄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태도가 딸의 성 역할 인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de Vries, Kalmijn과 Liefbroer(2009)은 2003년 Netherlands Kinship Panel Study 1차 조사를 통해 친족 규범의 세대 간 전이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 세대가 응답한 친족 규범(일반 친족 규범, 부모 부양 규범, 부모의 자녀 지원 규범)이며, 독립변수는 부모 세대가 응답한 친족 규범이다. Sibling similarity model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친족 규범은 자녀의 친족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모의 규범과 복종 태도가 자녀 규범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Diederich, König과 Brettschneider(2023)은 독일의 Family Panel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부양 의무감과 효도 규범이 세대 간 전이됨을 보였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효도 규범과 부모 장기 요양 필요 시 실제 돌봄 제공 여부, 독립변수는 부모의 효도 규범과 지역 평균 규범으로 설정하였다. OLS와 지역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가 강한 효도 규범을 지닐수록 자녀 역시 강한 규범을 가졌으며, 실제로 부모 장기 요양 필요 시 가사 지원을 제공할 확률이 6~7%p 증가시켰다. 이는 가족 내 사회화가 효도 규범 전이를 통해 실제 돌봄 행위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Williams 외(2020)은 멕시코계 미국인 3세대 가족을 3년간 추적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조모-모-자녀로 이어지는 문화 전이가 자녀의 언어 발달과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독립변수는 조모의 문화 사회화, 매개변수는 어머니의 문화 사회화이며, 실제 행동 지표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발달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조모의 사회화는 어머니의 사회화를 매개하여 손녀의 언어 능력과 또래 놀이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문화적 사회화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경로임을 보인다. Schönpflug과 Yan(2014)은 중국 상하이와 동독을 비교하여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가치 전이가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전이하려는 동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동독에서는 부모 가치가 직접 전이되지 않았으나, 중국 상하이에서 아버지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 모두 자녀에게 전이하였다. 또한, 자녀의 가치와 zeitgeist(개인 가치관이 사회 평균적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편차가 전이 강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 전이 동기도 자녀 가치 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Zerach, Levin, Aloni와 Solomon(2017)은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23년간 4차례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결과,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침을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시간 선호와 같은 태도의 전이도 다수 존재한다. Alan, Baydar, Boneva, Crossley와 Ertac(2017)은 터키의 Study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Ecologies in Turkey 5차 조사를 활용하여, 7~8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험 선호 전이와 전이 매커니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과 어머니는 동일한 위험선호 실험에 참여하였고, 부모의 양육 관여도와 아동의 인지능력도 측정되었다. OLS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와 딸의 위험 선호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자 간 전이는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관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딸 간 전이가 강화되었다. Hong, Kim과 Su(2024)은 중국 칭다오와 한국 서울의 중소기업 근로자-부모 196쌍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위험 태도의 세대 간 전이를 분석하였다. 부모와 자녀(근로자)의 위험 태도는 온라인 설문과 투자 실험을 통해 측정되었다. 주요 변수는 자녀 세대(근로자)와 부모의 금융 위험 선호, 부모의 양육 관여도, 부모의 금융 교육 여부, 양육 방식이며, OLS 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에서는 부모의 양육 관여도와 금융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위험 태도의 유사성이 강했으며, 한국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동성 간 전이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중국에서의 부모-자녀 위험 태도 유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Brenøe와 Epper(2022)는 Danish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자녀 부가 조사, 덴마크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시간 선호(인내심) 상관을 추정한다.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는 각각 자녀의 시간 선호와 부모의 시간 선호로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방식과 양육 참여 정도가 조절 변수로 사용되었다. OLS 회귀분석과 형제자매 고정 효과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인내심의 세대 간 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또는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게 인내심을 전이하는 반면, 권위적 부모는 인내심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참여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내심의 전이가 부모의 양육 방식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준다. Kosse와 Pfeiffer(2013)는 독일에서 수집된 213쌍의 어머니-자녀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대 간 시간 선호 전이가 자녀의 인내심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였다. 어머니는 금전적 선택 실험을 통해 단기 인내심과 장기 인내심 파라미터가 추정되었고, 자녀는 지연 만족

실험을 통해 인내심이 측정되었다.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단기 인내심 값이 클수록 자녀가 지연 보상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장기 인내심과는 방향성은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rown과 van der Pol(2015)는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시간 선호와 위험 선호의 전이를 분석하였다. 임의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델을 이용해 부모-자녀 선호 간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간 선호에서는 부모가 장기 계획을 세울수록, 위험 선호에서는 부모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질수록 전이 강도가 높았다.

Dohmen, Falk, Huffman과 Sunde(2012)는 독일 SOEP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 태도와 신뢰 태도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위험 및 신뢰 태도이고, 독립변수는 부모의 동일한 태도이다. OLS 회귀분석 결과, 부모와 자녀 간 위험 및 신뢰 태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저자들은 이를 단순한 유전이 아닌 가정 내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화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ingh, Kumari, Thakre, Agarwal과 Shakchi(2023)는 인도에서 약 150명의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위험 태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 태도의 세대 간 전이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위험 태도(일반, 운전, 금융, 교육, 건강 영역)와 신뢰 태도이고, 독립변수는 부모의 위험 태도와 신뢰 태도로 설정하였다. 각 태도는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지수화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는 전반적 영향에서, 아버지는 운전, 금융, 건강 영역에서 자녀 위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자녀는 남성 자녀에 비해 위험회피적이었다. 또한, 위험 태도와 신뢰 태도 간 상호 영향은 없으며, 독립적으로 전이되었다.

3) 분석 자료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제1차~제7차년도까지 수집된 자료 중 '결혼/출산관'을 스페셜 모듈로 다룬 제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시점의 코호트는 각각 고등학교 1학년과 성인 초기(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결혼 및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주요 종속변수로 자녀의 결혼·출산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부모의 결혼·출산관을 설정하여, 부모의 결혼 및 출산관이 자녀의 결혼 및 출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대상은 남자 1,927명(51.2%), 여자 1,839명(48.8%)으로 총 3,766명이다.

우선 표본은 세대 간 전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 응답 중 어머니의 응답만을 추출하였으며(PARENTw7), 2005년생 자녀와 2008년생 원패널만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녀의 결혼관과 출산관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초등용 및 중등용 데이터에서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YFFA1A01w7)와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YFFA1A02w7)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하는/낳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낳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을, 그 외의 응답에는 0을 할당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보호자의 결혼관 및 출산관이다. 보호자용 데이터에서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FFA1A01w7)와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FFA1A02w7)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하는/낳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낳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을, 그 외의 응답에는 0을 할당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회귀 분석에는 이외에도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첫째, 가구 특성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12개 구간으로 수집된 응답에 각 구간을 대표하는 중앙값을 할당하여 연속형 변수로 변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소득 4분위로 재구성하였다(PINCOMEw7). 가구원 수는 PHOMPOPw7을 활용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력 변수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고졸 이하, 2=2~3년제 대학, 3=4년제 대학, 4=대학원 졸업으로 재구성하였고, ‘잘 모르겠음(8)’과 ‘해당없음(10)’ 응답은 배제하였다. 아버지 학력은 PSCHOOL1w7, 어머니 학력은 PSCHOOL2w7에서 추출하였다.

셋째, 자녀 특성으로는 생년(PYBRT1Aw7), 성별(YGENDERw7),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YFAM3A00w7), 전체 형제자매 중 본인 순서(YFAM3B00w7), 그리고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YFUR1A00w7)을 사용하였다. 형제자매 수는 응답이 1인 경우 0, 그 외는 1로 형제자매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형제자매 순서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고, 셋째 이상은 3으로 코딩하였다.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은 1=고등학교 졸업, 2=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4년제 대학교 졸업, 4=대학원 이상, 5=잘 모르겠음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변수로는 거주지 시·도를 사용하였다. 초등용 및 중등용 데이터의 ARA1Bw7을 활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광역시(2), 그 외 지역은 3으로 재구성하였다.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³¹⁾을 살펴보면, 자녀의 결혼관은 61.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출산관의 경우 6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결혼관 긍정 응답은 54.2%, 출산관 긍정 응답은 51.5%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은 2분위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4.10명(표준편차=0.8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분포는 수도권 49.4%, 광역시 20.2%, 기타 30.4%였다. 어머니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 최종 학력도 41.9%가 4년제 대학 졸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향후 학업 목표는 4년제 대학 졸업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6.4%)과 2~3년제 대학(6.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본의 86.9%가 형제자매가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출생 순서는 첫째 53.7%, 둘째 38.1%, 셋째 이상이 8.2%였다.

31) 본 분석은 결혼관, 출산관의 모집단 추정이 아닌 세대 간 전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표 III-40.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 or mean	N
종속 변수			
자녀 결혼관	긍정	61.7	3,766
	기타	38.3	
자녀 출산관	긍정	66.5	3,766
	기타	33.5	
독립 변수			
부모 결혼관	긍정	54.2	3,766
	기타	45.78	
부모 출산관	긍정	51.5	3,766
	기타	48.5	
통제 변수			
성별	남	51.2	3,766
	여	48.8	
출생연도	2005	48.6	3,766
	2008	51.4	
출생 순서	첫째	53.7	3,766
	둘째	38.1	
	셋째	8.2	
형제자매 유무	없음	13.1	3,766
	있음	86.9	
가구소득(4분위)	1분위	27.2	3,766
	2분위	38.5	
	3분위	15.1	
	4분위	19.2	
가구원 수		4.10	3,766
거주지	수도권	49.4	3,766
	광역시	20.2	
	그 외	30.4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5.8	3,766
	2~3년제 대학	29.0	
	4년제 대학	38.5	
	대학원	6.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26.2	3,601
	2~3년제 대학	22.7	
	4년제 대학	41.9	
	대학원	9.2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	고등학교	2.8	3,766
	2~3년제 대학	6.3	
	4년제 대학	72.2	
	대학원 이상	6.4	
	잘 모르겠음	12.4	

4) 회귀분석 모형

부모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의 세대 간 전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선형 모형을 추정한다.

$$y_i = \beta_0 + \beta_1 T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1)$$

y_i 는 각 가구 i 에서 자녀의 결혼(출산)관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T_i 는 보호자의 결혼(출산)관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_i 는 앞서서 기술되었던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수, 아버지/어머니 최종 학력, 자녀 생년, 자녀 성별, 시/도(거주지 기준), 형제자매 유무, 전체 형제자매 중 본인 순서,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을 포함한다. ϵ_i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β_1 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parameter)로, 부모의 결혼(출산)관과 자녀의 결혼(출산)관 간의 세대간 이전을 의미한다. 추정치의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는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5) 분석 결과: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다음 표³²⁾는 부모의 결혼관이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2) 전체 분석 결과들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III-41.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26*** (0.016)	0.222*** (0.016)	0.221*** (0.016)	0.223*** (0.016)	0.223*** (0.016)	0.223*** (0.016)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4	0.065	0.067	0.070	0.073	0.075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기본 모형 (1)에서 부모의 결혼관은 자녀의 결혼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자녀 역시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확률은 약 22.6%p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효과는 성별과 출생연도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인 (2)에서도 0.222로 유사하게 유지된다. 자녀가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확률은 8.4%p 낮았고, 2008년생은 2005년생보다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 변수를 추가한 모형 (3)에서도 부모 결혼관의 효과는 강건하게 유지되었으며, 수도권 대비 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확률이 4.1%p 높았다. 이후 가구소득, 가구원 수,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중 출생 순서, 향후 목표 교육 수준을 단계적으로 포함한 모형 (4)~(6)에서도 부모 결혼관의 효과는 일관되게 약 0.22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부모의 결혼관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가구원 수 범주(7명 이상)나 아버지 학력(4년제 대학 졸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된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결혼관이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가족 구조, 자녀 개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 분석 결과: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다음 표는 부모의 출산관이 자녀의 출산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III-42.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부모 출산관	0.210*** (0.015)	0.207*** (0.015)	0.204*** (0.015)	0.208*** (0.015)	0.209*** (0.016)	0.209*** (0.016)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0	0.064	0.065	0.069	0.075	0.077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기본 모형 (1)에서 부모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자녀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약 21.0%p 높았다. 성별, 출생연도, 지역을 단계적으로 통제한 모형 (2)와 (3) 부모의 출산관 효과는 0.2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효하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긍정적 출산관을 가질 확률이 약 10.5%p 낮았으며, 2008년생이 2005년생에 비해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약했다. 또한, 지역 변수를 추가한 모형 (3)에서는 광역시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긍정적인 출산관을 가질 확률이 약 4.6%p 더 높았다.

모형 (4)~(6)에는 가구소득, 가구원 수, 부모 학력, 형제자매 여부, 형제자매 중 출생순서, 향후 목표 교육수준을 추가하였으며, 부모의 출산관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변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고소득층(가구 소득 4분위)에 속하는 경우 자녀가 긍정적 출산을 가질 확률이 다소 낮았으며, 고학력 부모 집단에서 자녀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결혼관과 비교하면,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효과는 크기 면에서 약간 작은 수준(0.20 내외)을 보이지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가구 특성, 자녀 특성 등을 통제하더라도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는 부모의 출산관 역시 자녀의 가치관 형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7) 분석 결과: 형제자매 여부와 결혼관의 관계

부모의 결혼(출산)관이 자녀의 결혼(출산)관에 미치는 효과가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1)에 형제자매 유무와 부모의 결혼(출산)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다음의 선형 모형을 추정한다.

$$y_i = \beta_0 + \beta_1 T_i + \beta_2 S_i + \beta_3 (T_i \times S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2)$$

식(1)과 동일한 표기를 따른다. 단, S_i 는 각 가구 i 에서 자녀의 형제자매 유무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관심 파라미터는 β_3 로, 부모의 결혼(출산)관의 효과가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표는 y_i 가 부모의 결혼관일 때, 부모의 결혼관 효과가 자녀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III-43.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47*** (0.043)	0.237*** (0.044)	0.237*** (0.043)	0.245*** (0.044)	0.256*** (0.046)	0.257*** (0.046)
형제자매 유무	0.020 (0.028)	0.016 (0.028)	0.017 (0.028)	0.015 (0.038)	0.010 (0.042)	0.015 (0.044)
부모 결혼관* 형제자매 유무	-0.025 (0.046)	-0.018 (0.047)	-0.018 (0.046)	-0.025 (0.047)	-0.038 (0.049)	-0.039 (0.049)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4	0.065	0.067	0.070	0.074	0.075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기본 모형 (1)의 결과, 부모가 긍정적 결혼관을 지닌 경우 자녀의 결혼관도 긍정적인 확률이 약 24.7%p 높게 나타났다. 이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결혼관은 자녀의 결혼관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위의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반면, 형제자매 유무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 결혼관과 형제자매 유무의 상호작용항도 모든 모형에서 계수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결혼관 효과가 외동 자녀와 형제자매가 있는 자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지 않은 기존 모형과 비교했을 때, 전체 계수 추정치와 결정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관은 형제자매 유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분석 결과: 형제자매 여부와 출산관의 관계

다음 표는 모형(2)에서 y_i 가 부모의 출산관일 때, 부모의 출산관 효과가 자녀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II-44.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출산관	0.247*** (0.041)	0.238*** (0.040)	0.236*** (0.040)	0.241*** (0.041)	0.249*** (0.043)	0.250*** (0.043)
형제자매 유무	0.060** (0.026)	0.058** (0.026)	0.058** (0.026)	0.060* (0.036)	0.057 (0.039)	0.060 (0.041)
부모 출산관* 형제자매 유무	-0.043 (0.044)	-0.037 (0.043)	-0.036 (0.043)	-0.038 (0.044)	-0.045 (0.046)	-0.047 (0.046)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1	0.065	0.066	0.069	0.075	0.077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출산관 분석에서도 결혼관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기본 모형 (1)에서 부모가 긍정적 출산관을 가진 경우 자녀 역시 긍정적 출산관을 가질 확률이 약 24.7%p 더 높았으며, 이 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출산관이 직접적이고 일관되게 자녀에게 전이된다는 점이 확인되며, 이는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결과와 일치한다.

형제자매 유무의 단순 효과는 일부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통제변수가 늘어날 수록 계수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는 형제자매 유무 자체가 자녀의 출산관에 독립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님을 의미한다. 부모 출산관과

형제자매 유무의 상호작용항도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결혼관 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출산관 효과가 외동자녀와 형제자매가 있는 자녀 집단 간 다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모의 가치관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의 존재가 전이 강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내지 않았다.

9) 분석 결과: 자녀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이질적 관계

다음은 부모의 결혼(출산)관이 자녀의 결혼(출산)관에 미치는 효과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 (3)은 모형 (2)와 동일한 표기를 따르지만, G_i 은 자녀의 성별을 의미한다. 관심 파라미터는 β_3 로, 자녀가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의 부모의 출산관 효과 차이를 나타낸다.

$$y_i = \beta_0 + \beta_1 T_i + \beta_2 G_i + \beta_3 (T_i \times G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3)$$

다음 표는 y_i 가 부모의 결혼관일 때, 부모의 결혼관 효과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III-45.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14*** (0.022)	0.213*** (0.022)	0.213*** (0.022)	0.215*** (0.022)	0.213*** (0.023)	0.214*** (0.023)
성별	-0.093*** (0.020)	-0.092*** (0.020)	-0.091*** (0.020)	-0.091*** (0.020)	-0.088*** (0.020)	-0.087*** (0.020)
부모 결혼관*성별	0.015 (0.031)	0.018 (0.031)	0.018 (0.031)	0.017 (0.031)	0.020 (0.032)	0.020 (0.032)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62	0.065	0.067	0.070	0.074	0.075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먼저, 모형 (1)에서 부모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경우 자녀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약 21.4%p 증가하였다. 이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부모의 결혼관이 자녀의 결혼관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성별 효과로는 부모가 부정적 결혼관을 가진 경우 딸이 아들에 비해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확률이 약 9.3%p 낮았으며,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부모 결혼관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모든 모형에서 계수가 작고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결혼관의 세대 간 전이는 아들과 딸 간 이질성을 보이지 않는다.

10) 분석 결과: 자녀 성별에 따른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이질적 관계

다음 표는 모형(3)에서 y_i 가 부모의 출산관일 때, 부모의 출산관 효과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II -46.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12*** (0.022)	0.213*** (0.022)	0.210*** (0.022)	0.214*** (0.022)	0.209*** (0.022)	0.210*** (0.022)
성별	-0.100*** (0.019)	-0.099*** (0.019)	-0.099*** (0.019)	-0.098*** (0.019)	-0.103*** (0.020)	-0.103*** (0.020)
부모 결혼관*성별	-0.014 (0.030)	-0.012 (0.030)	-0.012 (0.030)	-0.013 (0.030)	0.000 (0.031)	-0.002 (0.031)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62	0.064	0.065	0.069	0.075	0.077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기본 모형 (1)에서 부모가 긍정적인 출산관을 가질 경우 자녀가 긍정적 출산관을 가질 확률은 약 21.2%p 높게 추정되었다. 결혼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이전 효과가 강하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다만 자녀 성별의 직접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자녀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긍정적 인 출산관을 가질 확률이 모든 모형에서 약 10%p 낮았으며, 이는 모든 모형에서 유지되었 다. 그러나, 부모 출산관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항은 일관되게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출산관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과정이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은 성별에 따른 뚜렷한 이질성을 보이지 않는다.

11) 소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을 기록하였다. 비록 2023년 합계출산율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KCYPs 2018 패널의 초4·중1 코호트(현재 고1·성인초기)을 이용하여 부모의 결혼·출산관이 자녀의 결혼·출산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 세대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경제적인 유인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혹은 관점이 세대 간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전이가 다자녀여부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이질적이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감소하는 합계출산율과 성비의 변화에 따라서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전이 양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³³⁾한다.

6. 데이터 공개³⁴⁾

1) 조사결과 데이터셋

KCYPs 2018 제7년도 조사결과는 데이터 클리닝과 함께 횡단면, 종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셋으로 구축된다. 각 데이터셋은 다음의 표와 같이 코호트와 조사대상, 조사 차수 기준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대상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 6개의 데이터셋(초4 코호트 원패널, 초4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 초4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 중1 코호트 원패널, 중1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으로 구축하고, 데이터셋의 명칭의 설정은 각 코호트별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33) 본 분석의 결과는 상관관계를 추정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 함.

34)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05-107)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형제자매, 조사차수, 데이터 구분과 통합의 용이성을 위하여 일관된 규칙으로 설정하여 승인통계 공표 후 2025년 12월에 제공하였다.

또한, 데이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SPSS(.sav), SAS(sas7bdat), STATA(dta), R(rda), CSV(ASCII))로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표 III-47. KCYPS 2018 제7차년도 데이터셋 명칭

조사명	코호트	조사 대상	조사 차수	데이터셋 명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CYPS 2018)	초4(e4)	원패널(Y)	제7차년도 (w7)	KCYPS2018e4Yw7
		보호자(P)		KCYPS2018e4Pw7
		형제자매(S)		KCYPS2018e4Sw7
	중1(m1)	원패널(Y)		KCYPS2018m1Yw7
		보호자(P)		KCYPS2018m1Pw7
		형제자매(S)		KCYPS2018m1Sw7

2) 유저가이드 및 코드북 제공

첫째,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KCYPS 2018 데이터 유저가이드를 제작하여 데이터와 함께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를 통해 공개하였다. 학술대회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2025년 4월 경에 유저가이드 및 코드북을 제공하였으며, 5월 마지막 주에는 제7차년도 잠정 가중치 내용을 포함한 유저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학술대회 이후 β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오류에 대한 의견을 검증하고, 확정 가중치 내용을 포함한 유저가이드를 최종 확정하여 2025년 12월 중에 일반에 공개하였다. 현재 유저가이드에는 KCYPS 2018 제1차~제7차년도 조사내용이 포함되고, 조사 목적, 조사 개요, 표본 설계, 패널 구축, 가중치, 조사 내용, 데이터 이용방법, 데이터 활용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데이터 이용에 있어 실제 조사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KCYPS 2018을 종이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종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였으며, 본 보고서 부록에 각각의 설문지를 수록하였다.

셋째, KCYPS 2018에서는 KYPS 2003과 KCYPS 2010에서 작성했던 코드북을 이용

자 편의에 맞춰 대폭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KCYPS 2018에서는 책자 형태의 코드북이 아닌 전자사전 형태의 코드북을 작성하였는데, 엑셀에서 하이퍼링크 형태로 조사내용의 배열과 조사문항, 변수명, 응답값과 응답값의 내용 등을 서로 연결하여 복잡한 패널데이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KCYPS 2018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조사결과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7차년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균,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는 12월(승인통계 공식 공표: 조사시점 익년 12월)에 공개하였다.

3) 데이터 공개

제7차년도 조사의 데이터 공개는 2025년 5월 중에 1차 사전 공개와 12월 최종 데이터 공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β 데이터로 구축된 데이터의 1차 사전 공개는 2025년 11월 개최된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와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5월 중에 학술대회용 데이터로 우선 제공하였고, 데이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SPSS(.sav), SAS(sas7bdat), STATA(dta), R(rda), CSV(txt))로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제5차년도까지는 통계패키지 SPSS, SAS, STATA에서 사용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과 CSV 데이터셋 총 4가지 형태의 데이터셋만 제공하였는데, 제6차년도 조사부터는 패널데이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통계패키지 R에서도 사용가능한 rda 형식의 데이터셋도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최근들어 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SSCI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널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KCYPS 2018 데이터의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해외 연구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데이터와 코드북, 설문지가 한글로만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저널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해외 연구자들의 데이터 이용에서 연구 편의성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해외 연구자들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일부 예시와 같이 영문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데이터 공개와 함께 처음으로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영문화 작업을 추가하여 2025년 12월에 제공하였다.

Q) Please share how you feel about using the smartphone.

Survey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My academic performance has decreased because of excessive smartphone use.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15) I do not spend much of time on the smartphone.	①	②	③	④

예시|> Codebook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Codebook Guide

Data Set

	계	Elementary 4 cohort			Middle 1 cohort		
		Main Panel	Guardian	Sibling	Main Panel	Guardian	Sibling
Wave 1 (2018)	4set	1set	1set	-	1set	1set	-
Wave 2 (2019)	6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Wave 3 (2020)	6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Wave 4 (2021)	6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Wave 5 (2022)	6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Wave 6 (2023)	6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Survey Rules

- The Elementary 4 cohort was surveyed using the elementary school questionnaire (1st wave to 3rd wave) and the middle/high school questionnaire (4th wave and later)
- The Middle 1 cohort was surveyed using the middle/high school questionnaire
- The guardians were surveyed using the guardian questionnaire for both the main panel and the siblings of the main panel (however, the guardian's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urveyed only once)
- If the siblings of each cohort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rvey is conducted using the elementary school questionnaire
- If the siblings of each cohort are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is conducted using the middle/high school questionnaire

KCYPs 2018 Middle/High School Questionnaire Variable Layout

[illegible]



제4장 데이터 활용·분석 및 이용실적 관리

-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 2.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 3. 데이터 이용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³⁶⁾

1) 학술대회 개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2011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제14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은 총 480여편으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학술행사인 동시에,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많은 관련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성과물의 증대와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는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KCYPs 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총 41편의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제14회 학술대회인 2025년에도 제출된 대학원생 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논문 3편을 선정하고, 11월 27일(월)에 시상식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또 다른 의의는 패널조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새로운 분석 방법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년도에 조사한 데이터의 공식적인 공개가 해당 연도의 12월에 이루어지는데, 공식적 공개가 진행되기 전인 5월 중에 학술대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진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β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β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다(다만,

35) 이 장은 하형석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36)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11-122)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2018년에는 ‘KCYPs 2018’ 조사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음). 2021년부터 학술대회 진행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주요 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IV-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실적(2011년-2025년)

회차	일시	장소	공동주최 학회	분과 및 논문 수
1회	2011. 11. 04(금) 09:00~18:4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9개 학회 참여	7분과 22편
2회	2012. 11. 16(금) 09:00~18:4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14개 학회 참여	11분과 41편
3회	2013. 11. 14(목) 09:00~18:4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 참여	12분과 45편
4회	2014. 10. 30(목) 09:00~17:1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13개 학회 참여	9분과 35편
5회	2015. 10. 23(금) 09:00~17:1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14개 학회 참여	9주제 38편
6회	2016. 11. 18(금) 09:00~17:1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아동·청소년 관련 13개 학회 참여	9주제 36편
7회	2017. 9. 14(목) 09:00~17:45	대한상공회의소	아동·청소년 관련 12개 학회 참여	9주제 30편
8회	2019. 11. 15(금) 09:00~16:50	양재 스포타임	아동·청소년 관련 14개 학회 참여	9주제 40편
9회	2020. 11. 20(금) 10:00~16:40	온라인 생중계 방송 진행 (양재 스포타임)	아동·청소년 관련 16개 학회 참여	8주제 27편
10회	2021. 11. 19(금) 10:00~17:0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6개 학회 참여	9주제 28편
11회	2022. 11. 18(금) 10:00~16:4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 참여	12주제 36편
12회	2023. 11. 17(금) 10:00~16:4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 참여	12주제 34편
13회	2024. 11. 15(금) 10:00~17:1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7개 학회 참여	12주제 36편
14회	2025. 11. 21(금) 10:00~16:4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 참여	12주제 33편

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25년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11월 21일(금)에 온라인 학술대회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KCYPS 2010 제1차년도~제7차년도 확정데이터, KCYPS 2018 제1차년도~제6차년도 확정데이터, KCYPS 2018 제7차년도 β 데이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이다.

학술대회 개최 일시 및 방법 등 학술대회 개요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40분
방 법	온라인 학술대회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최	아동·청소년 관련 총 15개 학회 공동주최
후 원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개최된 제14회 학술대회 준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도 1월에 학술대회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개최 일시와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2월에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18개 학회를 대상으로 공동주최를 제의하였고, 이 중 15개 학회³⁷⁾가 공동 주최로 참여하게 되었다.

2025년 3월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대학, 학회 등 130여 곳의 외부 기관에 학술대회 참여에 관한 연구계획서 공모를 공지하고 4월 25일(금)까지 연구계획서 접수를 진행하였다. 연구계획서 공모 결과 총 102편(일반 세션 42편, 대학원생 세션 60편)의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연구계획서 전체에 대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통보와 함께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하였고, 2024년 제7차년도 β 데이터 발송은 사전 공지된 5월 23일(금)에 발송을 완료하였다. 6월 중에는 논문 작성 양식 등에 대한 안내를

37) 대한범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최종 발표 논문접수는 9월 12일(금)까지 진행되었고, 최종 일반 30편, 대학원생 30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이후 일반부문의 논문 검토 및 대학원생 부문의 심사를 10월 30일(화)까지 진행하였다.



일반부문의 학술대회 세션 및 토론자 구성을 위한 검토는 1.연구주제의 청소년 분야 적합성(3점), 2.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활용성(3점), 3.학술적·정책적 기여도(3점), 4.감점 항목(제출기한 미준수, -1점)의 4개 영역으로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세션 구성 적합 판정은 패널 연구진 총 3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평균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는데, 학술대회 일반 부문 접수 논문의 경우 접수된 30편 모두 적합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후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술대회 세션을 구성하고 지정 토론자도 함께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의 논문심사는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데,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 포스터 세션 6편(내외)의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로 일반 부문 검토와 동일 기간에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은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참가 대학원생이 소속된 학교의 관계자를 배제하고, 청소년 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다. 논문의 평가는 1. 주제선택의 창의성 및 중요성(20점), 2.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논의의 적절성(20점), 3. 연구방법(분석방법)의 적절성(20점), 4. 분석결과 제시의 적절성(20점), 5. 이론적·정책적 기여도(20점) 총 5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심사 방법은 5인의 심사위원이 개별 논문 평가표에 점수 및 논문 심사의견을 작성 한 후, 심사위원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치시키는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 점수 순위에 따라 최우수 논문(1편), 우수 논문(2편), 포스터 세션 발표기회 부여 논문(6편)을 선정하였다. 수상작 3편은 일반 부문 논문과 동일하게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술대회 세션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상작 3편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진행하였는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 특성상 학술대회 당일 시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시상식을 진행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학술대회 당일 개회식 중 시상식 순서에 송출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최종 발표논문³⁸⁾은 총 33편(일반부문 30편,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3편)으로 확정되었고, 포스터세션은 6편으로 확정되었다. 총 33편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세션을 구성하였고, 포스터 세션을 포함하여 총 4개 세션, 12개 주제로 확정하였다. 전체 세션 및 주제 구성과 발표 논문의 목록은 다음

38) 제13회: 일반세션 총 38편, 포스터세션 5편 / 제12회: 일반세션 총 34편, 포스터세션 6편 / 제11회: 일반세션 총 36편, 포스터세션 6편 / 제10회: 일반세션 총 28편, 포스터세션 6편

표와 같다. 각 주제별로 3개씩의 논문을 편성하였으며, 그릿/역량/활동 C*, 진로/학업 D*, 심리/정서 B* 주제에만 2개의 논문을 편성하였다.

표 IV-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구분	주제	논문	사회
1세션	그릿/역량/ 활동 A (Room A)	부모와 자녀의 그릿 잠재 유형이 고등학생의 진로호기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신아(성균관대학교), 김미정(중앙대학교) • 토론 : 강주연(경기도미래세대재단)	배윤진 (육아정책 연구소)
		중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그릿과 학업열의의 관계: 성별의 조절효과 • 발표 : 기희경(부산대학교) • 토론 : 김은지(부산대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요인의 구조적 탐색: 그릿(Grit)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서경화(고려대학교), 김시현(고려대학교) • 토론 : 윤미리(고려대학교)	
	진로/학업 A (Room B)	고등학교 시기 학업열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및 행복감과 대학교 1학년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 발표 : 하아영(경상국립대학교), 정선영(경상국립대학교), 하인화(경상국립대학교), 조한익(경상국립대학교) • 토론 : 한천우(계명대학교)	김민 (순천향 대학교)
		【대학원생 우수 논문】 사교육비와 교사-학생 관계가 초·중 전환기 학업성취 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종단분석 • 발표 : 김정수(경인교육대학교)	
		청소년의 개인 변인과 학교 내 관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모형분석 • 발표 : 전해영(대구교육대학교) • 토론 :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디어/ 문제행동 A (Room A)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만족도에 의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 발표 : 김형모(경기대학교), 김현주(경기대학교) • 토론 : 정선영(인천대학교)	정용찬 (홍익 대학교)
		다중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박성준(국민대학교), 나종민(국민대학교) • 토론 : 백해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안녕감의 관계: 형제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누락된 가정 환경의 영향 검증 • 발표 : 이지원(서울대학교), 최여란(서울대학교)	

구분	주제	논문	사회
	부모/양육 (Room D)	부모의 자율성지지 또는 강요와 아동·청소년의 학업효능감 및 학업몰두 인과관계 변화 추정 - 초4~고1 잠재성장모형 분석 - • 발표 :곽수란(나주대학교) • 토론 : 이기중(국민대학교)	방은령 (한서 대학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청소년 발달과업 그리고 진로적응력 간 인과관계 분석 • 발표 : 김미정(공주대학교) • 토론 : 어윤경(공주대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정서역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박봉환(가톨릭관동대학교) • 토론 : 이미애(대구한의대학교)	
2세션	그릿/역량/ 활동 B (Room A)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교 • 발표 : 정한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 장선희(이화여자대학교)	강영배 (대구한의 대학교)
		청소년기의 참여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와 STEM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택형(한국교육개발원), 안병훈(선문대학교) • 토론 : 노현경(고려대학교)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기여하는 진로개발역량 영향요인 분석 • 발표 : 설현(명지대학교) • 토론 : 김태균(성신호대학원대학교)	
	진로/학업 B (Room B)	중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기반의 청소년 진로적응력 종단적 변화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영향 변인 탐색 • 발표 : 서공주(대구미래교육연구원), 정숙희(대구외국어고등학교), 박찬호(계명대학교) • 토론 : 이태현(고려대학교)	민주홍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진로준비도 예측요인 탐구: KCYPS 2018 자료를 중심으로 • 발표 : 조은혜(서울대학교), 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 정지은(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디어/ 문제행동 B (Room C)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순환신경망을 활용하여 • 발표 : 이강빈(계명대학교), 서공주(대구미래교육연구원), 박찬호(계 명대학교) • 토론 : 강태훈(성신여자대학교)	유성렬 (백석 대학교)
		학교폭력 가해경험자의 시기별 발달요인 탐색: 머신러닝 예측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다중 개입방안 • 발표 : 최재광(건양대학교), 김해솔(건양대학교), 정춘현(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구분	주제	논문	사회
3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노언경(전주대학교) 	
		<p>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진로 적응력, 학업열의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임다미(공주대학교), 이영(동국대학교) • 토론 : 함은혜(공주대학교) 	
		<p>청소년활동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사용빈도의 매개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민규(광주대학교), 장용재(광주대학교), 조용화(광주대학교), 이웅택(광주대학교) • 토론 : 장여옥(평택대학교) 	
	심리/정서 A (Room D)	<p>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과 성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홍예지(인하대학교), 안혜령(동아대학교) • 토론 : 손진희(숭실사이버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p>머신러닝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내재화문제의 잠재집단 분류 예측: 중·고등학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호종갑(순천향대학교), 이희복(순천향대학교), 허무녕(순천향대학교) • 토론 : 유민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후기 청소년 정서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승윤(한남대학교), 조민아(한남대학교) • 토론 : 김형석(한남대학교) 	
3세션	그릿/역량/ 활동 C* (Room A)	<p>지역사회인식이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매개로 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이영신(서원대학교), 허은정(서원대학교) • 토론 :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전환기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 프로파일 전이 양상과 영향 요인 검증: KCYPs 2018 데이터기반 잠재전이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박민서(KAIST), 이혜림(성균관대학교), 전요한(신한대학교) • 토론 : 주경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로/학업 C (Room B)	<p>잠재전이 분석을 적용한 청소년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의 종단 변화와 교육과정 에 미치는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진철(한국교원대학교) • 토론 : 최동규(부경대학교) <p>초중등학교 학업성취도 변화와 영향 요인: 사교육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심우정(한남대학교), 이은경(University of North Texas) • 토론 : 김정아(한국교육개발원) 	주동범 (부경대학교)

구분	주제	논문	사회
		중학생의 진로결정, 그릿, 학업열의와의 구조적 관계: 부모의 자율성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 발표 : 기희경(부산대학교) • 토론 : 강승희(부경대학교)	
	진로/학업 D* (Room C)	청소년기 또래 관계가 자아 인식을 매개로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 발표 : 오희정(남서울대학교) • 토론 : 양혜경(남서울대학교) 청소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발표 :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 정은진(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은주 (경북대학교)
	심리/정서 B* (Room D)	청소년 심리사회적 문제의 영향요인 분석 • 발표 : 박소영(충남대학교), 정혜원(충남대학교) • 토론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우수 논문】 자존감 수준에 따른 자존감 안정성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STARTS 모형을 통한 한국 청소년 자존감 구조 분석 • 발표 : 정유리(서울대학교), 김보석(University of Cambridge)	최인희 (숙명여자대학교)
포스터 세션	포스터 발표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발달궤적 및 잠재계층 유형과 예측요인-빈곤/비빈곤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안호금(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발표2	경기도 9시 등교 정책의 이질적 효과: 맞벌이 가구와 자녀의 건강을 중심으로 • 발표 : 이재호(서울대학교), 한재륜(서울대학교)	
	포스터 발표3	부모-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상호적 영향: 팬데믹 발생 전후 발달 과정 중심으로 • 발표 : 김지호(성균관대학교)	
	포스터 발표4	청소년기 학업무기력의 발달 궤적: 주의집중 문제와 거부적 양육태도의 동시 및 지연효과 • 발표 : 홍지연(연세대학교), 송수원(연세대학교), 임승철(연세대학교)	
	포스터 발표5	순차과정 성장호르몬모형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부모와의 대화시간, 내면화 문제, 사회정서역량 간의 잠재집단간 장기 종단적 이행 양상 분석 • 발표 : 서다연(순천향대학교), 신승은(순천향대학교)	
	포스터 발표6	중·고등학교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의 진로적응력과 학업 무기력 프로파일의 종단적 관계 • 발표 : 조혜리(서울대학교), 차수연(서울대학교)	

구성이 완료된 학술대회의 세션 및 주제를 토대로 지정토론 구성 및 주제별 사회자 섭외 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는 포스터와 안내문, 초청장을 11월 초에 배포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일시

2025.11.21. (금) 10:00~16:40

개최방식

온라인 학술대회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대한법치학회, 미래틀어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후원

성평등가족부

행사일정

시간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Grand Hall)			
	Room A	Room B	Room C	Room D
<div>세션</div> <div>Session1</div> <div>10:30~12:00</div>	그릿/역량/활동A	진로/학업A	미디어/문제행동A	부모/양육
<div>Poster Session</div> <div>13:00~13:30</div>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Poster Room)			
<div>Session2</div> <div>13:30~15:00</div>	그릿/역량/활동B	진로/학업B	미디어/문제행동B	심리/정서A
<div>Session3</div> <div>15:10~16:40</div>	그릿/역량/활동C	진로/학업C	진로/학업D	심리/정서B

사전등록 방법

사전등록기간

2025.11.7.(금)부터 11.20.(목)까지

사전등록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 알림 ▶ 행사정보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에서 등록 가능

※ 사전등록 후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드립니다 (사전등록 필수)

그림 IV-2.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포스터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진행 방식은 최근 몇 년간 활용한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메타버스를 이용³⁹⁾하였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술대회는 발표자나 토론자 뿐만 일반 참가자 등 모든 참가자들이 공간적 제한과 참여에 필요한 시간적 제한을 최소화할

39) 제10회부터 제12회까지는 Gather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제13회부터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더 친숙하고 교육용 에듀테크 플랫폼으로도 널리 활용되며, 아동·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ZEP을 활용함.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일반적인 현실공간의 행사와 유사한 형식의 회의와 토론, 만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논문 발표자의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발표 논문의 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회의실 수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회의실 예약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패널조사의 조사 차수가 쌓여갈수록 패널데이터 활용 연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 논문의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회의장 사용은 세션별 세부적인 회의 공간의 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에서 개최하는 대형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의 참여도 매우 용이하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학술대회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의 용이성, 오프라인 학술대회 공간과 유사한 기능의 수행, 학술대회 공간 구성의 용이성,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니는 동시에 학술대회 본연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14회 학술대회 온라인 회의장의 세부적인 구성은 같은 시간에 최대 4개의 논문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발표가 가능하도록 4개의 룸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논문과 토론문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장 여러 곳에 자료집을 다운받도록 하였다. 학술대회 온라인 회의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술대회 참가자의 입장과 접수 및 안내를 위한 공간, 개회식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는 그랜드 홀, 논문 발표를 위한 별도의 공간(4개), 포스터 세션 발표 및 전시를 위한 포스터 공간, 휴게 공간, 참가자들 간 개별 소통을 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등으로 구성하였고, 학술대회장 곳곳에 자료집을 다운받거나 방명록 작성,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하였다.



그림 IV-3.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공간 전체 구조도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 전에 참가자들의 체험과 이용 안내를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행사 진행방식 등에 대해 참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행사장에 설치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족도는 총 83명이 응답하였으며, 4.6점(5점 만점)이 도출되었다.

2.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⁴⁰⁾

1) 개요

KCYPS는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종의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인 2024년 데이터분석보고서의 경우,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KCYPs 2018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40)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23-128)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분석하였다.

2025년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기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그 원인을 단순히 학교 환경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기의 가정 내 경험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이후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학교 적응이나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종단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본 분석에서는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제6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을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유형화하고, 이어서 잠재전이 분석(LTA)을 적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유형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유형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을 각각 유형화함으로써 각 시기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특성과 전이 패턴을 정교하게 규명하고, 아동기 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습이론, 애착이론, 일반긴장이론, 생태체계이론 등 기존 이론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분석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전이 메커니즘을 종단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실천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4. KCYPs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실적(2011년-2025년)

연도	보고서명	연구자
2011	청소년의 활동 참여실태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서우석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 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은모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배상률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서정아, 조흥식
2013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이종원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서정아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황진구, 허효주
2014	청소년의 생활시간 추이 분석	정은주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모상현, 문은옥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황진구, 허효주
2015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정아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정은주
2016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이종원, 정윤미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모상현, 한지형
2017	연구성과 분석보고서	최용환, 박상현, 한지형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정은진, 하형석, 고강혁, 정윤미
2019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김성은, 김준엽
2020	양육태도 영향변인 탐색	김성은, 황영식
2021	코로나 19와 청소년 생활심리변화	김성은, 박찬호
2022	청소년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 탐색	전현정, 김나영, 이용혜
2023	진로준비도의 교육별 시대별 경향 및 잠재유형 관련 요인 분석	김윤희, 정윤미
2024	성인기 이행	김기현, 오병돈
2025	이동기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최인재, 노언경, 정송

2) 2025년 데이터분석 보고서 발간⁴¹⁾

2025년에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데이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참여와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다층적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과 작동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분석 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업, 사회적 적응 등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제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은 정서·행동 발달과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후 청소년기의 폭력 가해나 피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종단적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실태조사자료(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을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환경 →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 학교폭력 경험으로 이어지는 종단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조기예방 및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분석 내용

연구는 기초분석과 세 차례의 심층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초분석에서는 국가수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조사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이버폭력의 비중 또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41) 2025년 발간 데이터분석보고서(주제: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적인 분석내용과 정책적 제언 등은 별책으로 발간되는 데이터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

심층분석 I에서는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CYPs 2018 제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 경험은 학교폭력 참여의 위험 요인으로,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 제공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가해자·동조자·강화자 역할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분석 II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집단의 이질성을 규명하고, 유형별로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은 언어폭력 피해형, 체벌 피해형, 신체·복합피해형, 폭력 목적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신체·복합피해형은 현실·사이버폭력 피해 수준이 모두 높아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심층분석 III에서는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고, 중간 수준 또는 부적응 집단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중간 수준 집단은 현실·사이버폭력 가해·피해가 일부 동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정폭력의 유형, 부모의 양육 태도, 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상호작용하면서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폭력 문제는 개인 특성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정서적 발달의 복합적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가정환경-심리·사회적 적응-학교폭력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증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정 영역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회복과 부부관계 개선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영역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폭력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성교육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기반 영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인프라 확충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상의 세부 분석 내용과 정책 제언은 본 사업보고서와 별권인 데이터분석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3) NYPI Bluenote 통계

NYPI Bluenote 통계는 KCYPS 연구성과의 대외 확산을 위해 매년 주요 조사결과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브리프 형태의 보고서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편을 발간하였다.

2025년에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등을 요약·분석하는 NYPI Bluenote 통계 1편을 2025년 12월에 발간하였다.

표 IV-5. NYPI Bluenote 통계 발간 실적(2011년~2024년)

연도	제목	연구자
2011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실태	이경상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백혜정
	중1 학생들의 활동유형별 생활시간 실태	이종원
201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서정아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시간 실태	이경상
	청소년 학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학교 2학년의 컴퓨터 활용실태 분석	성은모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실태	배상률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의 생활시간 변화	서정아
	중학교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사회적 발달	황진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코호트 자료 분석	이종원
	중학생의 휴대전화 이용행태 추이 분석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모상현
2014	중학생 여가시간의 변화 분석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은주
	성인용 매체 몰입과 성비행의 인과관계 : KCYPs 중1 코호트 자료 분석	이종원
	청소년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 실태	황진구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이종원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서정아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정은주
2016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 실태 비교	모상현, 한지형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중1 코호트	정윤미
	고교생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	이종원
2017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하형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최용환, 한지형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종단적 변화	정은진, 정윤미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하형석, 이종원, 김성은, 한지형, 구본호
2019	부모 개인의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하형석, 김성은, 이용해, 구본호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황진구, 김윤희, 정윤미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변주영

3. 데이터 이용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⁴²⁾

1) 데이터 이용실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패널조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조사결과와 데이터의 이용실적이라 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사업 목적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공개된 KYPs 2003, 2011년부터 공개된 KCYPs 2010, 2019년부터 공개된 KCYPs 2018 데이터의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데이터가 처음 공개된 2004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학위논문(박사 및 석사),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보고서/단행본 등을 포함한 데이터 이용실적⁴³⁾은 총 4,419편 정도로 파악되었다.

표 IV-6.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이용실적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4,419	100.0	1,141	100.0	2,100	100.0	1,178	100.0
학위 논문	박사	167	3.8	46	4.0	90	4.3	31	2.6
	석사	627	14.2	133	11.7	331	15.8	163	13.8
학술지 논문		2,757	62.4	710	62.2	1,287	61.3	760	64.5
학술대회 발표논문		712	16.1	202	17.7	306	14.6	204	17.3
보고서/단행본		156	3.5	50	4.4	86	4.1	20	1.7

* 2025년 9월 기준 집계치임.

42)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29-13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43) 데이터 활용 논문/보고서 목록은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에 제공됨.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의 데이터 이용실적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419편의 연구에서 패널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KYPS 2003이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1년간 1,141편, KCYPS 2010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2,100편, KCYPS 2018이 2019년부터 약 7년간 1,178편의 이용실적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KYPS 2003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져 2007~201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이용이 이어졌으며, KCYPS 2010은 2015년 이후 매년 200편 이상으로 이용실적이 급증하여 가장 높은 누적 활용도를 보였다. KCYPS 2018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매년 이용이 증가하여 2023년 249편, 2024년 173편, 2025년 9월 기준 124편의 이용실적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이용실적은 주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검색을 통해 집계되고 있어, 실제 이용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술 및 정책 연구에서의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표 IV-7.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연도별 데이터 이용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데이터 이용 실적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전 체	4,419	1,141	2,100	1,178
2004년	31	31		
2005년	56	56		
2006년	81	81		
2007년	109	109		
2008년	113	113		
2009년	119	119		
2010년	110	110		
2011년	119	85	34	
2012년	196	107	89	
2013년	202	75	127	
2014년	234	61	173	
2015년	285	59	226	
2016년	309	38	271	
2017년	346	26	320	
2018년	305	32	270	3
2019년	281	18	227	36
2020년	328	13	178	137
2021년	321	3	93	225
2022년	280	3	46	231
2023년	269		20	249
2024년	188	1	14	173
2025년	137	1	12	124

2) 데이터 이용실적 상세 분석, 활용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조사결과 데이터가 학술논문의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데이터 이용의 내용 중 어떠한 조사항목이나 변인 등이 주로 활용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의 상세 분석, 그리고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⁴⁴⁾을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학술 논문은 총 2,757편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 15편에서 출발해 2018년 223편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후 2025년에는 105편으로 감소하였다. 등재 유형별로는 KCI 등재지가 2,104편(76.3%)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재지가 505편(18.3%), KCI 우수등재지는 98편(3.6%)이었다. 국제 학술지(SSCI/SCIE) 게재 논문은 32편(1.2%)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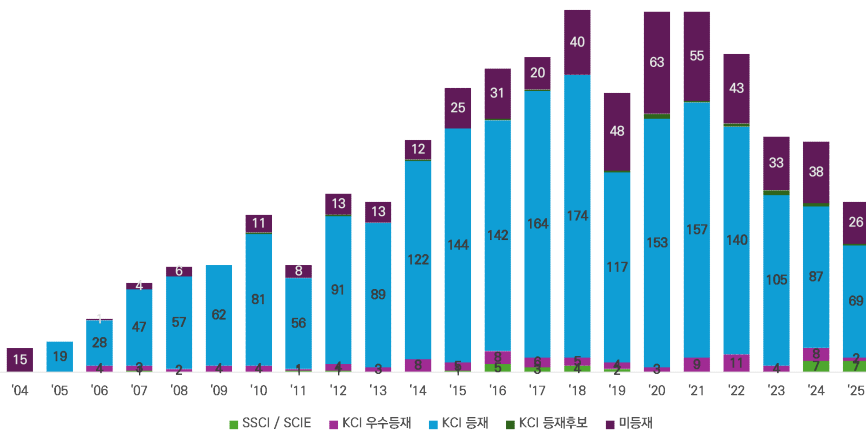


그림 IV-4.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등재구분별 현황

200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등재 학술지 논문은 총 2,252편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1,713편(76.1%)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복합학 152편(6.7%), 자연과학 126편(5.6%), 기타 98편(4.4%), 공학 52편(2.3%), 의약학

44) 데이터 이용실적 정제, 키워드 정리 방법, 상세 분석 결과들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음.

49편(2.2%), 인문학 29편(1.3%), 예술·체육학 30편(1.3%), 농수해양학 3편(0.1%) 순이었다.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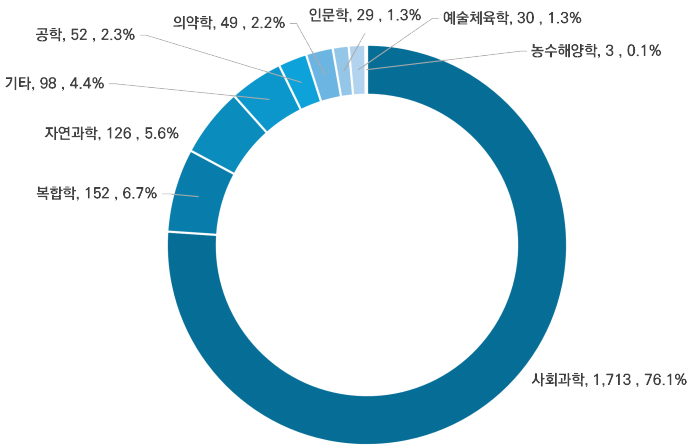


그림 IV-5.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대분류별 현황

중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등재 논문 2,252편 중, 기타 사회과학이 548편(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 471편(20.9%), 사회복지학 308편(13.7%)이 뒤를 이었다. 학제간 연구 143편(6.3%), 생활과학 115편(5.1%), 나머지 667편(29.6%)은 기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이 기타 사회과학·교육학·사회복지학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분야의 활용은 각각 10% 미만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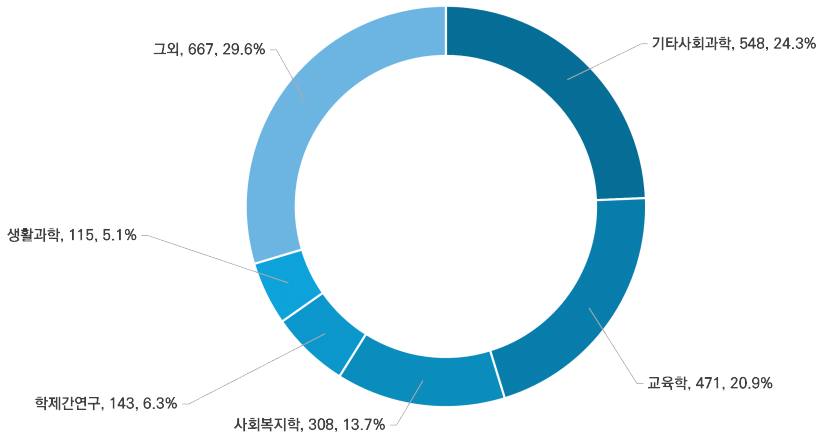


그림 IV-6.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중분류별 현황

패널데이터 이용실적의 키워드 분석 결과는 지난 20여 년간 아동·청소년 연구의 주제 변화와 학문적 관심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제1기(KYPs 2003)는 비행(182회), 스트레스(73회), 자아존중감(71회), 우울(62회), 공격성(56회)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이 연구의 중심이었다. 종단적, 검증, 발달계적 등의 용어가 다수 등장한 것은 장기추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발달과 행동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제2기(KCYPs 2010)는 연구의 관심이 디지털·관계적 영역으로 확장된 시기였다. 휴대전화(스마트폰)(226회)가 1위를 차지하고, 우울(212회), 학교생활적응(201회), 또래애착(167회)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정서, 또래 관계가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154회), 양육태도(109회), 공동체의식(98회), 다문화(78회)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가족환경·사회구조 변화와 공동체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기(KCYPs 2018)는 휴대전화(261회), 의존(214회), 그릿(210회), 양육태도(201회), 자아존중감(168회)이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의존 문제와 더불어 긍정심리학적 요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시기였다. 특히 그릿, 행복감, 긍정적, 진로적응력 등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이버비행(37회), 주의집중(23회) 등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행동 주제도 등장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에 대한 학술연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구 주제가 시대 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1기(KYPS 2003)에서는 비행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나타나,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분석되었다. 당시 연구자들은 청소년 비행을 단순한 문제행동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려 했다.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가족 등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초기 연구가 비행 예방 중심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제2기(KCYPS 2010)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문제행동에서 심리적 보호요인과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자아탄력성, 만족도, 우울, 학교생활적응, 양육태도 등이 중심 주제로 나타났고, 특히 스마트폰 의존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학교 생활 적응, 미디어 사용 습관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연구로 확장된 흐름을 반영한다. 자아존중감-또래애착, 양육태도-자아존중감 등 가정, 학교, 또래 관계의 연결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청소년 발달을 심리, 가정, 사회 환경이 맞물린 생태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제3기(KCYPS 2018)에서는 그릿(Grit)이 새로운 중심 키워드로 등장하며, 청소년 발달 연구의 방향이 다시 한 번 전환되었다. 기존의 위협요인 분석을 넘어 자기조절력, 회복탄력성, 성취동기 등 긍정적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휴대전화(스마트폰), 의존, 학업무기력, 우울 등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해,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와 학업 동기,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양육태도-의존, 우울-스마트폰과 같은 연결은 가정환경과 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태도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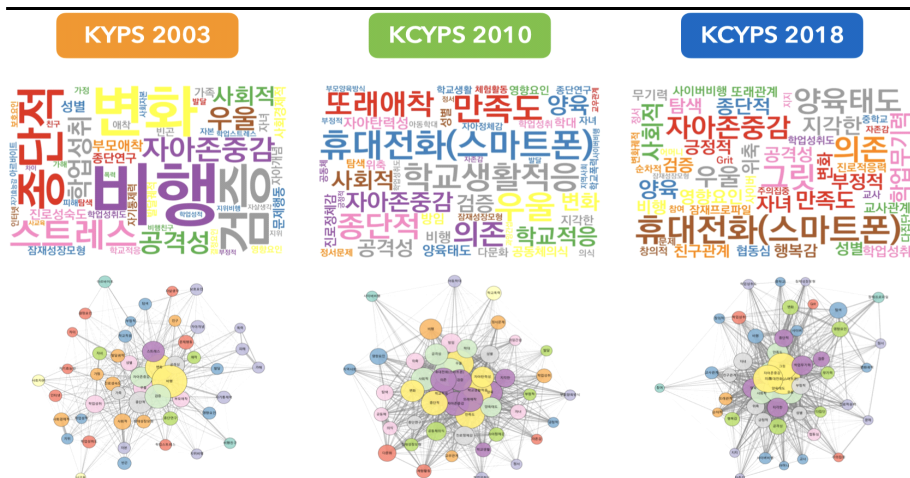


그림 IV-7.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개별 데이터 이용 실적 주요 키워드

3)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

KCYPs 조사의 내용과 방법, 데이터 제공 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도 KCYPs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회장에서 설문지 링크를 연결하여 웹조사로 진행하였다.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문항은 전반적 만족도, 제공된 데이터 이용(SPSS, SAS, STATA, R, CSV 등), 이용자 편의를 측정하는 코드북 이용(구성, 변수명, 코드 설명 하이퍼링크 등), 데이터 품질 측정하는 품질의 신뢰성(제공 정보의 신뢰성 정도), 품질의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품질의 다양성(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정도), 연구생산성 기여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데이터 이용자 의견 조사는 KCYPs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주제나 문항 개발, 데이터 관리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도별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25년 결과는 2024년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 조사 결과(2022년-2025년)

(5점 평균, 단위: 점)

문 항	2022년 (N=46)	2023년 (N=41)	2024년 (N=86)	2025년 (N=64)
1. 전반적 만족도	4.46	4.41	4.37	4.72
2. 데이터 이용 (SPSS, SAS, STATA, CSV 등)	4.50	4.41	4.47	4.75
3. 코드북 이용 (구성, 변수명, 코드설명, 하이퍼링크 등)	4.37	4.46	4.40	4.66
4. 품질의 신뢰성 (제공 정보의 신뢰성 정도)	4.52	4.54	4.42	4.72
5. 품질의 유용성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4.52	4.51	4.43	4.70
6. 품질의 다양성 (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정도)	4.35	4.46	4.31	4.63
7. 연구생산성 기여	4.59	4.56	4.42	4.75
* 의견: 방과후활동(시간, 유형, 장소 등) 문항 추가,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종류 문항 추가, 부모자녀관계를 더 알아볼 수 있는 문항, 자살관련 문항, 학교에서의 사회성관련 문항, 학업스트레스 등 학업관련 부정적문제에 관한 문항 추가, 기본심리욕구 측정 문항 추가 등 의견				



제5장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 1. 유지조사 개요
- 2. 제8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
- 3. 유지조사 종료

1. 유지조사 개요⁴⁶⁾

최근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년기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적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현재까지 ‘KCYPs 2010’(2010년~2016년)과 ‘KCYPs 2018’(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이 중 KCYPs 2010의 조사대상인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조사가 종료된 2016년 당시 만 19세로, 청년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코호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을 관찰하고자, 2017년부터는 이들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2024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유지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KCYPs 2010 중1 코호트는 현재(2025년 기준) 만 28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청소년기 전 기간에 걸쳐 패널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초자료가 축적된 집단이다. 이로 인해 해당 코호트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지조사는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본조사 수준의 심층조사보다는 패널과의 접촉 유지를 목적으로 간단한 문항 중심의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KCYPs 2010 원패널과 유지조사의 유지율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7차 조사는 본조사로, 2017년 이후는 패널 유지를 위한 유지조사에 해당한다.

45) 이 장은 하형석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46)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37-140)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표 V-1. KCYPs 2010 원패널 유지율 및 유지패널 유지율

구분		전체	초1 코호트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제1차 조사 (2010)	원패널 수	7,071	2,342	2,378	2,351
제2차 조사 (2011)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6,808 (96.3%)	2,264 (96.7%)	2,264 (95.2%)	2,280 (97.0%)
제3차 조사 (2012)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6,678 (94.4%)	2,200 (93.9%)	2,219 (93.3%)	2,259 (96.1%)
제4차 조사 (2013)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6,319 (89.4%)	2,119 (90.5%)	2,092 (88.0%)	2,108 (89.7%)
제5차 조사 (2014)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6,271 (88.7%)	2,110 (90.1%)	2,070 (87.1%)	2,091 (88.9%)
제6차 조사 (2015)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6,184 (87.5%)	2,067 (88.3%)	2,061 (86.7%)	2,056 (87.5%)
제7차 조사 (2016)	조사성공 패널 수 (패널 유지율)	5,862 (82.9%)	2,002 (85.5%)	1,979 (83.2%)	1,881 (80.0%)
유지 1차 (2017)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623 (69.0%)
유지 2차 (2018)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833 (78.0%)
유지 3차 (2019)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591 (67.7%)
유지 4차 (2020)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619 (68.9%)
유지 5차 (2021)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622 (69.0%)
유지 6차 (2022)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656 (70.4%)
유지 7차 (2023)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416 (60.2%)
유지 8차 (2024)	유지 패널 수 (패널 유지율)				1,309 (55.7%)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면 청소년에서 청년·성인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 이행기의 복합적 양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다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다. KCYPS 2010 중1 코호트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Z세대⁴⁷⁾에 해당하며, 이들의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 성인기 이행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인구변화 대응, 인재양성 등과 같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매체환경이 이후 성인기의 역량 형성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강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다. 성인기 이행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지적 발달, 진로관, 가정 및 교육환경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 청소년기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저출생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다. 현재 약 만 28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청소년기 성장 및 발달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청년기의 결혼관과 출산관이 청소년기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가정경제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분화된 저출생 대응정책과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다. 청소년기의 사회정서발달, 생활시간, 친구관계, 문화활동 경험 등이 청년기의 문화적 수요와 여가활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청년의 문화적 자기표현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후속 연구나 조사개발 등을 통해 이들의 청소년기에 실시된 조사 데이터와

47)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 분류되는 세대로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청소년기부터 가까이한 첫 세대로 정의함.

결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및 정책적 개입들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인 올해부터 수행되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은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 예정인데, 이 연구에서 본 유지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⁴⁸⁾를 실시한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의 추적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제8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⁴⁹⁾

1) 제8차 유지조사(2024년) 성공률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조사 링크가 포함된 조사 참여 안내 문자(LMS)를 1~6차에 걸쳐 패널 및 패널 보호자 유효 번호로 송부하였고, 예비 응답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3~4일 간격으로 2차까지는 패널 당사자에게, 3~4차는 패널의 보호자를 혼합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다. 또한, 직전 유지조사인 2023년도 제7차 조사 당시 수집했던 개인정보 중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 패널에게 조사 안내문과 링크를 발송하였다(2024년 11월 18일(월): 1,665명 / 2024년 11월 25일(월): 1,070명). 이메일로 진행된 건수는 전체 완료 수 1,109명 중 140명(12.6%)으로 나타나, 2023년 52명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 밖의 방안으로 패널 보호자의 유무선 전화를 통해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전화를 통한 조사 참여 독려는 조사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년도 조사를 고려하여 해당 전화번호가 패널 및 패널 보호자의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패널 및 보호자가 문자 재발송을 원하는 경우 면접원이 전화종료 후 바로 문자를 재발송하는 방식으로 유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독려전화는 조사 미완료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패널 및 보호자가 문자 재발송을 원하는 경우 면접원이 전화종료 후 바로 문자를 재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48)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에서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가 진행되므로, 패널 유지를 위한 유지조사는 2024년 제8차 유지조사를 끝으로 종료함.

49)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40-14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2024년 12월에 실시한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의 유지율은 크게 접촉 성공의 유지율과 별도의 웹조사 성공률로 구분되며, 2024년 제7차 조사의 접촉 성공률은 전체 원패널 2,351명 중 1,309명으로 55.7%이며, 패널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1,042명 (44.3%)의 경우 전화 비수신 및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334명(14.2%), 강력거절이 209명 (8.9%)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접촉(연락) 성공률

항목		2025년(8차) (만 27세)		2023년(7차) (만 26세)		2022년(6차) (만 25세)		2021년(5차) (만 24세)		2020년(4차) (만 23세)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체 원패널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①패널 접촉 성공		1,309	55.7	1,416	60.2	1,656	70.4	1,622	69.0	1,619	68.9
②패널 접촉 불가		1,042	44.3	935	39.8	695	29.6	729	31.0	732	31.1
패널 접촉 불가 사유	②-1 강력거절 (기존 사례 포함)	209	8.9	208	8.8	202	8.6	187	8.0	174	7.4
	②-2 번호 오류 (결번 등)	17	0.7	44	1.9	16	0.7	19	0.8	33	1.4
	②-3 비수신 (통화연결 안됨 등)	334	14.2	597	25.4	387	16.5	402	17.1	405	17.2
	②-4 대상자 아님	6	0.3	7	0.3	14	0.6	51	2.2	71	3.0
	②-5 추적불가	476	20.2	79	3.4	76	3.2	70	3.0	49	2.1

접촉(연락)에 성공한 패널(1,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8차 유지조사에는 총 1,10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접촉과 연락에 성공한 패널의 84.7%에 해당하고, 전체 원패널 2,351명의 47.2%에 해당한다.

표 V-3.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성공률

항목		2024년(8차) (만 27세)		2023년(7차) (만 26세)		2022년(6차) (만 25세)		2021년(5차) (만 24세)		2020년(4차) (만 23세)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체 원패널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① 유지 조사 성공		1,109	47.2	1,176	50.0	1,364	58.0	1,436	61.1	1,420	60.4
②유지 조사 실패		1,252	52.8	1,175	50.0	987	42.0	915	38.9	931	39.6
조사 실패 이유	②-1 접촉 성공 중 미참여	200	8.5	240	10.2	292	12.4	186	7.9	199	8.5
	②-2 접촉 불가	1,042	44.3	935	39.8	695	29.6	729	31.0	732	31.1

2) 유지조사(2024년 12월, 제8차) 주요 결과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패널 유지 목적의 조사로 조사항목은 분석이나 연구목적의 Outcome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Output을 조사한다.

유지조사의 가장 중요한 조사 문항인 현재 상태를 묻는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24년 12월 실시된 유지조사 대상(2010년 기준 중1(당시 만 12세-13세)로 2024년 12월은 대부분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27세에 해당) 현재 상태는 학생이 6.0%(4.3%+1.7%), 직장인이 74.9%(3.0%+71.9%), 무직이 19.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25-29세의 2024년 고용률은 72.5%로, 이 연령구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에 대한 Output의 추정치는 실제 모집단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4. 현재 상황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 (주된 신분은 학생)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주된 신분은 직장인)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8	4.3	19	1.7	33	3.0	797	71.9	212	19.1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에 대해 화목한 가정이 30.2%로 1순위로 나타났고, 재산/경제력이 29.3%로 2순위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결과에 비해 1순위와 2순위가 바뀐결과이다. 다음 요건으로 건강(13.4%), 감사/긍정적 태도(10.3%), 꿈/목표 의식(6.2%)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직장은 1.5%, 연인은 0.3%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직업/직장과 연인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

화목한 가정	재산/경제력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의식	자아성취	친구/대인관계	직업/직장	종교생활	연인 (이성관계 등)
313 (30.2%)	304 (29.3%)	139 (13.4%)	107 (10.3%)	64 (6.2%)	61 (5.9%)	23 (2.2%)	16 (1.5%)	7 (0.7%)	3 (0.3%)

3. 유지조사 종료⁵⁰⁾⁵¹⁾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2017년부터 패널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다. 본 조사는 KCYPS 2010 본조사(2010~2016년) 종료 이후에도 원패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청년기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심리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유지조사는 본조사에 비해 간소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패널의 연락체계 유지와 향후 본격적인 종단연구로의 연결고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매년 조사 과정에서 패널의 연락처 변경, 거주지 이동, 군 복무, 해외 체류, 취업 등 다양한 변화를 관리함으로써, 장기패널로서의 데이터 연속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KCYPS 2010 중1 코호트는 2025년 기준 만 28세에 해당하는 세대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Z세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집단이

50)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37-145)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5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제1차-제8차 데이터는 코드북 및 조사표와 함께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에 공개.

다. 이들의 청소년기 자료는 이미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유지조사를 통해 확보된 청년기 기초자료는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평가된다.

유지조사는 2017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24년 제8차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는 온라인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독려를 위해 문자(LMS), 이메일, 유·무선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였다. 매년 일정 규모의 유지조사 응답률을 확보하며 패널의 참여를 유지해 온 점은 KCYPS가 장기적 조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조사는 본조사 수준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예산과 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설문은 주로 패널의 연락체계 유지와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확인에 초점을 두었으며, 심층 분석을 위한 본격적인 데이터 축적은 차기 종단연구로의 전환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25년 시작된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에서 KCYPS 2010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되며, 청소년기부터 축적된 KCYPS 2010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의 다차원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학업·직업·가족형성·경제적 자립·문화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기의 경로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경험이 청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2024년 제8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패널 구축 후 7년간의 본조사, 이후 8년간의 유지조사를 통해 패널과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본조사로의 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표본 기반을 확보하였다. 향후 본조사에서는 유지조사에서 확보된 패널 정보를 토대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성인기 이행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KCYP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의 종료는 단순한 사업의 마무리가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종단연구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지조사를 통해 쌓아온 데이터와 관리 경험은 향후 본조사의 설계와 분석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성장경험이 청년기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 및 생애주기 기반 정책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김국현, 김진숙 (2021).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타당화: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 **청소년학연구**, 28(2), 239-269.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 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 IEA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명, 황대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신진옥, 박정민, 최승주, 홍석철. (2018). 시간 선호 안정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대상 경제학 실험. *시장경제연구*, 47(3), 1-42.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2015**.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이준, 유숙경, 이윤옥. (2021). 초·중학생용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원교육*, 37(4), 215-240.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8(1), 27-47.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현기, 이정은, 김진경, 강규현, 이수미, 현명호 (2016).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 (K-HF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607-621.

[외국문헌]

Alan, S., Baydar, N., Boneva, T., Crossley, T. F, & Ertac, S. (2017). Transmission of risk preferences from mothers to daughter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4, 60-77.

Axinn, W. G., & Thornton, A. (199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dissolution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Demography*, 33(1), 66-81.

Brenøe, A., A., & Epper, T. (2022). Parenting values and the intergenerational

- transmission of time preferences. *European Economic Review*, 148, 10420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H., & van der Pol, M. (2015)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time and risk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9, 187-204.
- Cordero-Coma, J., & Esping-Andersen, G. (201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roles: Children's contribution to housework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4), 1005-1019.
- Cunningham, M. (2001).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gender and household labor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11-122.
- Cunningham, M., & Thornton,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4), 659-672.
- De Vries, J., Kalmijn, M. & Liefbroer, A. C. (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kinship norms? Evidence from siblings in a multi-actor survey. *Social Science Research*, 38, 188-200.
- Diederich, F., König, H.-H., & Bretschneider, C. (202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ilial norms and children's provision of long-term care to parents. *Ageing & Society*. 45. 5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hmen ,T., Falk, A., Huffman, D., & Sunde, U. (201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isk and trust attitudes. *Review of Economics Studies*, 79(2), 645-677.
- Duncan, O. D., Freedman, R., Coble, J. M., & Slesinger, D. P. (1965). Marital fertility and size of family of orientation. *Demography*, 2(1), 508-515.
- Gough, H. G., & Heilbrun, A. B., Jr.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ng, B., Kim, K., & Su, Y. (202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isk preferences: Evidence from field experiments in China and Kore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5(1), 151-173.
- Jennings, J. A., Sullivan, A. R., & Hacker, J. D. (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eproductive behavior during the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2(4), 543-569.
- Keijer, M. G., Liefbroer, A. C., & Nagel, I. (2018). Adolescents' expectations about the timing of family life events: Unraveling the role of value transmission and modeling. *Journal of Family Issues*, 39(15), 3755-3777.
- Kolk, M. (2015). The causal effect of an additional sibling on completed fertility: An estimation of intergenerational fertility correlations by looking at siblings of twins. *Demographic Research*, 32(51), 1409-1420.
- Kosse, F., & Pfeiffer, F. (2013). Quasi-hyperbolic time preferences and their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pplied Economics Letters*, 20(10), 983-986.
- Lynn, P. (2006). Attrition and response burden in longitudinal surveys. In *Methodology of Longitudinal Surveys*, edited by P. Lynn, pp. 105-124.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Moen, P., Erickson, M. A., & Dempster-McClain, D. (1997). Their mother's daughter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attitudes in a world of changing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2), 281-29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chönpflug, U., & Yan, S. (2014) Deviation from zeitgeist and motivation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values in East Germany and Shanghai, China.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5(1), 58-85.

- Singh, A., Kumari, A., Thakre, J., Agarwal, K., & Shakchi, R. (202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isk and trust attitude in the Indian Demographics. *International Journal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5(5), 1-22.
- Tenenbaum, H. R., & Leaper, C. (2002). Are parents' gender schemas related to their children's gender-related cognitions?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615-630.
- Thaler, E. P. (1981). Some empirical evidence on dynamic inconsistency. *Economics letters*, 8(3), 201-207.
- Whitbeck, L. B., & Gecas, V. (1988). Value attributions and value transmiss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829-840.
- Willoughby, B. J., Carroll, J. S., Vitas, J. M., & Hill, L. M. (2012).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itudes regarding marital timing and marital importance. *Journal of Family Issues*, 33(2), 223-245.
- Williams, C. D., Bravo, D. Y., Umana-Taylor, A. J., Updegraff, K. A., Jahromi, L. B., Martinez-Fuentes, S., & Elias, Md. de J. (2020).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socialization and effects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competencies among Mexican-origi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6(2), 199-207.
- Yin, Y. (202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rtility: evidence from China's population control policies.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Advance online publication*, 1-32.
- Zerach, G., Levin, Y., Aloni, R., & Solomon, Z. (201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aptivity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twenty three-year longitudinal triadic stud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1), 114-121.

[참고 사이트]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www.nypi.re.kr/archive>.

○ — 부 록

부록

부록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조사문항 출처

부록2.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아동·청소년용(초등) 설문지

부록3.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아동·청소년용(중등) 설문지

부록4.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아동·청소년용(성인) 설문지

부록5.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보호자용 설문지

부록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7.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인식구조 분석 전체 결과표

부록8. 데이터 이용실적 정제, 키워드 정리 방법, 상세 결과표 및 그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조사문항 출처

부록 표 VI-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문항 출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개인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 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발달환경	매체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 여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의존도	김동일 외(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pp.629-644.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15 문항 사용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이준 외(2021). 초·중학생용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원교육, 37(4), pp.215-240. 디지털 시민성 척도 29문항 사용
	활동/문화 환경	청소년활동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참고하여 구성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팬덤활동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팬덤 활동 빈도	
개인발달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교육과정	학업성취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체개발
			선호교과	
			강점교과	
발달환경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개인발달	지적발달	학업태도	학업 열의	이자영, 이상민(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 연구 24(1), pp.131~147. 한국형학업열의척도 16문항 사용
			학업 무기력	박병기 외(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pp.5~29 학업무기력 척도 16문항 사용
	진로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장래직업 결정여부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진로적응력	
	사회/정서/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Diener et al.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삶의 만족도 척도(SWLS) 번안문항 사용
			행복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2015.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원문항을 번안하여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개인발달	사회/정서/역량발달 가정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pp.729-746. 중복문항 제외 및 문항 수정하여 사용
			사회적 위축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pp.155-166. 중복문항 제외 및 문항 수정하여 사용
			우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김광일 외(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
		협동의식	협동심	김태준 외(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 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 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협동영역 14문항 사용.
		창의성	창의적 성격	Gough, H. G., and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원문항을 번안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끈기	그릿(Grit)	최인수, 표정민(2014) 문항 사용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pp.63-74. Grit척도 8문항 사용
		결혼/출산관	결혼관	사회조사(통계청).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출산관	
발달환경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 사용
		형제자매	형제자매 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체개발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간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pp.313-333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 24문항 사용
		부모동거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 사용
	학교	친구	친구관계	배성만 외(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한국청소년학회 pp.325-344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 사용
		교사	교사관계	김종백, 김남희(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pp.697-714 학생-교사애착관계척도 14문항 사용
		대학	대학 특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전공 선택 고려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등록금	
			대학 만족도	
	직장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아르바이트 만족도	
		직장	직장 특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취업 경로	
			희망 직업여부	
			직장 만족도	
			이직 의사	
			진학 의사	
		무직	진학/취업 준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진학/취학 가능성	
			진학/취업 미진 이유	
개인발달	비행	비행 I	현실비행 (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비행 II	사이버비행 (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이승현 외(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 태조사 문항 중 사이버비행 관련 가해경험 15문 항 사용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신체	키, 몸무게, 몸정/생리 여부	
스페셜 모듈	2022년 진로준비도		희망직업의 주관적 성취 여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기존문항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희망직업 선택 요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 사용
			진로준비 활동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기존문항 사용
	2023년 학교폭력 및 적응, 지역사회 인식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별 경험 시기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피해 경험 후 신고 및 도움 요청 대상	학교폭력실태조사(2022) 수정·보완함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수정·보완함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수정·보완함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Salmivalli와 Voeten(2004)의 PRQ 간편형을 번안하여 사용
			지역사회 인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공동체 의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다문화 수용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2024년 결혼관/출산관, 시간 선호,		결혼관	사회조사(통계청).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출산관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용서하는 성향	시간 선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의 관련문항 수정·보완함	
		용서하는 성향	홍현기 외 (2016).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K-HF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607-621. 용서하는 성향 측정 18문항 사용	
	2025년 진로준비도	진로계획, 진로탐색, 진로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2022년도 스페셜 모듈 문항	

부록 표 VI-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호자 조사 항목 출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배경변인		자녀 출생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가정	구성원	가구 구성원	
		구성원 역할	조사대상(자녀)에 대한 역할별 가구원	
		조사대상 관계	조사대상(자녀)과 함께 보내는 시간 (평일/주말)	
	교육	사교육	조사대상(자녀)의 사교육 유무, 사교육 받은/받지 않은 이유, 월평균 교육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신규 문항
	가정	보호자 관점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업성취 정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교 성적 만족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보호자가 바라는 조사대상(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보호자 개인	매체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여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의존도	김동일 외(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pp.629-644.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15 문항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이준 외(2021). 초·중학생용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원교육, 37(4), pp.215-240. 디지털 시민성 척도 29문항 사용
보호자 개인	사회/정서/ 역량	만족도	삶의 만족도	Diener et al.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삶의 만족도 척도(SWLS) 번안문항 사용
		행복	행복감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2015.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 사용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원문항을 번안하여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창의성	창의적 성격	Gough, H. G., and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원문항을 번안한 최인수, 표정민(2014) 문항 사용
		끈기	그릿(Grit)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pp.63-74. Grit척도 8문항 사용
		결혼/출산관	자녀의 결혼/출산관	사회조사(통계청).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본인의 결혼/출산관	
	신체	건강	건강상태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신체	키, 몸무게	
배경변인			보호자 출생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보호자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경제수준 평가	
			근로여부, 직업분류	김기현 외(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2016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스페셜 모듈	2022년 진로준비도	자녀의 희망직업 선택 요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 사용	
		진로준비 활동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2023년 학교폭력 및 적응, 지역사회 인식	자녀의 가해 및 피해 경험 인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의 기존문항 보호자용으로 수정·보완함	
		자녀의 피해 경험 후 도움 요청 및 도움 유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PS 2018) 자체개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수정·보완함	
		지역사회 인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공동체 의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다문화 수용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문항	
	2024년 결혼관/출산관, 시간 선호, 용서하는 성향	자녀 결혼관	사회조사(통계청).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자녀 출산관		
		본인 결혼관		
		본인 출산관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시간 선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의 관련문항 수정·보완함
			용서하는 성향	홍현기 외 (2016).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 (K-HF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607-621. 용서하는 성향 측정 18문항 사용
	2025년 진로준비도		진로계획 진로탐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2022년도 보호자용 스페셜 모듈 문항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용(초등) 설문지

KCYPS 2018 원패널(초4 코호트)의 형제자매 중 초등학생
KCYPs 2025 원패널(초4 코호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Gallup 한국갤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244
E-mail : kcyps2018@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패널전용 휴대전화)
카카오채널 :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


문 1) **지난 학기(2025년 1학기)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1) 기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2) 취침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항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대화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원 및 과외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방과 후 학교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독서시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학교 수업시간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위의 8)~1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2)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3]으로 이동

문 2-1)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2-2)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자료를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고민한 후 가입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 목적(예, 학습, 소통, 정보 검색 등)에 맞게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 등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하거나 스팸 메일 차단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안전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보안에 유의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스팸,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난, 질병, 가정불화 등으로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족, 친구 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괴롭힘이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나도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만든 콘텐츠를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힌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하여 옳은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과 오프라인 활동(커뮤니티 활동, 정보, 게임 클랜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일자리 감소 혹은 변화 등)을 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의견 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만큼 디지털 방식으로도(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소통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나만의 취향(스타일)이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24)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강점과 장점 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이나 영상의 내용은 평소 내 행동, 생각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친한 사람의 말이라 도 꼼꼼 히 따져 보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본 정보가 평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있는 글이나 자료는 유튜브나 매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4)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5)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6)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7) 본인이 좋아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문 8)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문 9)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문 10)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 | | |
|---------------|-------------------|
| 1. 고등학교 졸업 |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 3. 4년제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
| 5. 잘 모르겠음 | |

문 11)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문 11-1) **([문 11]에서 ②, ③ 에 응답한 사람만)** 장래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12)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 요하지 않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 요하다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수입(임금)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①	②	③	④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9)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직장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13)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

문 항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⑧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⑧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⑧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⑧
6) 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⑧
7) 학원/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⑧
8)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⑧

문 14)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15-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15-2)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①	②	③	④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①	②	③	④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①	②	③	④
16) 속이 자주 메스꺼린다	①	②	③	④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수줍어한다	①	②	③	④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29)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3) 외롭다	①	②	③	④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하지 말아야 한다 |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4. 하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해야 한다 | |

문 21) 귀하는 아이를 낳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낳지 말아야 한다 | 2. 낳지 않는 것이 좋다 |
| 3.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 4. 낳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낳아야 한다 | |

문 22)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2a) 평일(하루 평균)	22b) 주말(하루 평균)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문 23)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문 23-1) 귀하는 형제자매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순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3-1a) 평일(하루 평균)	23-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둘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셋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문 24)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십니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25)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2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	①	②	③	④
1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27)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28)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29)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30)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용(중등) 설문지

KCYPs 2018 원패널(초4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중 중·고등학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Gallup 한국갤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244
E-mail : kcyps2018@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패널전용 휴대전화)
카카오톡채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


문 1) **지난 학기(2025년 1학기)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1) 기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2) 취침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항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대화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원 및 과외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방과 후 학교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독서시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학교 수업시간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위의 8)~1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2)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3]으로 이동

문 2-1)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2-2)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자료를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고민한 후 가입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 목적(예, 학습, 소통, 정보 검색 등)에 맞게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 등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하거나 스팸 메일 차단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안전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보안에 유의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스팸,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난, 질병, 가정불화 등으로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족, 친구 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괴롭힘이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나도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만든 콘텐츠를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힌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하여 옳은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과 오프라인 활동(커뮤니티 활동, 정보, 게임 클랜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일자리 감소 혹은 변화 등)을 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의견 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만큼 디지털 방식으로도(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소통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나만의 취향(스타일)이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24)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강점과 장점 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이나 영상의 내용은 평소 내 행동, 생각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친한 사람의 말이라 도 꼼꼼 히 따져 보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본 정보가 평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있는 글이나 자료는 유튜브나 매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4)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참여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을 위하여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 위하여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을 말함

활 동	3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3b)(참여한 적이 있다면)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4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4b) (참여한 적이 있다면)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교내 공식 동아리 (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교외 공식 동아리 (청소년수련관, 사회 복지관 등에서 지원 하는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6)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1. 있다  **[문6-1]로 이동** 2. 없다  **[문7]로 이동**

문 6-1) **([문6]에서 ‘1. 있다’ 인 경우만 응답)**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팬미팅(싸인회) 참석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팬클럽이나 팬카페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방송국이나 공연장, 영화관(시사회), 경기장, 행사장가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팬레터 쓰기 및 메시지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선물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사진과 동영상 감상 및 업로드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책, CD, DVD, 화보집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굿즈(응원봉, 캐릭터, 플래카드, 인형 등) 만들기 또는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8)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9)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10) 본인이 좋아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	

(선택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기타 (적을 것 :))	

(고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 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		-	

(전문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문 11)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	

(선택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기타 (적을 것 :))	

(고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 · 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		-	

(전문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경영 · 금융		보건 · 복지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미용	
관광 · 레저		식품 · 조리	
건축 · 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 · 의류		전기 · 전자	
정보 · 통신		환경 · 안전 · 소방	
농림 · 축산		수산 · 해운	
융복합 · 지식 재산			

문 1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6)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7)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2)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14)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 | | |
|---------------|-------------------|
| 1. 고등학교 졸업 |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 3. 4년제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
| 5. 잘 모르겠음 | |

문 15)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문 15-1) **([문 15]에서 ②, ③에 응답한 사람만)** 장래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16)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수입(임금)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①	②	③	④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9)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직장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

문 항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6) 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⑤
7) 학원/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18-1)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 경험이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참여 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와 직업' 수업	1	2	1----	2----	3----	4----	5
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1	2	1----	2----	3----	4----	5
3)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1	2	1----	2----	3----	4----	5
4) 진로 관련 상담	1	2	1----	2----	3----	4----	5
5)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1	2	1----	2----	3----	4----	5
6)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1	2	1----	2----	3----	4----	5
7)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1	2	1----	2----	3----	4----	5

문 항	참여 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학업 설계 워크숍	1	2	1	2	3	4	5
9) 현장 견학	1	2	1	2	3	4	5
10) 현장 직업 체험	1	2	1	2	3	4	5
11) 직업 실무 체험	1	2	1	2	3	4	5
12) 진로 캠프	1	2	1	2	3	4	5
13)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1	2	1	2	3	4	5
14) 직업박람회	1	2	1	2	3	4	5
15) 진로 관련 책/잡지	1	2	1	2	3	4	5
16)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1	2	1	2	3	4	5

문 18-2)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 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한 번 이상 있다
2. 전혀 없다

문 18-3) **(문 18-2)에서 ‘1. 한 번 이상 있다’인 경우만 응답)**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자신이 향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5.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정말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세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 선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주 공상하지만 실제로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 20)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21-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21-2)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2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2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①	②	③	④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①	②	③	④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①	②	③	④
16)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①	②	③	④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수줍어한다	①	②	③	④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29)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3) 외롭다	①	②	③	④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 2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25)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선택(O)	단어	선택(O)
유능한		매력적인	
영리한		속물의	
확신에 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화자찬의		가식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개인주의적인		평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수적인	
통찰력이 있는		관습적인	
지적인		불만에 찬	
관심이 다양한		정직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관심의 폭이 좁은	
독창적인		예의바른	
심사숙고하는		진실한	
기지가 있는 (재치있는, 임기응변의)		순종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의심이 많은	

문 26)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27)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하지 말아야 한다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 하는 것이 좋다

5. 반드시 해야 한다

문 28) 귀하는 아이를 낳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낳지 말아야 한다

2. 낳지 않는 것이 좋다

3.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4. 낳는 것이 좋다

5. 반드시 낳아야 한다

문 29)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9a) 평일(하루 평균)	29b) 주말(하루 평균)
<div><div></div><div></div></div> 시간 <div><div></div><div></div></div> 분	<div><div></div><div></div></div> 시간 <div><div></div><div></div></div> 분

문 30)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문 30-1) 귀하는 형제자매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순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30-1a) 평일(하루 평균)	30-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둘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셋째 형제자매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div> <div></div> <div></div> </div> 시간 <div> <div></div> <div></div> </div> 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문 31)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십니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	①	②	③	④
1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34)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 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 마시기(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마시는 경우는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3)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패싸움	①	②	③	④	⑤	⑥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른 사람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빙뜰기)	①	②	③	④	⑤	⑥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2) 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14) 돈을 걸고 도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5) 심한 욕설과 폭언	①	②	③	④	⑤	⑥

문 35)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엽사,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와이파이가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격증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36)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37)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38)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39)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문 40) **몽정/초경**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2. 초등학교 1-3학년 |
| 3. 초등학교 4학년 | 4. 초등학교 5학년 |
| 5. 초등학교 6학년 | 6. 중학교 1학년 |
| 7. 중학교 2학년 | 8. 중학교 3학년 |
| 9. 고등학교 1학년 | 10. 고등학교 2학년 이후 |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용(성인) 설문지

KCYPS 2018 원패널의 형제자매 중 성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Gallup 한국갤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244
E-mail : kcyps2018@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패널전용 휴대전화)
카카오톡채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


문 1) **지난 학기(2025년 1학기 또는 2025년 3월-6월)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1) 기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2) 취침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항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대화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원 및 과외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방과 후 학교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독서시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학교 수업시간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위의 8)~1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2)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3]으로 이동

문 2-1)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2-2)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자료를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고민한 후 가입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 목적(예, 학습, 소통, 정보 검색 등)에 맞게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 등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하거나 스팸 메일 차단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안전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보안에 유의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스팸,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난, 질병, 가정불화 등으로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족, 친구 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괴롭힘이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나도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만든 콘텐츠를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힌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하여 옳은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과 오프라인 활동(커뮤니티 활동, 정보, 게임 클랜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일자리 감소 혹은 변화 등)을 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의견 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만큼 디지털 방식으로도(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소통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나만의 취향(스타일)이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24)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강점과 장점 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이나 영상의 내용은 평소 내 행동, 생각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친한 사람의 말이라 도 꼼꼼 히 따져 보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본 정보가 평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있는 글이나 자료는 유튜브나 매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4)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참여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을 위하여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을 말함

활 동	3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3b)(참여한 적이 있다면)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4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4b) (참여한 적이 있다면)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교내 공식 동아리 (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교외 공식 동아리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6)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1. 있다  **[문6-1]로 이동** 2. 없다  **[문7]로 이동**

문 6-1) **([문6]에서 ‘1. 있다’ 인 경우만 응답)**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팬미팅(싸인회) 참석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팬클럽이나 팬카페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방송국이나 공연장, 영화관(시사회), 경기장, 행사장가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팬레터 쓰기 및 메시지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선물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사진과 동영상 감상 및 업로드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책, CD, DVD, 화보집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굿즈(응원봉, 캐릭터, 플래카드, 인형 등) 만들기 또는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교 졸업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5. 잘 모르겠음

문 8)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문 8-1) **(문 8)에서 ②, ③에 응답한 사람만** 장래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음 ⑥
----------------	-----------------	-----------	-------------	-------------	-------------

문 9)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한 편이다 ③	매우 중요하다 ④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수입(임금)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①	②	③	④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9)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직장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

문 항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⑧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⑧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⑧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⑧
6) 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⑧
7) 학원/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⑧
8)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⑧





문 1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정말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세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 선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주 공상하지만 실제로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 12)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13-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13-2)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1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5)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①	②	③	④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①	②	③	④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①	②	③	④
16)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①	②	③	④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수줍어한다	①	②	③	④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29)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3) 외롭다	①	②	③	④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17)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선택(O)	단어	선택(O)
유능한		매력적인	
영리한		속물의	
확신에 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화자찬의		가식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개인주의적인		평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수적인	
통찰력이 있는		관습적인	
지적인		불만에 찬	
관심이 다양한		정직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관심의 폭이 좁은	
독창적인		예의바른	
심사숙고하는		진실한	
기지가 있는 (재치있는, 임기응변의)		순종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의심이 많은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19)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하지 말아야 한다 |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4. 하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해야 한다 | |

문 20)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낳지 말아야 한다 | 2. 낳지 않는 것이 좋다 |
| 3.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 4. 낳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낳아야 한다 | |

문 21)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1a) 평일(하루 평균)		21b) 주말(하루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문 22)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문 22-1) 귀하는 형제자매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순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2-1a) 평일(하루 평균)	22-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형제자매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본인
둘째 형제자매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본인
셋째 형제자매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본인

문 23)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2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2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 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 마시기(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마시는 경우는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3)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패싸움	①	②	③	④	⑤	⑥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른 사람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빙뜰기)	①	②	③	④	⑤	⑥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2) 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14) 돈을 걸고 도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5) 심한 욕설과 폭언	①	②	③	④	⑤	⑥

문 26)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 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엽사,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와이파이가 켜지거나 핫스팟 켜짐(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격증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닷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27)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28)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29)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30)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문 31) **몽정/초경**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2. 초등학교 1~3학년 |
| 3. 초등학교 4학년 | 4. 초등학교 5학년 |
| 5. 초등학교 6학년 | 6. 중학교 1학년 |
| 7. 중학교 2학년 | 8. 중학교 3학년 |
| 9. 고등학교 1학년 | 10. 고등학교 2학년 이후 |

문 32) **【남자만 응답】** 귀하의 **병역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미필) | 2. 현재 군 복무 중이다(현역) |
| 3. 병역을 마쳤다 | 4. 병역 면제자이다 |

문 33) 현재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 |
|--|--|
| 1.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함께 살고 있다 |  【문34】로 이동 |
| 2.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 | |

문 33-1)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교 통학 때문에
2. 직장(직업) 때문에
3.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하여
4.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4) 현재 아르바이트(일 제외)를 하고 있습니까?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직장 근무 또는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일'로 간주하며, 아르바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문35]로 이동

문 34-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비 충당을 위해
2. 학비(등록금, 학원비 등) 마련을 위해
3. 용돈 마련을 위해
4. 장래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해
5. 사회/직업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6.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4-2)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문 35) 현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여기서 '일'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직장 근무 또는 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A. 대학(원)생 조사문항 [문36]로 이동
2.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
주된 신분은 '학생' A. 대학(원)생 조사문항 [문36]로 이동
B. 취업자 조사문항 [문50]로 이동
3.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주된 신분은 '직장인' (*A&B 모두 응답)
4.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B. 취업자 조사문항 [문50]로 이동
5.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C. 무직자 조사문항 [문60]로 이동

A. 대학(원)생 조사문항

문 36)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18. 해외 |

문 37)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2년제 전문대학 | 2. 3년제 전문대학 |
| 3. 4년제 대학교 | 4. 5~6년제 대학교 |
| 5. 대학원 | |

문 38)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국공립 | 2. 사립 |
|--------|-------|

문 39) 현재 학년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학년

문 40) 귀하의 전공(또는 학과, 계열 등)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전공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전공 선택)

전공 계열 구분	세부 전공
1. 인문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영미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육인문학
2. 경제경영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영학
3. 법률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
4. 사회과학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5. 교육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6. 공학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7. 자연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8. 의료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 치의학, 한의학
9. 간호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학
10. 약학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학
11. 치료보건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전공 계열 구분	세부 전공
12. 디자인계열	• 디자인 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13. 응용예술계열	•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14. 무용체육계열	• 무용, 체육
15. 미술조형계열	•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16. 연극영화계열	• 연극영화
17. 음악계열	•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18. 자유전공	

문 41) 현재 다니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다음의 요인들을 얼마나 고려하였습니까?

문 항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였다	매우 고려하였다
1) 사회적 평판(평가)	①	②	③	④
2) 졸업 후 취업 전망	①	②	③	④
3) 부모님(가족)의 권유	①	②	③	④
4)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①	②	③	④
5) 학교선생님의 권유	①	②	③	④
6) 자신의 관심과 적성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①	②	③	④

문 42)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div></div>					

문 43)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44)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45)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문 4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6)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7)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2)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47) **지난 학기(2025년 1학기)** 등록금은 총 얼마입니까?

- | | |
|-----------------|-----------------|
| 1. 300만원 미만 | 2. 300~400만원 미만 |
| 3. 400~500만원 미만 | 4. 500~600만원 미만 |
| 5. 600만원 이상 | |

문 48) **지난 학기(2025년 1학기)** 등록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 | |
|-------------------------|----------------------|
| 1. 부모님의 도움 | 2.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 |
| 3. 본인이 마련(아르바이트 등) | 4. 장학금 |
| 5. 대출(한국장학재단, 은행 및 사금융) | 6. 기타 (적을 것 : _____) |

문 49)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부담이 되지 않는다 |
| 3. 부담이 된다 | 4. 매우 부담이 된다 |

B. 취업자 조사문항

문 50)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직업)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18. 해외 |

문 51) 현재 자신의 직장(직업)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문 52) 현재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직종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 선택)

직종 구분	세부 직종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직종 구분	세부 직종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 군인

문 53)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 임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 ※ 일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 무급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 | | |
|-----------------|-----------------|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 3. 일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 종사자 |

문 54) 현재 직업(직장)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각종 세금/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영업인 경우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200만원 미만 | 2. 200~250만원 미만 |
| 3. 250~300만원 미만 | 4. 300~350만원 미만 |
| 5. 350~400만원 미만 | 6. 400~450만원 미만 |
| 7. 450~500만원 미만 | 8. 500만원 이상 |

문 55) 현재 직업(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습니까?
가장 주된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1. 부모 및 형제자매, 친척, 친구, 선후배
2.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등)
3.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학원 등)
4.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
5. 인터넷(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6. 취업박람회
7.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56)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직장)은 귀하가 원했던 직장입니까?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3. 그런 편이다 | 4. 매우 그렇다 |

문 57)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직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2)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3)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4) 업무내용	①	②	③	④
5)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 안전도 등)	①	②	③	④
6)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문 58) 앞으로 직장(직업)을 옮길 의사(이직 의사)가 있습니까?

1. 전혀 이직할 의사가 없다
2.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4. 반드시 이직하고 싶다




문 59) **(B. 취업자 조사유형 중,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만 응답)**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전혀 진학할 의사가 없다
2. 진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4. 반드시 진학하고 싶다

C. 무직자 조사문항

문 60) 현재 대학 진학 또는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문60-1]로 이동
2.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60-1]로 이동
3.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문60-2]로 이동

문 60-1)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낮다 | 2. 낮은 편이다 |
| 3. 높은 편이다 | 4. 매우 높다 |

조사종료

문 60-2) 현재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건강상의 문제로
2. 집안사정 때문에(가사, 육아, 병간호 등)
3. 병역문제 때문에
4. 공부나 일을 하기 싫어서
5. 현재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취미활동, 여행 등)
6. 진학이나 취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 기타 (적을 것 : _____)

202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호자용 설문지

KCYPS 2018 원패널(초4 코호트)의 보호자

KCYPS 2025 원패널(초4 코호트)의 보호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조사대행기관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244
E-mail : kcyps2018@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패널전용 휴대전화)
카카오톡채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

문 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1. 국내(시/도) 2. 해외(국가명 :)

문 2)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부 모 : 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조부모 : 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1. 부모 모두(아버지, 어머니) + 자녀
2.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 자녀
3. (한)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자녀
4. (한)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부모 모두 + 자녀
5. (한)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한 부모 + 자녀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은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문3-1]로 이동** 2. 아니오 ☞ **[문3-3]으로 이동**

문 3-1)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받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교육을 받은 이유	
<보기 항목>	1.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2.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3.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4.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5.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 6.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7. 하교 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8. 기타 _____

문 3-2)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교육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만원

문 3-3)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받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보기 항목〉	1.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4.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5.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6.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7.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8. 기타 _____

문 4) 다음 중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에게 다음의 역할을 하는 가구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 대상 자녀(또는 피양육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호자	
☞ 아래 〈보기 항목〉 중 선택	
1)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주양육자	※ 주양육자 : 자녀양육에 시간과 노력 등을 가장 많이 들이는 사람
2)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학교 관련 일정을 주로 관리하는 보호자	
3)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사교육 관련 일정을 주로 관리하는 보호자	
4)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교우관계 형성에 주로 관여하는 보호자	
보호자	
〈보기 항목〉	1. 어머니 2. 아버지 3. (외)할머니 4. (외)할아버지 5. 형제자매 6. 기타 친인척 7.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5)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문 5-1) 귀하는 자녀와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각 자녀별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자녀가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 원패널)에 해당하는 경우 원패널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5-1a) 평일(하루 평균)	5-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자녀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원패널
둘째 자녀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원패널
셋째 자녀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div><div></div><div></div>시간</div> <div><div></div><div></div>분</div>	<input type="checkbox"/> 원패널

문 6)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7)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문 8)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5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문 9)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이 좋아하는 교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중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 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	

(선택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기타 (적을 것 :))	

(고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		-	

(전문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문 10)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이 잘한다고 교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중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	

(선택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기타 (적을 것 :))	

(고등학생인 경우)

교과	선택(O)	교과	선택(O)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		-	

(전문 교과에 응답한 사람만)

선택 교과	선택(O)	선택 교과	선택(O)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문 11) 귀하는 전반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교 졸업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5. 잘 모르겠음

문 11-1) 귀하는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수입(임금)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①	②	③	④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9)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1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 경험이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참여 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1	2	1-----	2-----	3-----	4-----	5-----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1	2	1-----	2-----	3-----	4-----	5-----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1	2	1-----	2-----	3-----	4-----	5-----
3) 학업 설계 워크숍	1	2	1-----	2-----	3-----	4-----	5-----
4) 직업박람회	1	2	1-----	2-----	3-----	4-----	5-----
5) 진로 관련 책/잡지	1	2	1-----	2-----	3-----	4-----	5-----
6)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1	2	1-----	2-----	3-----	4-----	5-----

※ 지금부터는 귀하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2) 귀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13]으로 이동**

문 12-1) **〔문1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12-2) **[[문1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자료를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고민한 후 가입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 목적(예, 학습, 소통, 정보 검색 등)에 맞게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 등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하거나 스팸 메일 차단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안전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보안에 유의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스팸,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난, 질병, 가정불화 등으로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가족, 친구 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괴롭힘이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나도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사용 시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만든 콘텐츠를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힌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하여 옳은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과 오프라인 활동(커뮤니티 활동, 정보, 게임 클랜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일자리 감소 혹은 변화 등)을 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의견 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만큼 디지털 방식으로도(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소통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나만의 취향(스타일)이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24)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 사진, 영상 등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강점과 장점 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올리는 글이나 영상의 내용은 평소 내 행동, 생각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친한 사람의 말이라 도 꼼꼼 히 따져 보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서 본 정보가 평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있는 글이나 자료는 유튜브나 매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14) 현재 귀하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15-1)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15-2)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선택(○)	단어	선택(○)
유능한		매력적인	
영리한		속물의	
확신에 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화자찬의		가식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개인주의적인		평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수적인	
통찰력이 있는		관습적인	
지적인		불만에 찬	
관심이 다양한		정직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관심의 폭이 좁은	
독창적인		예의바른	
심사숙고하는		진실한	
기자가 있는 (재치있는, 임기응변의)		순종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의심이 많은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19)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하지 말아야 한다 |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4. 하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해야 한다 | |

문 20)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낳지 말아야 한다 | 2. 낳지 않는 것이 좋다 |
| 3.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 4. 낳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낳아야 한다 | |

문 2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하지 말아야 한다 |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4. 하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해야 한다 | |

문 22)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낳지 말아야 한다 | 2. 낳지 않는 것이 좋다 |
| 3.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 4. 낳는 것이 좋다 |
| 5. 반드시 낳아야 한다 | |

문 23) 귀하는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24) 귀하는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25) 귀하는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26)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문 27)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 | |
|-----------------|--------------------|
| 1. 국내(_____시/도) | 2. 해외(국가명 : _____) |
|-----------------|--------------------|

문 28)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3)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문 29)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이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1. 예’에 해당됩니다.

구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2) 어머니	①	②	③
3) 보호자(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문 29-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적을 것 : _____)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30)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의 합계
 입니다.

1. 소득 없음

2.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6.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8.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9.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0.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1.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2. 1,000만 원 이상

문 31) 귀 닥의 가정 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하

보통

상

최상

①

②

③

④

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팀 -

□ 귀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예 [1]로 이동

○ 아니오 [2]로 이동

[1] 다음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불만족 < ————— > 만족				
1.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데이터 이용(SPSS, SAS, STATA, R, CSV 등)	①	②	③	④	⑤
3. 코드북 이용(구성, 변수명, 코드설명, 하이퍼링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품질의 신뢰성(제공 정보의 신뢰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품질의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품질의 다양성(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연구생산성 기여	①	②	③	④	⑤

[2] 기타 의견 (기타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이나 변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사, 박사) ④ 기타()

[4]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학 ② 교육학 ③ 심리학 ④ 사회학 ⑤ 사회복지학 ⑥ 기타()

끝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혼·출산관의 세대 간 인식구조 분석 전체 결과표

부록 표 VII-1.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26*** (0.016)	0.222*** (0.016)	0.221*** (0.016)	0.223*** (0.016)	0.223*** (0.016)	0.223*** (0.016)
성별		-0.084*** (0.015)	-0.083*** (0.015)	-0.083*** (0.015)	-0.078*** (0.016)	-0.078*** (0.016)
출생연도		-0.018*** (0.005)	-0.018*** (0.005)	-0.017*** (0.005)	-0.020*** (0.005)	-0.020*** (0.005)
지역 광역시			0.041** (0.020)	0.043** (0.021)	0.052** (0.022)	0.055** (0.022)
그 외			-0.027 (0.018)	-0.026 (0.018)	-0.027 (0.019)	-0.027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32 (0.020)	0.028 (0.021)	0.023 (0.021)
3분위				0.023 (0.025)	0.018 (0.026)	0.013 (0.026)
4분위				-0.018 (0.024)	-0.031 (0.026)	-0.037 (0.026)
가구원 수						
3명				-0.044 (0.054)	-0.074 (0.087)	-0.071 (0.087)
4명				-0.026 (0.052)	-0.057 (0.086)	-0.050 (0.090)
5명				-0.037 (0.054)	-0.068 (0.087)	-0.063 (0.091)
6명				-0.052 (0.064)	-0.084 (0.094)	-0.080 (0.098)
7명				-0.160* (0.094)	-0.187 (0.117)	-0.186 (0.120)
8명				0.111 (0.175)	0.080 (0.187)	0.079 (0.189)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1 (0.024)	0.020 (0.024)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4년제 대학					0.032 (0.024)	0.029 (0.024)
대학원 이상					0.063* (0.035)	0.059*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0 (0.023)	-0.022 (0.024)
4년제 대학					0.009 (0.025)	0.008 (0.025)
대학원 이상					-0.013 (0.038)	-0.016 (0.038)
형제자매 유무						-0.002 (0.039)
출생 순서						
둘째						-0.014 (0.018)
셋째 이상						0.015 (0.032)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57 (0.059)
4년제 대학						0.071 (0.050)
대학원 이상						0.084 (0.060)
잘 모르겠음						0.039 (0.054)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4	0.065	0.067	0.070	0.073	0.075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부록 표 Ⅶ-2.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출산관	0.210*** (0.015)	0.207*** (0.015)	0.204*** (0.015)	0.208*** (0.015)	0.209*** (0.016)	0.209*** (0.016)
성별		-0.105*** (0.015)	-0.104*** (0.015)	-0.104*** (0.015)	-0.103*** (0.015)	-0.103*** (0.015)
출생연도		-0.012** (0.005)	-0.012** (0.005)	-0.011** (0.005)	-0.012** (0.005)	-0.011** (0.005)
지역						
광역시			0.046** (0.020)	0.045** (0.021)	0.055** (0.021)	0.056*** (0.021)
그 외			-0.006 (0.017)	-0.011 (0.018)	-0.007 (0.019)	-0.009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26 (0.020)	0.030 (0.020)	0.024 (0.020)
3분위				0.002 (0.025)	0.004 (0.025)	-0.001 (0.026)
4분위				-0.038* (0.023)	-0.043* (0.025)	-0.051** (0.025)
가구원 수						
3명				0.002 (0.051)	-0.063 (0.087)	-0.061 (0.085)
4명				0.028 (0.049)	-0.034 (0.085)	-0.055 (0.088)
5명				0.028 (0.051)	-0.034 (0.086)	-0.054 (0.089)
6명				0.016 (0.061)	-0.045 (0.093)	-0.066 (0.095)
7명				-0.103 (0.095)	-0.157 (0.119)	-0.172 (0.120)
8명				0.055 (0.191)	-0.012 (0.194)	-0.027 (0.197)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03 (0.023)	-0.004 (0.023)
4년제 대학					0.035 (0.024)	0.031 (0.024)
대학원 이상					0.091*** (0.035)	0.086**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2~3년제 대학					-0.001 (0.023)	-0.002 (0.023)
4년제 대학					0.012 (0.025)	0.012 (0.025)
대학원 이상					-0.059 (0.037)	-0.061* (0.037)
형제자매 유무						0.037 (0.038)
출생 순서						
둘째						-0.005 (0.017)
셋째 이상						-0.007 (0.031)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26 (0.058)
4년제 대학						0.047 (0.049)
대학원 이상						0.064 (0.058)
잘 모르겠음						-0.003 (0.052)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0	0.064	0.065	0.069	0.075	0.077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부록 표 Ⅶ-3.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47*** (0.043)	0.237*** (0.044)	0.237*** (0.043)	0.245*** (0.044)	0.256*** (0.046)	0.257*** (0.046)
형제자매 유무	0.020 (0.028)	0.016 (0.028)	0.017 (0.028)	0.015 (0.038)	0.010 (0.042)	0.015 (0.044)
부모 결혼관* 형제자매 유무	-0.025 (0.046)	-0.018 (0.047)	-0.018 (0.046)	-0.025 (0.047)	-0.038 (0.049)	-0.039 (0.049)
성별		-0.084*** (0.015)	-0.083*** (0.015)	-0.083*** (0.015)	-0.078*** (0.016)	-0.078*** (0.016)
출생연도		-0.018*** (0.005)	-0.018*** (0.005)	-0.017*** (0.005)	-0.020*** (0.005)	-0.020*** (0.005)
지역						
광역시			0.041** (0.020)	0.043** (0.021)	0.052** (0.022)	0.054** (0.022)
그 외			-0.027 (0.018)	-0.027 (0.018)	-0.027 (0.019)	-0.027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33 (0.020)	0.028 (0.021)	0.024 (0.021)
3분위				0.023 (0.025)	0.018 (0.026)	0.013 (0.026)
4분위				-0.018 (0.024)	-0.031 (0.026)	-0.037 (0.026)
가구원 수						
3명				-0.049 (0.055)	-0.080 (0.087)	-0.077 (0.087)
4명				-0.033 (0.059)	-0.058 (0.090)	-0.056 (0.090)
5명				-0.043 (0.060)	-0.068 (0.091)	-0.069 (0.091)
6명				-0.059 (0.070)	-0.084 (0.098)	-0.086 (0.097)
7명				-0.167* (0.099)	-0.188 (0.120)	-0.193 (0.120)
8명				0.106 (0.175)	0.080 (0.187)	0.075 (0.188)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1 (0.024)	0.020 (0.024)
4년제 대학					0.032	0.029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0.024)	(0.024)
대학원 이상					0.063*	0.060*
					(0.035)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1	-0.022
					(0.023)	(0.024)
4년제 대학					0.009	0.008
					(0.025)	(0.025)
대학원 이상					-0.013	-0.016
					(0.038)	(0.038)
출생 순서						
둘째						-0.014
						(0.018)
셋째 이상						0.015
						(0.032)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58
						(0.059)
4년제 대학						0.072
						(0.050)
대학원 이상						0.085
						(0.060)
잘 모르겠음						0.040
						(0.054)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4	0.065	0.067	0.070	0.074	0.075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부록 표 VII-4.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출산관	0.247*** (0.041)	0.238*** (0.040)	0.236*** (0.040)	0.241*** (0.041)	0.249*** (0.043)	0.250*** (0.043)
형제자매 유무	0.060** (0.026)	0.058** (0.026)	0.058** (0.026)	0.060* (0.036)	0.057 (0.039)	0.060 (0.041)
부모 출산관* 형제자매 유무	-0.043 (0.044)	-0.037 (0.043)	-0.036 (0.043)	-0.038 (0.044)	-0.045 (0.046)	-0.047 (0.046)
성별		-0.105*** (0.015)	-0.104*** (0.015)	-0.104*** (0.015)	-0.103*** (0.015)	-0.103*** (0.015)
출생연도		-0.012** (0.005)	-0.012** (0.005)	-0.010** (0.005)	-0.012** (0.005)	-0.011** (0.005)
지역						
광역시			0.046** (0.020)	0.044** (0.021)	0.054** (0.021)	0.056*** (0.021)
그 외			-0.007 (0.017)	-0.012 (0.018)	-0.008 (0.019)	-0.009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28 (0.020)	0.031 (0.020)	0.024 (0.020)
3분위				0.003 (0.025)	0.005 (0.025)	-0.001 (0.026)
4분위				-0.037 (0.023)	-0.042* (0.025)	-0.050** (0.025)
가구원 수						
3명				-0.007 (0.051)	-0.070 (0.086)	-0.067 (0.084)
4명				-0.007 (0.056)	-0.064 (0.089)	-0.062 (0.088)
5명				-0.007 (0.058)	-0.065 (0.090)	-0.061 (0.089)
6명				-0.019 (0.067)	-0.076 (0.096)	-0.073 (0.095)
7명				-0.139 (0.099)	-0.188 (0.121)	-0.180 (0.120)
8명				0.029 (0.190)	-0.034 (0.193)	-0.032 (0.196)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03 (0.023)	-0.004 (0.023)
4년제 대학					0.034	0.031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0.024)	(0.024)
대학원 이상					0.090***	0.086**
					(0.035)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00	-0.002
					(0.023)	(0.023)
4년제 대학					0.013	0.012
					(0.025)	(0.025)
대학원 이상					-0.057	-0.061*
					(0.037)	(0.037)
출생 순서						
둘째						-0.005
						(0.017)
셋째 이상						-0.007
						(0.031)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28
						(0.058)
4년제 대학						0.048
						(0.049)
대학원 이상						0.066
						(0.058)
잘 모르겠음						-0.001
						(0.052)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51	0.065	0.066	0.069	0.075	0.077
성별 통제		○	○	○	○	○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부록 표 VII-5. 결혼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14*** (0.022)	0.213*** (0.022)	0.213*** (0.022)	0.215*** (0.022)	0.213*** (0.023)	0.214*** (0.023)
성별	-0.093*** (0.020)	-0.092*** (0.020)	-0.091*** (0.020)	-0.091*** (0.020)	-0.088*** (0.020)	-0.087*** (0.020)
부모 결혼관*성별	0.015 (0.031)	0.018 (0.031)	0.018 (0.031)	0.017 (0.031)	0.020 (0.032)	0.020 (0.032)
출생연도		-0.018*** (0.005)	-0.018*** (0.005)	-0.017*** (0.005)	-0.020*** (0.005)	-0.020*** (0.005)
지역						
광역시			0.041** (0.020)	0.043** (0.021)	0.052** (0.022)	0.055** (0.022)
그 외			-0.027 (0.018)	-0.026 (0.018)	-0.027 (0.019)	-0.027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32 (0.020)	0.028 (0.021)	0.023 (0.021)
3분위				0.023 (0.025)	0.018 (0.026)	0.013 (0.026)
4분위				-0.018 (0.024)	-0.032 (0.026)	-0.037 (0.026)
가구원 수						
3명				-0.045 (0.054)	-0.075 (0.087)	-0.072 (0.087)
4명				-0.026 (0.052)	-0.058 (0.086)	-0.050 (0.090)
5명				-0.037 (0.054)	-0.068 (0.087)	-0.063 (0.091)
6명				-0.053 (0.064)	-0.085 (0.094)	-0.081 (0.098)
7명				-0.160* (0.094)	-0.188 (0.117)	-0.187 (0.120)
8명				0.110 (0.174)	0.079 (0.186)	0.078 (0.188)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1 (0.024)	0.020 (0.024)
4년제 대학					0.033 (0.024)	0.029 (0.024)
대학원 이상					0.062* (0.024)	0.059* (0.024)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0.035)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21	-0.022
					(0.023)	(0.024)
4년제 대학					0.009	0.008
					(0.025)	(0.025)
대학원 이상					-0.012	-0.016
					(0.038)	(0.038)
형제자매 유무						-0.003
						(0.039)
출생 순서						
둘째						-0.014
						(0.018)
셋째 이상						0.014
						(0.032)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57
						(0.059)
4년제 대학						0.072
						(0.050)
대학원 이상						0.085
						(0.059)
잘 모르겠음						0.040
						(0.053)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62	0.065	0.067	0.070	0.074	0.075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부록 표 Ⅶ-6. 출산관의 세대 간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이

VARIABLES	(1) 기본 모형	(2) + 개인 특성	(3) + 지역	(4) + 가구 특성	(5) + 부모 학력	(6) 전체 모형
부모 결혼관	0.212*** (0.022)	0.213*** (0.022)	0.210*** (0.022)	0.214*** (0.022)	0.209*** (0.022)	0.210*** (0.022)
성별	-0.100*** (0.019)	-0.099*** (0.019)	-0.099*** (0.019)	-0.098*** (0.019)	-0.103*** (0.020)	-0.103*** (0.020)
부모 결혼관*성별	-0.014 (0.030)	-0.012 (0.030)	-0.012 (0.030)	-0.013 (0.030)	0.000 (0.031)	-0.002 (0.031)
출생연도		-0.012** (0.005)	-0.012** (0.005)	-0.011** (0.005)	-0.012** (0.005)	-0.011** (0.005)
지역						
광역시			0.046** (0.020)	0.045** (0.021)	0.055** (0.021)	0.056*** (0.021)
그 외			-0.006 (0.017)	-0.011 (0.018)	-0.007 (0.019)	-0.009 (0.019)
가구 소득분위						
2분위				0.026 (0.020)	0.030 (0.020)	0.024 (0.020)
3분위				0.002 (0.025)	0.004 (0.025)	-0.001 (0.026)
4분위				-0.039* (0.023)	-0.043* (0.025)	-0.051** (0.025)
가구원 수						
3명				0.003 (0.051)	-0.063 (0.087)	-0.060 (0.085)
4명				0.028 (0.049)	-0.034 (0.085)	-0.055 (0.088)
5명				0.028 (0.051)	-0.034 (0.086)	-0.054 (0.089)
6명				0.017 (0.061)	-0.045 (0.093)	-0.066 (0.095)
7명				-0.102 (0.095)	-0.157 (0.119)	-0.172 (0.120)
8명				0.056 (0.192)	-0.012 (0.194)	-0.027 (0.197)
아버지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03 (0.023)	-0.004 (0.023)
4년제 대학					0.035 (0.024)	0.031 (0.024)
대학원 이상					0.091***	0.086**

	(1)	(2)	(3)	(4)	(5)	(6)
VARIABLES	기본 모형	+ 개인 특성	+ 지역	+ 가구 특성	+ 부모 학력	전체 모형
					(0.035)	(0.035)
어머니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0.001	-0.002
					(0.023)	(0.023)
4년제 대학					0.012	0.012
					(0.025)	(0.025)
대학원 이상					-0.059	-0.061*
					(0.037)	(0.037)
형제자매 유무						0.037
						(0.038)
출생 순서						
둘째						-0.005
						(0.017)
셋째 이상						-0.007
						(0.031)
향후 목표 교육수준						
2~3년제 대학						0.026
						(0.058)
4년제 대학						0.047
						(0.049)
대학원 이상						0.064
						(0.058)
잘 모르겠음						-0.003
						(0.052)
Observations	3,766	3,766	3,766	3,766	3,601	3,601
R-squared	0.062	0.064	0.065	0.069	0.075	0.077
연령 통제		○	○	○	○	○
지역 통제			○	○	○	○
가구 소득 통제				○	○	○
가구원 수 통제				○	○	○
부모 학력 통제					○	○
형제자매 유무 통제						○
출생 순서 통제						○
학업 목표 통제						○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는 수도권임

*** p<0.01, ** p<0.05, * p<0.1

[데이터 이용실적 정제, 키워드 정리 방법, 상세 결과표 및 그림]

■ 분석 자료 개요

- **분석 대상**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제1기(KYPS 2003), 제2기(KCYPS 2010), 제3기(KCYPS 2018)까지 총 3개 기수의 패널데이터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함
 - 총 4,419건의 이용실적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각 자료에는 패널구분, 학술자료 구분, 게재연도, 검색연도, 서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구분**
 - 학술자료 유형: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부록 표 VIII-1.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연구 관련 기초 데이터

필드명	내용	코드
id	연번	
number	패널 구분	1 KYPS 2003, 2 KCYPS 2010, 3 KCYPS 2018
number_code	패널 구분 코드	
segment	학술자료 구분	1 박사논문, 2 석사논문, 3 학술지논문, 4 학술대회 발표논문, 5 단행본/보고서
segment_code	학술자료 구분 코드	
year	학술자료 게재 연도	
search_year	학술자료 검색 연도	
contents	학술자료 서지 정보	

■ 학술논문 분석 개요

● 자료 연계 및 보완

- 학술논문 데이터는 국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⁵²⁾ 및 국외 SSCI/SCIE 정보를 결합하여 학문 분야별 특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함
- KCI 데이터베이스의 학술지 종수 자료를 활용하여 각 논문을 대분류·중분류·등재구분 정보와 매칭함
- SSCI/SCIE 데이터를 추가로 결합하여,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학문분야 및 등재유형을 보완함

부록 표 VIII-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제공 정보

제공정보	
기관명	E-ISSN
기관명(영문)	대분류
소속기관	중분류
기관 구분	사용언어
학술지한글명	등재구분
학술지외국어명	창간년도
P-ISSN	발행간기

■ 키워드 추출 및 전처리 과정

● 분석 절차

-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의 서지정보 중 학술자료 제목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자동 추출함
- 학술자료 제목에서 텍스트를 분리한 후, RegexTokenizer를 활용하여 공백 단위로 단어를 분리함
- 분리된 단어에서 조사 및 불용어를 제거하고, 동의어 및 유사어를 통일(치환)하는 과정을 거침

52) <https://www.kci.go.kr/kciportal/po/statistics/poStatisticsMain.kci>

- 의미 전달력이 낮은 불필요 단어를 삭제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키워드 목록을 생성하였으며, 이후 단계에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와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분석에 활용함

부록 표 VIII-3. 키워드 정리 방법

단계	내용
조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은", "는", "이", "가", "을", "를", "와", "과", "에", "에서", "으로" 등의 어미로 끝나는 단어에서는 어미를 삭제
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양육태도" → "양육" • "의존도" → "의존" • "과의존" → "의존" • "휴대전화" → "휴대전화(스마트폰)" • "휴대폰" → "휴대전화(스마트폰)" • "스마트폰" → "휴대전화(스마트폰)" • "양육방식" → "양육" • "청소년비행" → "비행" • "다문화수용성" → "다문화" 등
불용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영향", "미치", "관계", "매개효과", "중심", "분석", "연구", "중학생", "아동", "대한", "요인", "관한", "따른", "청소년기", "조절효과", "초등학생", "유형", "of", "초기", "활용한", "고등학생", "비교", "and", "구조적", "특성", "매개로", "적용", "변인", "학년", "경험", "예측요인", "적용", "학교", "이용한", "초등학교", "in", "관련", "학생", "적용한", "만족", "통한", "사용", "조절된", "분류", "주관적", "on", "모형", "The", "수준", "Korean", "인과관계", "자각", "이용", "the", "한국", "한국아동", "정신건강", "이중매개효", "고등학교", "매개", "자기회귀교차지연", "부모" 등

●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수 상위 5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주제 간의 연결 구조 및 중심 키워드의 상호관계를 파악함
-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중심성 지표이며,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임
- 중심성이 높으면 해당 키워드가 다양한 키워드와 동시(co-occurrence)에 등장한다는 뜻이며, 여러 연구 맥락에서 동시에 중요한 중심 키워드로 작동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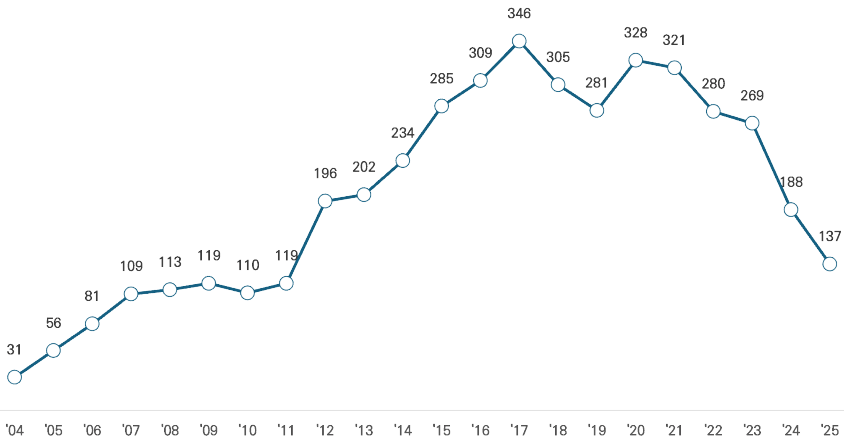
■ 상세 결과표 및 그림

부록 표 Ⅷ-4. 연도별·자료유형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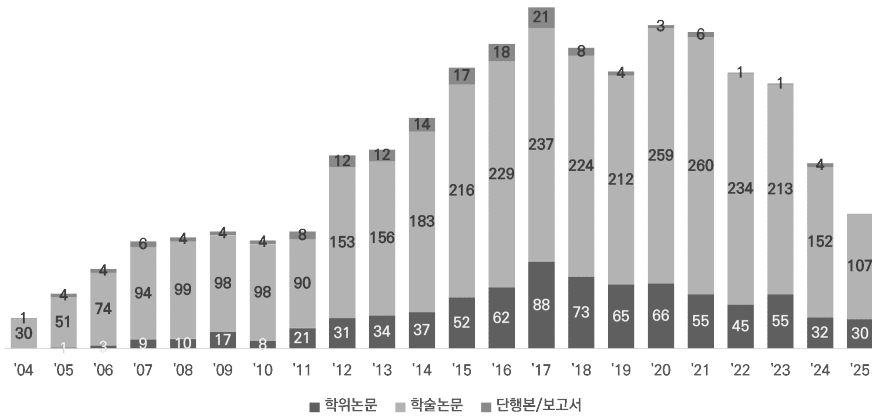
연도	전체자료							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31	0			30	15	15	1
2005	56	1		1	51	19	32	4
2006	81	3	1	2	74	33	41	4
2007	109	9	1	8	94	55	39	6
2008	113	10	4	6	99	65	34	4
2009	119	17	4	13	98	66	32	4
2010	110	8	2	6	98	97	1	4
2011	119	21	5	16	90	66	24	8
2012	196	31	7	24	153	110	43	12
2013	202	34	5	29	156	105	51	12
2014	234	37	7	30	183	143	40	14
2015	285	52	11	41	216	175	41	17
2016	309	62	8	54	229	187	42	18
2017	346	88	28	60	237	194	43	21
2018	305	73	22	51	224	223	1	8
2019	281	65	16	49	212	172	40	4
2020	328	66	6	60	259	222	37	3
2021	321	55	11	44	260	222	38	6
2022	280	45	11	34	234	196	38	1
2023	269	55	11	44	213	145	68	1
2024	188	32	4	28	152	142	10	4
2025	137	30	3	27	107	105	2	
합계 (비중)	4,419 (100.0)	794 (18.0)	167 (3.8)	627 (14.2)	3,469 (78.5)	2,757 (62.4)	712 (16.1)	156 (3.5)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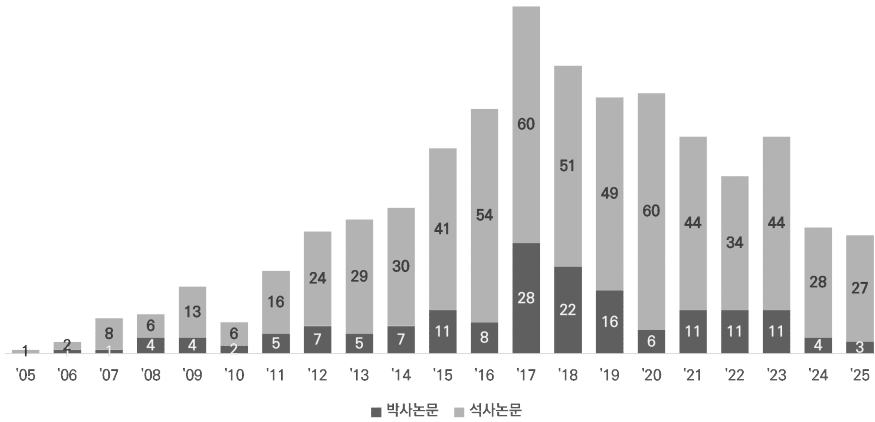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1. 연도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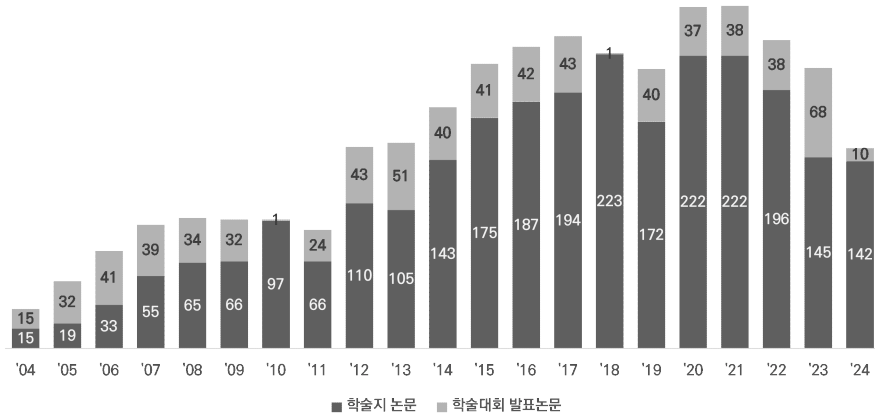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2. 연도별·자료유형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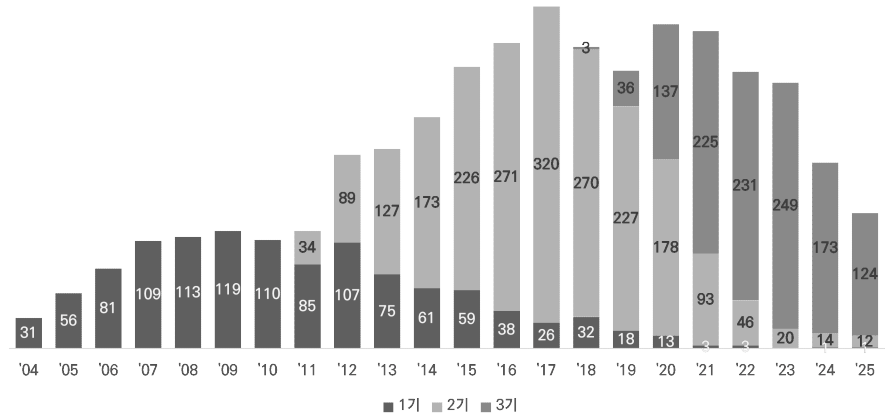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3. 연도별·학위구분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활용 학술자료 현황

(단위 : 건)



부록 그림 Ⅷ-4. 연도별·학술지구분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활용 학술자료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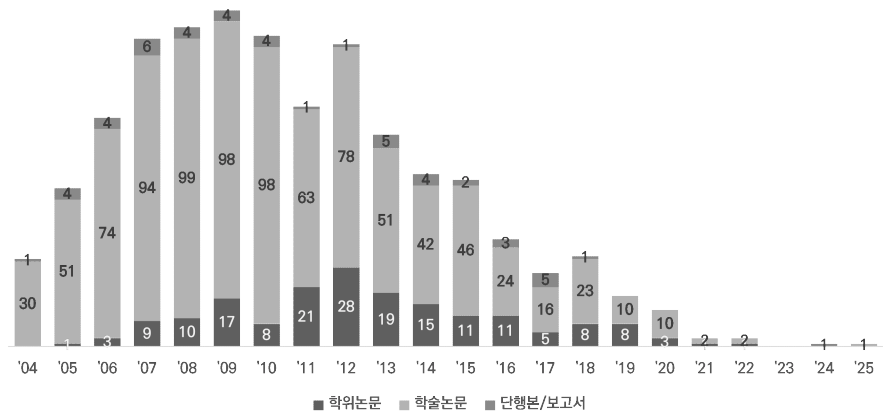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5. 연도별·자료유형별 연도별·기수별 패널데이터 활용 학술자료 현황

부록 표 Ⅷ-5. 제1기(KYPS 2003)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단위 : 건, %)

연도	1기 전체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 보고서
2004	31	0	30	1
2005	56	1	51	4
2006	81	3	74	4
2007	109	9	94	6
2008	113	10	99	4
2009	119	17	98	4
2010	110	8	98	4
2011	85	21	63	1
2012	107	28	78	1
2013	75	19	51	5
2014	61	15	42	4
2015	59	11	46	2
2016	38	11	24	3
2017	26	5	16	5
2018	32	8	23	1
2019	18	8	10	0
2020	13	3	10	0
2021	3	1	2	0
2022	3	1	2	0
2023	0	0	0	0
2024	1	0	0	1
2025	1	0	1	0
합계 (비중)	1,141 (100.0)	179 (15.7)	912 (79.9)	50 (4.4)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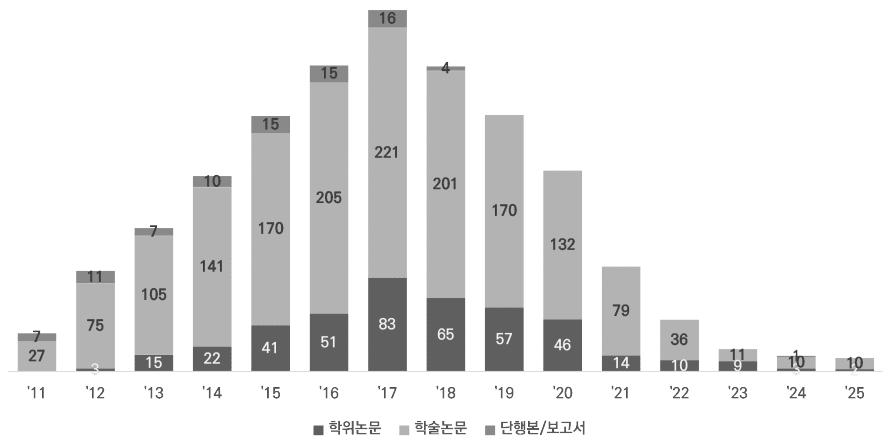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부록 표 Ⅷ-6. 제2기(KCYPS 2010)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단위 : 건, %)

연도	2기 전체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 보고서
2011	34	0	27	7
2012	89	3	75	11
2013	127	15	105	7
2014	173	22	141	10
2015	226	41	170	15
2016	271	51	205	15
2017	320	83	221	16
2018	270	65	201	4
2019	227	57	170	0
2020	178	46	132	0
2021	93	14	79	0
2022	46	10	36	0
2023	20	9	11	0
2024	14	3	10	1
2025	12	2	10	0
합계	2,100	421	1,593	86
(비중)	(100.0)	(20.0)	(75.9)	(4.1)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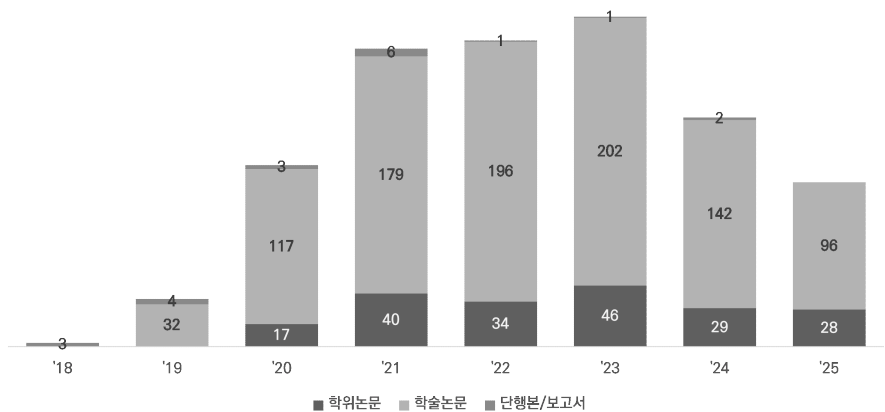
부록 그림 Ⅷ-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부록 표 Ⅷ-7. 제3기(KCYPs 2018)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종합

(단위 : 건, %)

연도	3기 전체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 보고서
2018	3	0	0	3
2019	36	0	32	4
2020	137	17	117	3
2021	225	40	179	6
2022	231	34	196	1
2023	249	46	202	1
2024	173	29	142	2
2025	124	28	96	0
합계 (비중)	1,178 (100.0)	194 (16.5)	964 (81.8)	20 (1.7)

(단위 : 건)



부록 그림 Ⅷ-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기 자료유형별 활용 학술자료 현황

부록 표 Ⅷ-8.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상세현황 종합

(단위 : 건, %)

연도	전체 학술논문					
		SSCI / SCIE 등재지	KCI 우수등재지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미등재지
2004	15					15
2005	19			19		
2006	33		4	28		1
2007	55	1	3	47		4
2008	65		2	57		6
2009	66		4	62		
2010	97		4	81	1	11
2011	66	1	1	56		8
2012	110	1	4	91	1	13
2013	105		3	89		13
2014	143		8	122	1	12
2015	175	1	5	144		25
2016	187	5	8	142	1	31
2017	194	3	6	164	1	20
2018	223	4	5	174		40
2019	172	2	4	117	1	48
2020	222		3	153	3	63
2021	222		9	157	1	55
2022	196		11	140	2	43
2023	145		4	105	3	33
2024	142	7	8	87	2	38
2025	105	7	2	69	1	26
합계 (비중)	2,757 (100.0)	32 (1.2)	98 (3.6)	2,104 (76.3)	18 (0.7)	505 (18.3)

부록 표 Ⅷ-9.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대분류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등재 학술논문									
		사회과학	복합학	자연과학	기타	공학	의약학	인문학	예술 체육학	농수 해양학
2005	19	17	2	.	.	.
2006	32	27	.	1	4
2007	51	41	1	2	4	.	3	.	.	.
2008	59	43	3	4	8	.	.	1	.	.
2009	66	54	1	5	2	.	1	.	3	.
2010	86	66	4	2	12	.	1	1	.	.
2011	58	54	.	2	2
2012	97	82	1	5	6	.	2	.	1	.
2013	92	77	.	8	4	2	.	.	.	1
2014	131	105	10	9	4	1	1	.	1	.
2015	150	117	8	11	5	1	2	3	3	.
2016	156	115	9	13	6	2	4	4	3	.
2017	174	123	21	3	13	7	4	.	2	1
2018	183	133	16	10	8	5	6	3	2	.
2019	124	80	12	4	3	12	5	3	4	1
2020	159	124	9	6	6	7	3	4	.	.
2021	167	126	16	13	2	7	.	2	1	.
2022	153	111	13	12	5	2	3	3	4	.
2023	112	91	10	.	2	1	3	2	3	.
2024	104	71	8	11	1	4	5	2	2	.
2025	79	56	10	5	1	1	4	1	1	.
합계 (비중)	2,252 (100.0)	1,713 (76.1)	152 (6.7)	126 (5.6)	98 (4.4)	52 (2.3)	49 (2.2)	29 (1.3)	30 (1.3)	3 (0.1)

부록 표 Ⅷ-10.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활용 학술지 논문 중분류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등재 학술논문						
		기타 사회과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학제간연구	생활과학	그외
2005	19	7	3	2	.	.	7
2006	32	11	7	3	.	1	10
2007	51	18	6	6	1	2	18
2008	59	26	5	7	3	4	14
2009	66	34	6	7	1	5	13
2010	86	30	16	9	4	2	25
2011	58	21	6	16	.	2	13
2012	97	23	25	19	.	5	25
2013	92	24	18	21	.	6	23
2014	131	34	20	22	10	8	37
2015	150	34	29	32	8	10	37
2016	156	38	28	22	9	12	47
2017	174	39	31	22	21	3	58
2018	183	38	38	23	16	9	59
2019	124	20	19	20	10	3	52
2020	159	38	30	30	9	6	46
2021	167	29	45	13	15	11	54
2022	153	32	49	10	12	10	40
2023	112	19	41	11	10	.	31
2024	104	21	31	4	8	11	29
2025	79	12	18	9	6	5	29
합계 (비중)	2,252 (100.0)	548 (24.3)	471 (20.9)	308 (13.7)	143 (6.3)	115 (5.1)	667 (29.6)

부록 표 Ⅷ-11. 제1기(KYPS 2003)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단위 : 회)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비행	182	26	학교적응	26
2	변화	114	27	영향요인	26
3	검증	98	28	피해	25
4	종단적	79	29	아르바이트	25
5	스트레스	73	30	가정	25
6	자아존중감	71	31	인터넷	24
7	우울	62	32	탐색	24
8	공격성	56	33	자본	23
9	학업성취	53	34	보호요인	23
10	사회적	43	35	사회자본	23
11	부모애착	42	36	결정요인	22
12	성별	40	37	가해	22
13	문제행동	34	38	친구	22
14	진로성숙도	34	39	발달	22
15	사회경제적	33	40	학업스트레스	21
16	종단연구	32	41	지위	20
17	자아개념	30	42	비행친구	20
18	가족	29	43	지위비행	18
19	자녀	29	44	자살생각	18
20	잠재성장모형	29	45	부정적	17
21	발달궤적	29	46	폭력	17
22	자기통제력	27	47	학업성적	17
23	빈곤	27	48	자기효능감	17
24	애착	26	49	차이	16
25	학업성취도	26	50	사교육	16

부록 표 Ⅷ-12. 제2기(KCYPs 2010)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단위 : 회)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휴대전화(스마트폰)	226	26	영향요인	75
2	우울	212	27	탐색	70
3	만족도	207	28	자녀	61
4	학교생활적응	201	29	학교생활	58
5	종단적	172	30	종단연구	58
6	도래애착	167	31	학업성취	56
7	의존	163	32	학교폭력	56
8	자아존중감	163	33	자아정체감	55
9	양육	154	34	정서문제	54
10	사회적	152	35	공동체	53
11	학교적응	150	36	체험활동	52
12	변화	133	37	의식	51
13	검증	131	38	잠재성장모형	46
14	공격성	130	39	아동학대	41
15	자아탄력성	124	40	부정적	39
16	비행	120	41	학업성취도	37
17	양육태도	109	42	교우관계	36
18	방임	102	43	지역사회	35
19	진로정체감	100	44	발달	32
20	공동체의식	98	45	부모양육방식	32
21	학대	98	46	사이버비행	32
22	지각한	94	47	과잉간섭	31
23	성별	86	48	긍정적	30
24	위축	79	49	자존감	30
25	다문화	78	50	정서	30

부록 표 Ⅷ-13. 제3기(KCYPs 2018)를 활용한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50

(단위 : 회)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휴대전화(스마트폰)	261	26	학업성취	47
2	의존	214	27	무기력	44
3	그릿	210	28	도래관계	43
4	양육태도	201	29	교사관계	43
5	자아존중감	168	30	협동심	41
6	우울	140	31	사이버비행	37
7	사회적	119	32	사이버	34
8	양육	108	33	다집단	34
9	학업무기력	107	34	잠재프로파일	32
10	만족도	106	35	진로적응력	31
11	지각한	104	36	학업성취도	29
12	자녀	84	37	창의적	29
13	종단적	84	38	정서	27
14	부정적	79	39	교사	27
15	위축	77	40	Grit	26
16	탐색	74	41	중학교	25
17	공격성	70	42	순차적	25
18	영향요인	66	43	문제	25
19	검증	65	44	변화궤적	25
20	긍정적	65	45	지지	24
21	변화	61	46	주의집중	23
22	비행	59	47	자존감	22
23	행복감	54	48	참여	22
24	성별	53	49	어머니	22
25	친구관계	52	50	잠재성장모형	22

부록 표 Ⅷ-14. 패널데이터 활용 전체 학술자료 키워드 상위 10위 기수별 변화

(단위 : 회, 위)

키워드	전기간		1기		2기		3기	
	빈도수	순위	빈도수	순위	빈도수	순위	빈도수	순위
휴대전화(스마트폰)	490	1	3	–	226	1	261	1
우울	414	2	62	7	212	2	140	6
자아존중감	402	3	71	6	163	7	168	5
의존	379	4	2	–	163	8	214	2
비행	361	5	182	1	120	16	59	22
종단적	335	6	79	4	172	5	84	12
만족도	325	7	12	–	207	3	106	10
양육태도	317	8	7	–	109	17	201	4
사회적	314	9	43	10	152	10	119	7
변화	308	10	114	2	133	12	61	21

국문초록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발달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급변하는 사회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장기적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개인의 발달경로와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별 발달구조를 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KCYPS 2018의 제8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중1 코호트는 제7차년도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초4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8차년도 조사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학업, 진로, 정서, 관계, 건강 등 발달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발달 경로를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25년은 신규패널(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5, KCYPS 2025)이 새롭게 구축된 해로, 변화하는 사회·교육·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알파세대)의 발달과 적응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CYPS 2025는 표본설계와 조사도구 개발, 조사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향후 세대 간 발달의 연속성과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종단연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KCYPS 데이터는 현재까지 약 4,4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에 활용될 정도로 높은 연구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구자, 학계, 정책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KCYPS가 아동·청소년·청년 발달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서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ABSTRACT

Childhood and youth are periods characterized by rapid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at occur through interactions with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haped by digital transformation, establishing a longitudinal research foundation to systematically track developmental changes is essential to support children and youth in achieving healthy growth and self-reliance.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is a nationally approved longitudinal survey design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ir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over time. The survey provides critical empirical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academic research, serving as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generational developmental structures in the long term.

In 2025, the 8th wave of the KCYPs 2018 was conducted. The middle school first-grade cohort from 2018 completed its participation with the 7th wave, and thus, the 8th wave targeted only the elementary school fourth-grade cohort from 2018. The 8th wave focused on developmental transitions in academic achievement, career preparation, emotional adjust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ong respondents who are now in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enabling a longitudinal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hood through youth to early adulthood.

Additionally, 2025 marked the launch of a new panel, KCYPS 2025, designed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and adaptive characteristics of the new "Alpha Generation," growing up amid social, educational, and digital transformations. Through refined sampling design, updated instruments, and enhanced data collection methods, KCYPS 2025 establishes a new longitudinal research framework to integrate analyses of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continuity and change.

Data produc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through KCYPS have been extensively utilized in approximately 4,4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publications, demonstrating its significant research value. The dataset continues to serve as a key empirical foundation for child and youth policy formulation and evaluation. Going forward, NYPI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researchers, academia, and policymakers to strengthen the KCYPS as a core national infrastructure supporting academic and policy advancements in child and youth development studies.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
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 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 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혁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 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 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
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크숍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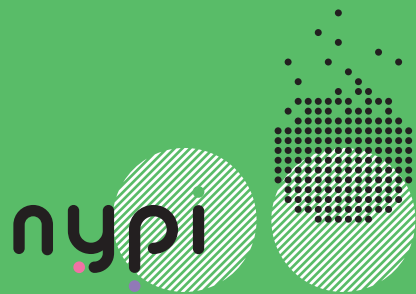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63-0 94330

979-11-5654-462-3 (세트)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63-0

979-11-5654-462-3 (세트)